

安慶女性團體史

安慶市女性團體協議會

AN
389. 211
안양시여성

安養女性團體史



安養市女性團體協議會

「안양여성단체사」를 발간하면서...

안양에 삶의 터전 일구고

자연스레 이웃 사랑의 소명을 안은 여성 단체의 이모습저모습,

한분한분 몸소 실천해 온 봉사의 걸음이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

오늘에 이르니, 감히 떨리는 벅찬 심정일레라

지난 역사를 기억하되 그러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삶을 보게 하소서.

애써 오류와 거짓을 덮거나 외면하지 않음으로 밝은 내일을 품위있게 만드는 푸른 샛별 되게 하소서.

보잘것 없고 무의미해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흐름을 창조주가 설계하고 운용한다는

하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안양여성단체사」는 안양의 여성단체들의 설립 배경과 활동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정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에 앞서 제 1 부에는 미비하나마 안양 역사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조사, 수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답게 아름다운 죽음을 택한 열녀문의 豊壤趙氏, 한국 첫 여류화가, 문필가, 여성운동가였지만 시대적 편견에 떠밀려 유랑생활을 하던 중 안양기독교보육원 농장에 머물렀다는 (故)나혜석, 1947년 대한부인회부터 활동을 시작, 안양 여성활동의 효시가 되었던 (故)송신실 여사... 이 기록들이 '단순한 자료 나열의 역사'가 아닌 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있는 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시보다 앞서 안양시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고, 그 기금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안양여성단체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됨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사람의 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자 여러분과, 세월에 묻혀버린 여성활동의 자취를 찾아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위원들의 큰 수고 길이 빛나라 믿으며, 직접 발로 뛰어 이 책이 출간되게 한 「경희기획」과, 사라지는 자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소장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연 타계하신 편찬위원 (故)이승언님에게 삼가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이신 하나님께 경의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안양여성단체 협의회장 의학박사 황영희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간의 활동상과 발전 과정 등을 담은 『안양여성단체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여성단체의 각종 지원을 비롯해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의 능력 개발, 취미교육 및 사회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여성단체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성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으로써 지역 발전과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 펼쳐오신 활동상과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은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본 『안양여성단체사』가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을 위한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서가 정리 발간되기까지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여성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안 양 시 장

활동상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

존경하는 황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단체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21C의 주역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성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활동상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할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한단계 성숙한 발전을 하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역할은 그동안 여성복지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국가 발전 및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C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감수성과 유연성을 갖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믿으며, 여성이 사회와 가정을 같이 꾸려갈 수 있도록 성차별적인 의식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조성을 금년에 완료하여, 향후 여성단체 여러분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각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안양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안 양 시 의 회 의 장



마을 여인들의 보리 파종 모습(1941.10.23)

▶ 박강현(전물군경미망인회) 제공



「대한부인회」 회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기념 촬영(1957.4.18, 자유당중앙정치훈련원)
안양지역의 「대한부인회」는 1949년 초에 결성되었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대한부인회」 회원들의 경주대(청와대) 방문.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가 안양지역 대표 (故)송신실, 왼쪽 끝에서 두번째, 얼굴만 보이는 검은 양장이 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를 담당하던 김혜숙이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안양유치원 제4회 졸업기념, 4293, 3.30

「안양유치원」 제4회 졸업기념(1960.3.30.)

「안양유치원」은 안양지역 최초의 유치원으로 「안양 장내동성당(현,중앙성당)」의 최순금(말지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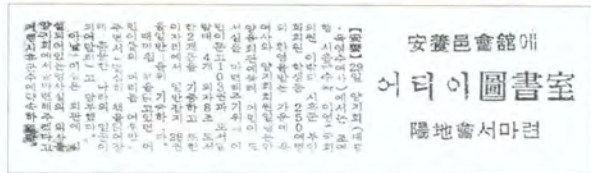


5.16 이후 군사정부는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시키고 「재건부녀회」를 조직하였다. 「재건부녀회」는 성공민주주의 이념의 확립과 공공중립사상 배격을 실천 강령으로 하는 재건국민운동의 행동주체로서 조직되었다.(부녀행정 40년사/보건사회부/중에서)
「재건운동본부」에서 시흥군 「재건부녀회」 지도자 방문 중이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故)육영수여사가 안양읍민관에 어린이 도서실 현판을 거는 모습 ▶ 육영수여사는 71년 성나자로마을에 「정결의 집」을 마련 묵묵히 이발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50~60년대 안양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금성방직」, 여성근로자들이 뿔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당시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에 취업, 전입해 오는 여성근로자들로 인해 안양의 남녀 구성비가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하였다. ▶ 이지우 제공



「한국부인회 시흥군지부」 축전대회
5.16 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던 「대한부인회」가 1963년 「한국부인회」로 명칭 변경, 활동을 재개하였다.

▶ (故) 이승연(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안양읍 여성저축유공자 (故)송신실의 청와대 방문(아래 우측에서 다섯번째)
(故)박정희대통령 영부인 (故)육영수여사와 전국 시,군 저축유공자들이 함께 기념촬영(1972.6.)

▶ 이의정 제공



「록지회」에서 전쟁고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독교보육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함께 기념촬영(1960.5).
똑같은 옷을 갈아입은 어린이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온통 카메라만
바라보고 있다.

▶ 박강현(전물군경미망인회원) 제공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쌀 1말을 전달하는 모습(1961.12)

▶ 김영녀(갈스킴) 제공



「한국부인회」에서 시흥군 군자에 있는 군부대를 위문하는 모습 (1965.7)

▶ 한국부인회 제공



1969년 시흥군 당국은 농촌부녀자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이해순 외 9명에게 보모교육을 시키고 부락 단위로 탁아소를 개소하였다. 안양읍 신안양3리에 설치된 「충훈탁아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모습이다. ▶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 제공



「안양읍민관」 앞 스피커에서는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고 부녀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섰다. 중앙에 아기를 업고 나온 부녀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 (故) 이승연(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왼쪽)
파월장병의 집에 <월남출정용사의 집>이라는 문패를 게시, 자랑스럽게 여기며 칭송하였다.

▶ (故) 이승연(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오른쪽)
절미저축으로 모은 쌀을 가지고 나온 부녀회원들

▶ (故) 이승연(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수해지역에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1965)

▶ 박복자(전, 안양보건소 가족계획 담당) 제공



여성단체에서 수재민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정성스레 음식을 마련, 군부대 방문을 위해 가는 길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과천 구세군 양로원」 방문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최은희 안양예고 이사장, 예고예술단, 성조부인회의 군부대 위문
(1975.9) ▶ 성수옥(당시 성조부인회장) 제공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새마을부녀회」가 조직, 교양사업, 소득증대, 인보활동, 저축증대,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겼다. ▶ 《故》이승연(시흥시청 향토자료실) 제공



「어머니 배구단」 1976년 7월 22일 안양시 어머니 배구단 발족, <경기도 어머니배구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 김혜숙(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 담당) 제공



1978년 5월 9일 안양기독보육원 뜰에서 개최된 제1회 <안양여성글짓기 대회> ▶ 계성숙(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제공



안양시는 1974년 8월 5일 상오 10시 근명여상고에서 중졸 이상의 주부가 참가하는 「하계주부시민대학」 개교식을 가지고 135명의 주부에게 보건과 경제문제, 내고장 기업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안양상의보).

옆 사진은 1977년 제10회 수료기념 사진이다.

▶ 박정래(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제공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제1회 <시민의 날> 1974년 10월 1일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상오 11시 30분,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시내 중심도로에서 안양여중고, 근명여중고, 안양공고, 안양영화예술학교, 안양시 가족계획어머니회 회원들이 가장행렬(안양시 교육청 주관)을 벌여 연도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안양상보).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 제공



안방주인으로 부엌이나 집안을 지키던 부녀자들이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생활개선사업, 인보사업, 정신개혁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모유를 먹이자, 일회용품 쓰지 말기...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김영자(새마을회), 이의정(여성단체협의회), 박복자 제공





〈가족계획 홍보와 상담 활동〉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억제에 효과가 큰 피임방법을 선택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해 왔다.

돌만 낳아 잘 기르자던 표어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로 바뀌더니, 이제는 선진국형의 저출산시대에 진입,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복지(전, 안양시보건소 가족계획 담당) 제공



〈폐품을 이용한 솜씨자랑〉 안양시의 이석근이 정부미 포대로 모자와 등산가방을 만들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성단체회원들이 모두 전시회 관람 나들이를 가다. ▶이인자 제공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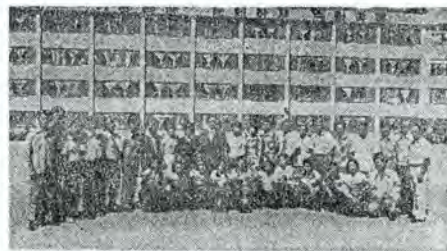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는 4월 25일 안양4동 소재 「근로자회관」 대강당에서 “알뜰한 살림자랑, 정다운 교환장소”라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가정에서 안쓰는 쓸모없는 물품 6천여 점(의류·책·부엌용품·장난감·가방·응접세트 등)을 싼값에 출품, 5천여 점이 교환되었고 4천여 명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 각 여성단체와 동통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알뜰한 살림의 모습을 격려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안양상의보, 1980.5.1)

이렇게 이어진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운동은 그 실효를 거두어 1997년 경기도로부터 ‘가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정애영(주부클럽) 제공



<여성 기능 경진대회>는 여성의 기능 확대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부녀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며 <경기도여성기능경진대회> 출전자 선발을 겸한 것으로서, 기능경진대회 참가 자격은 안양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공장기능인은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참가종목은 목각, 죽제품완구, 칠기, 돛자리, 자수용수공예품, 등 새로 개발된 부녀자 부업품목으로서 시간은 90분간이었다.(안양상의보, 80.12.1 참조) 현재는 <안양시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 변경되었다. ▶ 계성숙(여성단체협의회) 제공

安養은 밝다



◇영애의 무릎을 차지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전여국 탁구선수권대회 우승

안양여고 탁구팀 창단 3년만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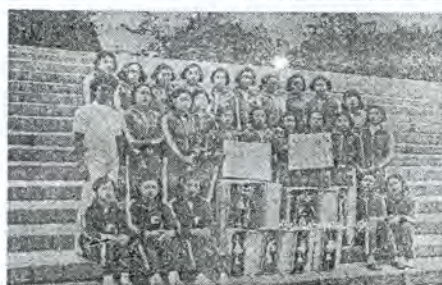
근영女商·三聖國校우승

全國學生수영대회시

[illegible]

한국女子수영의별 최연숙

1m67:올림픽출전이 간절한꿈

[illegible]

◇수영인생을 파시던 큰필의종·상교 수영선수들

1975.9.1, 1976.8.15 **한양상의보 4면에 실린 기사 ▶ 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안양여고 탁구부는 1974년부터 1990년 8월까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단체 우승
 7회, 단체 2위 4회, 단체 3위 19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근엄여상의 수경부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번이나 단체 우승을 함으로써 수영
 의 명문고로 발판을 굳혔다. (安養市誌 참조)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지금은 봉사 중! 안양시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생비누 공장에는 매일 2~3명의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2000.).
▶ 안양시 여성과 제공



매주 토요일 2시~5시까지 평촌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알뜰 벼룩시장. 이곳에서는 중고물품을 기증, 교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2001.). ▶ 안양시 여성과 제공



매년 4월에 열리는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꽃꽂이 부문(2000.).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제공



매년 4월에 열리는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서예 부문(2000.).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제공



<직업탐색 및 소자본 창업교실>/취업과 창업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여성 실업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안양시 여성과 제공



안양시에서 안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수료식 ▶ 안양시 여성과 제공



우리들 인간의 혼에
가장 순수한 소금을
이 지상에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다

- M 마테를링크 -

차 례

- 발 간 사 · 3
- 축 사 · 5
- 격 려 사 · 7
- 사진으로 보는 안양여성의 활동사 · 9
- 일러두기 · 24

제 1 부 안양여성사

1. 안양 역사 속의 여성 · 27

- 해경궁 홍씨
- 풍양조씨 열녀문
- 여권운동의 선구자 나혜석
- 안양김씨의 시조 김미성
- 경기여성상을 수상한 여성
- 그리고 또...
- 조선의 효녀와 열녀
- 순교자 이성례
- 안양유치원을 태동시킨 최말지나
- 여성근로자
- 안양시민상을 수상한 여성

2. 안양의 여성인구 변화 · 33

- 조선초기부터 2001년까지

3. 안양지역 여성단체 계보 · 36

- 대한부인회
- 1970년대의 여성단체
- 1960년대의 여성단체
- 1980년대부터

4. 여성을 위한 행정 · 41

- 여성행정 변천사
- 안양시 여성정책 추진현황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 249
-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251
-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 252
- 「안양여성단체사」 편찬위원 · 253
- 「안양여성단체사」 편찬 추진 경과 · 254

제 2부 안양의 여성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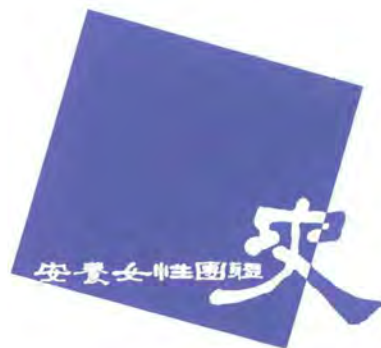
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 57

2. 각 산하단체 약사 및 현황 · 73

- | | |
|--------------------|-----------------------|
| •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 •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
| • 전국주부교실 안양시지회 |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안양시지회 |
| • 대한적십자 안양봉사회 | •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 |
| •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 | • 전물군경미망인회안양시지회 |
| • 안양JC부인회 | •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부 안양지역연맹 |
| • 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 안양시지부 | • 안양YWCA |
| • 여성의용소방대 | • 안양여성자원봉사회 |
| • 안양여성서예가협회 | • 생활개선회 안양시지회 |
| •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 • 주부민속단 |
| • 안양시여성자전거회 | • 안양주부예술단 |

3. 기타단체 · 235

- | | |
|---------------|-------------|
| • 화요문학동인회 | • 보림장학회 |
| • 안양우리춤보존회 | • 이문회 |
| • 안양시재향군인 여성회 | • 평촌부녀연합회 |
| • 안양시명예시민과장회 | • 안양여성의 전화 |
| • 안양여성문학회 | • 여성지방정책연구회 |



알려 두기

- 이 책은 안양의 여성단체들의 설립배경과 활동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정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기타단체 등은 자료 수집의 분량만큼만 게재하였다.
- 이 책의 화보를 제외한 사진은 대부분 각 단체 회원들로부터 수집하였으므로 소장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진의 촬영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 이 책의 인물에 대한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다.

제 1 부

안양여성사

1. 안양 역사 속의 여성
2. 안양 여성인구 변화
3. 안양지역 여성단체의 계보
4. 여성을 위한 행정



“우리 조선여자도 인제는 그만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 아니요?
 미국여자는 이성(理性)과 철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불국(佛國) 여자는 과학과 예술로 여자다운 여자요,
 독일 여자는 용기와 노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서야 겨우 여자다운 여자의 제일보를 밟는다하면 이 너무 늦지 않소?”

- 나혜석(1917. 4 학자광(學之光) 12권) -

1. 안양 역사 속의 여성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안양여성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는 없다. 때문에 사료·전설 등을 통해 앞서 간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안양 역사 속, 여성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하나로 석수2동의 「만안교(萬安橋)」를 들 수 있다. 만안교는 길이가 15장, 폭은 4장, 높이는 3장에 갑문(閘門, 다리구멍을 뜻함) 7개(사적비에는 5개로 기록)의 홍예석교(虹霓石橋)이다. 이 다리의 축조는 조선 22대 임금으로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명에 의해 가설되었다.

「만안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함께 건너면서부터인데, 「만안교」가 가설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무로 임시 가설하여 행차를 하였다.

혜경궁 홍씨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로 영조 11년(1735)에 탄생하여 10세(1744)에 장헌(사도)세자빈으로 간택되어 2남 2녀를 낳았다. 시아버지인 영조와 남편인 장헌(사도)세자의 괴벽 틈에서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던 그는 영조 38년(1762, 28세), 당쟁의 소용돌이로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한중록』에 그가 썼듯이 「눈물이 말라 슬프면 눈이 아플지경」으로 처절했던 삶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큰아들은 요절하였음)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1776년) 지극한 효도를 받았다.

정조는 1795년 윤 2월 13일, 혜경궁 홍씨의 주갑년(사도세자의 주갑연이기도 하였음)을 맞이하자 사도세자의 원침이 있는 수원에서 회갑연을 거행키 위해 혜경궁을 모시고 원행길에 올랐다. 새로 개설된 시흥로를 통한 첫번째 원행이었다.

1795년 음력 윤 2월 9일,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왕궁을 출발하여 「승례문」과 「노량 주교(舟橋)」를 거쳐 「용양봉저

정」에서 잠시 쉬 후 시흥행궁에서 경숙(經宿)하고 다음날 「만안교」를 처음으로 건넜는데, 이후부터 「만안교」란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조는 「만안교」를 지난 후 「안양주필소(安養行宮)」에 이르자 혜경궁의 가마를 잠시 쉬게 하고 미음(米飮)과 다반(茶盤)을 드리고, 「사근행궁」(현 의왕시 고천동사무소 자리)을 거쳐 「화성행궁」(華城行宮, 현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및 남창동의 옛 경기도립 병원, 수원경찰서, 신평초등학교 일대)에서 경숙(經宿)하고 11일에 공자 사당을 배알, 새로 인출한 사서삼경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화성행궁」 내 「우화관(于華館)」에서는 화성, 광주, 시흥, 과천 등 4읍 유생들에게, 「낙남헌(洛南軒, 현재 수원 신평초등학교 교정에 소재함)」에서는 4읍 무사들에게 과거를 시행하였다. 12일에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현릉원」을 전배하고 「서장대(西將臺)」에 올라 성조(성상조련)와 야조(야간조련)를 관람하고 13일 진시(오전 8~9시)에 「화성행궁」 내 봉수당에서 회갑연을 거행하였다. 진찬(進饌)에 참여한 내빈이 13명, 외빈이 69명이었으며, 노인은 384명이었다. 회갑연이 끝난 후 14일에 정조는 친히 「낙남헌」에 임어하며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 준 후 영의정 홍낙성 등 15인과 화성(수원) 노인 이석조 등 384인을 위한 양노연을 베풀었다. 15일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환궁길에 올라 「사근행궁」에서 주정하여 광주부윤 서미수와 시흥현령 홍경후, 과천현감 김이유 등과 소견하고 「만안교」를 거쳐 「만안교」 앞길에서 잠시 쉬었다가 시흥행궁에 당도하여 경숙하고 16일에 환궁하였다.▶(故)이승연 著 「만양시 지명유래집」에서 발췌

2. 조선의 효녀와 열녀

◆ 성조 대에 과천현(서초구 서초동, 안양시 관양동, 호계동, 군포시 산본동, 부곡동, 당정동)의 양녀(良女) 봉금(奉金)은 그 지아버가 병이 있는데,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병

을 낮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예조의 보고로 정문(旌門)에 복호(復戶)되었다.

◆ 임진왜란 당시에는 유학(幼學) 김성(金惺)의 처 나씨(羅氏)가 왜적들이 꺾박하여 무기로 위협하자 큰소리로 꾸짖으면서 시종 굳게 지키다가 적에게 참살된 일이 있었다.

◆ 숙종대 효자(孝子) 유찬의 딸 유씨는 갈현(葛峴)에 살았는데, 밤에 집에 불이 나자 미처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왔다. 그러나 온몸에 화상을 입어 사흘만에 죽게 되었으니, 이에 문여(門閭)에 정표(旌表)되었다.

◆ 순조대 홍유룡(洪有龍)의 처 전씨(全氏)는 열녀로써 문여(門閭)에 정표(旌表)된 일이 있다.

▶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10책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 발췌

◆ 류영석(柳泳錫)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는 조선 말기의 열녀이다. 남편 류영석(본관/전주)이 죽자 절개를 지켜 정여(旌閭)에 명해졌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간촌에 있다. 묘 앞에 표석(表石)이 있다.

▶ 안양시 발행 「安養市誌」에서 발췌

3 풍양조씨 열녀문(豐壤趙氏 烈女門)

풍양조씨(豐壤趙氏)는 조선 후기의 열녀로 목사(牧使)시만(時萬)의 딸이다. 지아비 이의준(李義駿, 1737~1798)이 정조 22년(1798)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12월 28일 황해도 감영에 불이 나자 밀명부와 교유서를 꺼내고자 화염을 무릎쓰고 감영으로 들어갔으나 꺼내 오지 못하고 얼굴과 손발에 크게 화상을 입고 순직했다(『정조실록』 50, 22년 경인조). 그러자 그녀는 의연하게 장례를 치른 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7일간 단식했다. 이어 목욕 재계 후 자리에 누워 운명하자 이를 조정에서 알고 조선 정조 23년(1799)에 열녀로 명하였다(『정조실록』 51, 23년 갑신조).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열녀문은

「만수원가든」 남서편 큰 느티나무가 서 있는 아래에 있었으나 30여년 전 노후하여 헐렸다. 이후 열녀 현판과 건물에 쓰였던 일부 목재를 7세손 이인표(李仁杓)씨가 보존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오촌마을에 사는 고춘석씨 댁에 남아있다.

열녀문이 있던 자리에는 큰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이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풍양조씨 열녀문에 관련하여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의준의 처인 풍양조씨는 남편이 타고 다니던 흰말이 이의준의 신발 한 짝을 물고 집 앞에서 울고 서 있는 꿈을 꾸고 남편에게 불길한 일이 있음을 예언하였고, 소식을 들은 후에는 흰 모시천에 침을 뱉어 남편을 따라 죽음을 재촉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에 후손들이 묘를 이장하려고 봉분을 뚫는데 2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모두 시신이 깨끗하여 나라에 대한 충절과 남편에 대한 정절의 높은 뜻을 후손에게 보여주는 듯 했다고 한다.

풍양조씨 열녀문 현판은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203×32cm의 장방형 판으로 외곽에 사각형의 목재를 둘러 견고하게 하였다. 상부 각 재에는 좌우 두 곳에 걸쇠를 끼워 결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마름모형으로 홈을 깊게 파서 건물의 도리나 창방과 같은 부재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후대에 못을 사용하여 보수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열녀문 현판의 규모는 219×46cm이며, 나무판에 명문을 음각하였는데, 자경은 8.5cm이다.

현판에는 붉은 칠을 하고 “烈女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李義駿妻貞夫人豐壤趙氏之門”이라고 2열 좌서로 음각되어 있다. 끝부분에 “上之二十三年己未二月日命旌”이라고 음각되어 있어 임금이 직접 하명하여 열녀문이 세워지고 이를 기념하여 현판을 만들어 걸었음을 알 수 있다.

현판 이외에도 고춘석씨 댁에는 열녀문에 사용되었던 붉은 칠을 한 목주가 2주(柱) 남아있다.

▶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10책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 발췌



① 豐壤趙氏
烈女門 현판
② 豐壤趙氏
烈女門
현판과 목주

4 순교자 이성례

본관은 경주(慶州)로 성인(聖人) 최경환(프란치스코)의 아내이며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어머니. 세례명은 마리아. 「日省錄」에는 성례(性禮)로 표기되어 있다.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태어나 18세 때 결혼하였고, 서울, 강원도 금성, 경기도 부평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담배촌에 정착, 남편을 도와 교우촌(敎友村)을 이루었다. 현종 5년(1839)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나자 그해 7월 31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성례(마리아)는 포장의 말대로 '유명한 수리산 최회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여자 죄수에게 적용되는 형벌 이상으로, 300도 이상의 곤장을 맞아 팔 다리의 뼈가 으스러졌으나 인내로써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옥사한 후 자기마저 죽으면 고아가 될 어린자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심약해져서 배교한다고 말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들과는 달리 석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남 양업(토마스)을 국법을 어기고 외국으로 유학 보낸 사실이 드러나 형조로 이송되었다. 거기서 함께 수감된 정정혜(엘리사벳), 현경련(베네딕타) 등 교우들의 간곡한 권유로 배교의 말을 한 잘못을 통회하고 형관에게 배교를 취소해 사정없이 매를 맞았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옥신의 고통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지라도 젖이 떨어져 젖먹이 막내 스테파노(3세)가 옥중에서 굶어 죽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느꼈다.

둘째아들 의정(야고보, 12세)은 선정(안드레아), 우정(바실리오), 신정(텔렌시포르) 등 동생을 데리고 문전걸식하며 어머니에게 사식을 차입하는 효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성례는 그에게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오지 말라. 너희들을 보면 내 마음이 다시 약해져 천주를 배반할까 두렵구나. 형님이 신품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동생들과 함께 떨어지지 말고 한곳에서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현종 6년(1840) 1월 31일, 당고개에서 39세의 나이로 6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시신은 불행히 거두지 못했다.

▶「安養市誌」, 「천주교장내동교회사」에서 발췌

5 여권운동의 선구자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여권운동의 선구자인 나혜석이 말년을 「안양 기독교보육원」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 291번지에서 출생, 수원 「삼일여학교」,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진학, 한국인으로는 4번째, 여자로서는 최초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오빠 나경석과 약혼자 최승구를 통한 사상적 교류로 인해 나혜석은 사회적이며 민족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특히 일본인의 식민지인 조선의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렬하게 인식, 1915년 4월 김정화 등과 함께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는 잡지 『여자계(女子界)』를 간행하는 동시에 기금 모집에 힘 쓰고, 조선의 근대화 문제, 제1차 세계대전의 문제, 여성 해방론, 민족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17년 약혼자 최승구가 폐병으로 죽자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1918년 3월 「도쿄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나혜석은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자택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단체인 서화협회에 참여하여 서양화단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이듬해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김마리아, 황애시덕, 박인덕, 신준려 등과 비밀회합을 통해 거족적 독립운동에 따른 지식인 여성들의 역할과 여학생의 참가 계획을 논의했으며, 자금 모집을 위하여 해주·평양 등 황해



나혜석과 김우영과의 결혼, 정동예배당에서 올린 이 결혼식은 동아일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羅蕙錫展

1971. 6. 15 ~ 22 아문미술관

주최: 韓國女性史學會, 韓國美術院

「나혜석전(羅蕙錫展)」 전시회 포스터

도와 평안도 지역을 돌았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쫓기는 생활이 쉽지 않았던 터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8월 4일, 일제 군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일제의 배려와 유학시절 만났던 변호사 김우영의 도움으로 방면된 그녀는 그 인연으로 1920년, 상처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던 김우영과 결혼한다.

그후 나혜석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 문예지 『폐허(廢墟)』의 창간동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소설가로도 창조적 역량을 넓혀갔다.

부부의 금실도 좋아 딸 하나 아들 셋을 낳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행복감을 만끽하던 나혜석은, 남편의 임기가 끝난 1927년, 함께 유럽여행을 떠난다. 16개월에 걸친 유럽 여행은 서양화가 나혜석에게 또 다른 미술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파리의 야수파계 미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예술성에 눈을 떴다. 유럽 여행을 통해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섭렵하면서 국내 어느 화가도 접하지 못한 감동을 맛보고 이를 재창조해 낸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자유로운 연애와 개방적인 관계를 목격하고 이상적인 삶과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먼저 귀국하고, 1년 정도 프랑스 파리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중추원 참의이자 언론사 사장이었던 최린과 연애를 하게 되고, 그 염문으로 인해 귀국 후 이혼을 당하고 인기 또한 쇠락하고 만다.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표현하던 나혜석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불륜이라는 스캔들을 일으킴으로써 기나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잡지 『삼천리』에 「이혼고백서」를 게재하여 부조리한 가부장적 가치에 대하여 저항했지만 이같은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그녀를 비난하게 만들었다.

온갖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후로 남은 100여점의 그림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독하리만큼 냉혹했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녀에게 갈채를 보냈던 평단과 대중 모두가 철저히 외면을 한 것이다.

이혼 후,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당한 채, 좌절과 고독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결국 사회의 이목을 피해 본의 아닌 도피생활을 했다. 41세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혜석은 수석사와 마곡사 등을 전전하며 정처없는 유랑자가 되어 떠돌았는데, 그 시절(1945년~47년), 안양의 경성보육원(기독교보육원) 농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떠돌던 그녀는 1948년 어느 날 서울 용산에 위치한 시립병원 자제원(慈濟院)의 무연고자 병동에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그녀는 소지품 하나 없이 병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①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에서 발췌

6 안양 유치원을 태동시킨 최말지나

1956년 5월 4일 「안양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은 안양 최초의 유치원을 개원하여 안양지역 유아교육사(幼兒教育史)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구천우(요셉) 신부는 유치원 설립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안양에 부임한 그해(1954년) 가을, 최말지나 자매가 나에게 한가지 제안을 해 왔다. 안양읍 내에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으므로 성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람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본당에 유치원을 설립할 재정이 없으니 말지나가 알아서 전교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했다. 사실 번듯한 성당도 없는 본당 형편으로는 유치원은 사치가 아닌가 싶어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공소방문을 마치고 본당에 돌아오니 정말 최말지나 자매가 성당 마당에 5~60명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게 아닌가, 알고 보니 유치원 흥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야 만류할 수도 없는 일이라, 부랴부랴 미끄럼틀 한 대를 성당에 들여놓고 교실은 성당 안을 가운데에 회장을 치고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안양유치원」은 인가도 없이 시작되었다.

1970년 3월 29일, 최명준(베드로)이 전자오르간 구입비를 봉헌, 그 돈으로 안양지역 전체에 최초로 오르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전자 오르간을 연주한 사람은 「안양유치원」 제1회 졸업생 최안나이다. 최안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현재(1989년)까지 25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 「천주교장내동교회사」에서 발췌

7 안양김씨(金氏)의 시조 김미성

안양은 과천현(果川縣)의 하서면(下西面)과 상서면(上西面)에 속했다가, 1914년 3월부터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으

로 불리우다가 1941년에 안양면(安養面)으로 개칭된 후, 1949년에 안양읍(安養邑)으로, 이어 1973년에 시제 실시로 안양시(安養市)로 승격된 신흥도시인 관개로 안양을 본관으로 한 성씨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본관이란 본래 현(縣)이상의 고을 이름이나 그 고을의 별호(別號)를 따서 본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안양에 고아원(보육원)이 생기고, 안양이 독립행정구획으로 시가 되자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고 있는 고아 출신 남녀에게 성과 본을 창설해 줌으로써 안양을 본관으로 하는 새로운 성씨가 창출된 것이다.

안양시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허가(1977.1.13)에 의하여 김미성(金美星/여, 추정생년월일:1963.10.21)의 성을 김(金)으로 창설하고 같은 해 3월 14일 안양시장 조서에 의하여 안양시 비산동 136번지(평화보육원)에 일가 창립 편제함으로써 안양 김씨가 창설된 것이다. 그런데 최초의 안양 성씨인 김미성은 같은해 7월 21일 미주 메릴랜드주에 사는 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 안양시 발행 「安養市誌」에서 발췌

8 여성근로자

안양의 여성근로자들의 기록을 모아 수록한다.

「제일방직안양공장」은 시대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이 회사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1946년 12월 7일에 창립되었다. 1949년 공장평수는 10,810평에 종업원은 남자가 60명, 여자가 27명이었다. 1950년대 불이나자 「동양방직」이 들어섰고, 이어 「태평방직」, 「대농방직」을 거쳐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신흥아파트)로 변모되었다.

「조선직직」은 시흥군 동면 안양리 191(현 안양시 석수1동, 석수주공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회사이다. 본래의 공장은 1923년 서울 동대문 밖 송인동에 공장을 설치하고 견직물 제조를 개시하다가 1939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모두 소실되어 휴면상태에 있다가, 이해 10월에 동면 안양리 191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 1949년 이 회사의 현황을 보면 종업원수가 210명(남자 40, 여자 170)이다.

「조선직물」에는 전국 각지에서 취업을 부탁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는데, 그 중 1938년 봄에는 전북 사회과 알선으로 임실군의 남녀 17명이, 1939년에는 군산의 여공 30명이 「조선직물」에 취직되었다. 1949년 「조선직물」 현황을 보면 종업원은 남자가 144명, 여자가 154명으로 모두 289명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여성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해 왔고,

안양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안양시 발행 「安養市誌」에서 발췌

(JOCF의 활동)

1958년 11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9명의 여자회원들이 투사선서를 한 직후 JOCF(가톨릭여자청년회)가 발족하여 금성방직 근로자 손홍순(막달레나)과 고려고무 석면 근로자 원홍자(수산나)가 지도투사로 활동하였다. 안양은 대소(大小)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톨릭 노동운동이 필요한 곳이었다.

또한 이 여자투사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대받는 넝마주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근로자회관)

5·16군사정부의 경제시책에 힘입어 안양에는 섬유와 제지 등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공장들의 단순노동력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외지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안양으로 전입해 왔다. 이른바 이향(離鄉)근로자들이었다. 여성뿐 아니라 많은 수의 남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안양으로 몰려 안양은 인구 이동이 심하였다.

정원진(루가) 신부는 몇푼 안되는 저임금을 받아 객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기숙사 시설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교회가 봉사 측면에서 담당하도록 윤공회(빅토리오) 주교에게 건의하여, 윤 주교는 신설 교구로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선교(産業宣敎)의 일환으로 근로자회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 이 사업을 통칭(AFI)로 불리우는 국제가톨릭 형제 협의회(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에 맡기는 한편 근로자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69년 9월 10일 안양성당 앞에 위치한 1천평의 대지에 오지리 가톨릭부인회와 독일 미제레오르(Missereor)등의 원조금 12만 3천 달러(한화 약 3천 3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연건평 430평)의 현대식 여성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였다.

▶ 「천주교장내동교회사」에서 발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장(工場) 새마을부녀회 창립)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진산업공장 새마을부녀회가 창립되었다. 1978년 6월 10일, 오후 3시30분 동사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부녀회원 270명이 참석하여 가정과 직장의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다짐했다.

이날, 박인철사장은 2백 70여명 모두에게 서진마을금고 통

장(1인 1구좌)을 자신의 급료에서 공제 지급하여 낭비를 없애고 근검절약하여 저축하는 국민으로서의 인식을 고취하며 유비무환의 생활 기틀을 마련하는 교훈을 주었고 부녀회에서는 50만원 상당의 대형세탁기를 노조에 선물 결정하고 밝은 작업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냉차 손수레를 만들어 냉차와 구급약을 준비 부녀회원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택해 작업장에 직접 배달 직장가 가정의 한 「파트너」로서의 무한한 공통목표를 향해 줄달음치기로 했다. ▶ 안양상공회의소 발행 「상외보」에서 발췌

9 경기여성상을 수상한 안양여성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5개 부문(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의 경기여성상을 시상한다.

경기여성상을 수상한 안양여성은 아래와 같다.

- 제5회(1990), 예능부문/김옥성, 봉사부문/이춘홍,
- 제7회(1992) 봉사부문/정어진

10 안양시민상을 수상한 여성

안양시민의 날 축제에서는 교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및 환경, 시민봉사, 체육, 문예 등 안양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6개 분야의 안양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다음은 안양시민상 여성 수상자이다.

- 제2회(1987.10.2), 사회복지부문/정어진
- 제4회(1989.10.5), 사회복지부문/이청형
- 제5회(1990. 9.27), 효행봉사부문/최길순
- 제13회(1998.9.26), 효행·선행부문/이춘자, 문예진흥/김영애
- 제14회(1999.10.2), 교육·진흥부문/이영실
- 제15회(2000.10.7), 교육·진흥부문/이정향, 문예진흥/안희진
- 제16회(2001.10.13), 시민 봉사부문/김선옥,

11 그리고 또...

◆ 3·1운동에 참가, 지도적 활동을 하였고, 1947년부터 독립축세국부인회장, 대한부인회장을 역임, 1950년부터 2,4,5,6,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故)박순천여사는 1972

년 2월 12일부터 1983년 2월 5일까지 안양「근명학원(근명여자중학교,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1971년 시흥군에서부터 여성업무를 담당해왔던 정어진은 안양시 여성공무원 중 첫번째 제장(부녀아동계)이 되었고 1996년 「경기도 여성회관」관장, 1997년 경기도 여성정책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안양시 여성단체 발전의 기초를 세웠다.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10여 년간 역임하였고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13대 국회의원(전국구, 보건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신영순은 안양시 여성단체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현재 안양 여성정치인으로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다.

◆ 1976년 시청 부녀아동계 근무를 시작했던 김명자는 1987년 1월 26일 안양시 여성공무원 중 첫번째 과장(부녀청소년과)이 되었으며, 2002년 안양시 최초 여성국장(사회복지소장)이 되었다.

◆ 또한 오빠 집인 안양 「동화의원」에서 기차통학을 하던 이희호여사(김대중대통령 영부인)의 이화여전 재학시절을 즐겁게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2. 안양의 여성인구 변화

〈조선초기부터 2001년까지〉

안양지방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평촌지구에서 지석묘와 주거지 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동기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악산·수리산·청계산·삼성산·모락산 등의 수려한 산세와 하천, 그리고 그 사이에 넓게 전개된 비옥한 농경지는 안양이 사람 살기에는 더 없는 적지였을 것이다. 안양지역의 인구에 대한 문헌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이다. 즉, 단종 2년(1454)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의하면 호수는 244호에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때의 인구는 남정(男丁)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6세 미만, 60세 이상 인구는 제외되었다. 당시 과천현의 영역이 안양시(박달동·석수동 제외), 과천시, 군포시(구 반월면 제외), 서초구(내곡동·염곡동 제외), 동작구(상도동·신대방동 제외), 관악구(봉천동·신림동 제외) 등의 제지역인 관계로 안양의 인구는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조사에 있어 모든 인구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 초에 이르러서이다. 숙종 25년(1699) 과천현에서 발간한 『과천현신수읍지』 호액(戶額)조에 의하면 호수는 1천 9백 5호에, 인구는 8천 4백 46명인데, 그중 여성은 4천 2백 5명에 남성은 4천 2백 41명이었다.

안양에 대한 인구가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인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동왕 35년(1759)에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속성(續成)을 목적으로 전국의 각 관읍(官邑)에서 편집하여 올린 읍지를 종합 편집하여 발간한 『여지도서(輿地圖書)』는 각 읍(邑)의 인구상황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안양은 과천현의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의 2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두 면에 각기 '서(西)'자가 들어간 것은 과천현의 관아가 있는 과천 관문리(현 과천시 관문동 107-5 온온사)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상서면은 대체로 오늘날에 안양시 동안구 지

역이며, 하서면은 만안구 지역(석수동·박달동 제외)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은 1천 6백 27명에, 남성은 8백 68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가 65대 35로 거의 2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기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시대의 인구조사는 오늘날같이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신고로 기록을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세(租稅), 병역(兵役), 부역(賦役) 등을 기피하기 위하여 허위신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세공납입(稅貢納入)의 사취(私取)에 따르는 호적의 위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인구조사에는 실제 인구 수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기록되게 마련이었다.

『여지도서』보다 30년 후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구성비는 많이 좁아졌음을 알 수가 있다. 『호구총수』의 기록에서 특기할 사항은 『여지도서』보다 여성은 2백 27명이 감소한 반면, 남성은 오히려 1백 77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1910년에 조선이 패망하고 이어 일제가 강점한 이후의 안양의 인구 현황은 알 수가 없고, 시흥군의 총 호수와 인구수에 관한 자료만 남아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1945년에 광복이 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된 이듬해(1949) 시흥군에서 발간한 『금천지(衿川誌)』에 보면 〈표-2〉 여성인구 수는 1만 1백 91명에 남성은 9천 8백 35명으로 구성비가 51대 49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많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말까지 지속되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구성비가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당시 안양에 대단위 공장인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전입 때문으로 해석된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가 50대 5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인구수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선호사상

과 의술의 발달로 여아를 임신하면 초기에 낙태하는 사회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성의 인구수는 영조대에 1천 6백 27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뒤, 1백 90년이 경과한 1949년에는 6·26배가 증가한 1만 1백 91명에 이르렀다. 인구의 증가는 계속되어 1962년에는 2만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67년에 3만명, 1970년에 4만명, 이듬해인 1971년에 5만명, 1976년에 7만명, 1977년에 8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2년부터는 안양시의 인구 수가 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인구 수도 2십 6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인구 추세는 평촌지구

의 도시건설로 급격한 인구의 유입이 시작된 결과라고 하겠다. 주목할 사항은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여성의 인구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는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6년에는 2십 9만 8천명이던 것이 4년 뒤인 2000년에는 무려 9천명이 감소한 2십 8만 9천명이었다가 이듬해인 2001년에는 다시 5천명이 증가한 2십 9만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렇듯 인구의 등락현상은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당분간 지속되어 2십 9만 명 선에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명)

조선시대

<표-1>

시 대	면 명	총인구	여 성	남 성	구성비 (여:남)	출 전
영조 35 (1759)	상 서 면	980	680	300	69:31	여지도서
	하 서 면	1,515	947	568	63:37	
	합 계	2,495	1,627	868	65:35	
정조 13 (1789)	상 서 면	1,053	551	502	52:48	호구총서
	하 서 면	1,412	869	543	62:38	
	합 계	2,460	1,420	1,045	58:42	

(단위:명)

안양읍

<표-2>

연 도	총인구	여 성	남 성	구성비 (여:남)	출 전
1949	20,026명	10,191	9,835	51:49	금 천 지
1957	22,181	11,658	10,523	53:47	시흥군통계연보
1958	22,973	11,879	11,094	52:48	시흥군통계연보
1959	26,493	14,045	12,448	53:47	시흥군통계연보
1960	31,673	16,444	15,229	52:48	시흥군통계연보
1961	30,311	16,047	14,264	53:47	시흥군통계연보
1962	38,750	20,047	18,703	52:48	시흥군통계연보
1963	40,813	20,972	19,841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64	45,659	23,591	22,068	52:48	시흥군통계연보
1965	50,697	26,365	24,332	52:48	시흥군통계연보
1966	54,337	27,806	26,531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67	59,871	30,632	28,939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68	67,372	34,542	32,830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69	76,277	39,104	37,173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70	91,894	47,086	44,808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71	101,749	52,267	49,482	51:49	시흥군통계연보
1972	104,515	53,674	50,841	51:49	시흥군통계연보

안양시

<표-3>

연 도	총인구	여 성	남 성	구성비 (여:남)	출 전
1973	111,075	57,837	53,238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4	121,013	62,980	58,123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5	134,862	69,653	65,209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6	146,134	75,769	70,365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7	162,926	85,123	77,803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8	187,887	96,965	90,922	52:48	안양시통계연보
1979	216,190	110,078	106,112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0	253,541	128,667	124,874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1	258,480	132,511	125,969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2	274,088	139,774	134,314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3	291,919	147,204	144,715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84	322,572	163,197	159,375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5	361,530	182,636	178,834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6	392,808	198,587	194,221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7	413,656	208,976	204,680	51:49	안양시통계연보
1988	433,088	218,066	215,022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89	468,101	236,391	231,710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0	480,668	241,842	238,826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1	488,581	243,353	245,228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2	536,151	267,439	268,712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3	585,147	292,209	292,938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4	594,155	296,303	297,852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5	592,683	295,452	297,231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6	598,841	298,472	300,369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7	591,210	294,736	296,474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8	586,562	292,514	294,048	50:50	안양시통계연보
1999	582,584	290,545	292,039	50:50	안양시통계연보
2000	581,166	289,334	291,832	50:50	안양시통계연보
2001	591,670	294,299	297,371	49.7:50.3	안양시통계연보

<(故)이승언>

60년대 대농방직,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다.

안양 최초로 1932년 안양1동에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설립, 태평방직, 대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대농방직이 청주로 이전하자 진흥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여성근로자들은 남녀 구성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안양지역 여성단체 계보

『시흥군지』(시흥군발행)에 <1945년 10월 27일/대한적십자 부녀봉사회 시흥군지부 창립>이라고 되어 있으나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후 1949년 초 안양에서 「대한부인회」 경기도 본부가 결성되고 (故)송신실여사에 의해 시흥군 일대 1읍 7개면에 시흥군지부 읍면분회가 조직된다(『한국여성운동약사』/1986.1.5, 한국부인회 총본부 발행).

이렇게 시작된 여성단체의 활동은 그 변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계보를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각 단체 회원들과 김혜숙(시흥군청 내무과 사회계에서 여성업무 담당)이 제공한 사진, 안양상공회의소 상의보, 정어진 해관보육원장과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의 도움말, 시흥시청 향토사료실의 (故)이승언이 제공한 사진과 신문, 보건사회부 발행 『여성행정 40년사』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1 대한부인회

「근우회」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던 박순천, 황신덕, 유각경, 유영준 등 30여명이 광복 이튿날 모여 여성단체 조직을 의논하고 8월 17일 YMCA회관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하였는데 활동 목표는 광복된 조국을 여성의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가고자 하는 순수한 애국애족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된 이들이 순수 여성운동을 방해하면서 공산주의적 정치 성향을 내세우자 1945년 12월 8일 황신덕, 박순천, 박봉애 등 민족진영계 여성들은 「건국부녀동맹」과 결별하기로 하고 동아일보에 탈퇴 성명을 발표하였다.

1946년 1월 3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황신덕, 황애시덕, 박순천, 박승호, 김활란, 박봉애 등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중앙청까지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하는 데모행진을 하였다. 시위를 끝낸



한국부인회의 수해지역 방문 구호품 전달, 건물 앞 “참고 일하자”가 이색적이다.



시설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도 조직적이고 강렬한 체제를 이루어 신탁통치 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서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전국 순회강연을 벌이고 완전 자주독립을 하루 속히 성취할 것을 주장하면서 좌익단체와 투쟁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 전에 한국애국부인회와 통합하여 「대한부인회」로 새출발하였다.

안양에서는 양정고보 교사 김웅진의 부인 장일선이 제일 먼저 「대한부인회」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국여성운동 약사』(한국부인회 총본부 발행)에 의하면 1949년 초 안양에 「대한부인회」 경기도 본부가 결성되고, (故)송신실여사가 시흥군 일대 1읍 7개면의 부락에 읍면 분회조직에 착수했다.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반공계몽,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의복간소화를 위한 통치마 입기·웃고름 안달기를 주로 했으며 식량 절약을 위한 절미운

동, 폐품 수집, 노름 막기, 축첩 폐지, 여권수호 등의 운동을 주도했다. 밤에는 커다란 집 마당을 빌려서 부녀자들을 모아 놓고 일제에게 당한 서러움과 압박, 분단된 조국의 현실, 나라의 장래에 대해 강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여성단체로는 군 읍면까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었던 단체는 「대한부인회」 밖에는 없었으며 그 조직력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보니까 집권당에서 부인회의 막강한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였으므로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을 받기도 하였다.

6·25 전쟁 중에도 송신실은 회원들을 이끌고 유엔군과 우리 군경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펄감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공산정권에 의해 죽음의 고비를 겪기도 하였다.

전쟁 후에는 군경 위령제, 논산훈련소 장병 위문, 계몽과 봉사, 기부금 기탁 등의 활동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여학생에게 학자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성저축생활 안양읍지회 결성



안양시 여성저축 유공자 표창.
여성저축생활 경기도지부장인 (故) 송신실여사가 시상하고 있다.



안양4동 경로당 노인대학 준공식(성조부인회)



조산사회, 성조부인회, 한국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장들이 안양예고 이사장 최은희와 함께.

2 1960년대의 여성단체

4·19혁명이 확대되던 4월 25일, 대구의 테모 군중은 파출소와 정부의 하수단체로 지목되는 반공청년단사무소와 더불어 대한부인회관을 습격하였다. 이것은 「대한부인회」의 친여적인 자세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6이후 군사정부는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시키고 「재건부녀회」를 조직하였다. 「재건부녀회」는 승공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과 용공 중립사상 배격을 실친 강령으로 하는 재건국민운동의 행동 주체로서 「재건청년회」와 더불어 이원적 체제로 조직된 것이다. 「재건부녀회」는 16세로부터 45세의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부락단위로 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 경기도 시흥군지부장 및 도지부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故)송신실여사는 「대한부인회」가 해체되자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 자문위원,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후에 「여성저축생활지회」 경기도지부장으로도 활동하였다.

1963년에는 앞서 해산된 여성단체의 재등록이 시작되었던 때로 「대한부인회」는 미풍양속의 부녀도의 구현을 사업목표로 보사부 허가를 얻어 「한국부인회」로 이름을 변경 등록하였고, 다시 안양지역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즈음 「전물군경미망인회」도 자활력 배양을 목표로 원호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1965~1969년의 5년간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된 여성단체는 18개이다(부용회, 한국복지부녀중앙회, 대한불교부인회, 대한여성복지회, 주부클럽연합회, 대한미용사회, 국제존타클럽, 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범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여

성저축생활중앙회, 3·1여성동지회, 새한주부회, 요산요수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재향군인회부녀회, 국제승공연합부인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업도 다양하여져서 여성운동의 고유영역인 불우아동 및 여성을 돕는 사업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민간외교나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는 여성단체가 4개나 신설되었다(부용회, 국제존타클럽, 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범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새로 신설된 18개의 여성단체 중 안양에서 활동했던 단체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부클럽연합회」와 「여성저축생활회」이다.

「주부클럽연합회」는 대표적인 보편성을 띤 여성운동 단체로 1970년, 장선회장에 의하여 시흥군지부가 설립, 시 승격 후 안양시로 이관,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장선 회장은 「대한조산원협회」 안양분회 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 그 시대 상황으로는 드물게도 처녀시절부터 자전거를 탄 여성으로 즐거이 회자되고 있다.

저축생활 배양을 위한 재무부 허가단체인 「여성저축생활회」는 시흥군지부 안양읍지회가 결성되었다가 시 승격 후 1974년 7월 1일에 「여성저축생활 안양시회」로 조직되었다. 「여성저축생활 안양시회」는 알뜰살림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저축 촉진대회를 개최, 저축유공자를 표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성조부인회」는 불우여성선도·윤리인화운동을 목표로 하는 문공부 허가단체인데 성수옥이 안양지역 대표로 활동하였다. 안양지역의 「성조부인회」는 군인 부인들로 구성되어 사회봉사와 문화교육사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1974년 1월 15일 상의보에는 “여성단체인 성조부인회(회



대한조산원 경기 시흥분회 창립기념(1972.6.26)



대한조산원협회 안양분회

장 성수옥)에서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구두담이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사랑의집」에 일상용품 등 꾸집한 선물을 전달 불우소년을 위로했으며 「한국부인회」 임원 15명도 과천 구세군양로원을 방문, 떡 다과를 만들어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 세모의 정을 두텁게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 이춘홍 초대회장은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떡을 가지고 가면 노인들이 나중에 먹을 욕심에 몰래 숨겼다가 잊어버리는 통에 구석구석에서 썩은 떡이 발견되고, 그래서 고기국을 끓여갔더니 그만 설사를 일으켜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한다.

3 1970년대의 여성단체

1970년대에 새로 설립된 여성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자수협회, 국제존타부산클럽,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우먼스

클럽, 전국주부교실, 한국여자의사회, 화공회, 한국간호보조원협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수로회, 예지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꽃예술작가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일여성친선협회, 국제총연맹부인회 한국본부, 새여성회, 모두 18개로 문공부에 등록된 단체가 7개로 가장 많다.

문공부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대부분이 여성의 창의력 계발과 국민정서생활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1970년대에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전국주부교실 중앙회」는 정부차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직되어 어느 여성단체보다 지방조직이 강한 단체로 안양지역에서도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3년 8월 15일 「안양상의보」에 의하면 “안양상공회의소는 7월 16일 오후 안양시민관에서 안양주부교실(회장/정순희) 회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안양지역의 모범상점 여론조사



경기도 본청 간부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장미회



안양시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록지회서 보육시설을 방문



안양로타리부인회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평화보육원에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를 실시했다.”고 한다. 또 1974년 10월 15일 「안양상의보」에는 주부교실 합창단 난파음악제 입상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1973년 7월 1일은 안양시 승격이 있었다.

승격 이후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가 안양시로 이관되었고,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 단체들은 새마을부녀회 시연합회(73.8), 한국부인회 안양시지부(74.1), 여성저축생활 안양시지회(74.1), 성조부인회 안양시지부(74.9), 대한조산원협회 안양분회(74.6), 주부클럽연합회 안양시지부(74.8), 주부교실 안양시지부(71.12), 로타리클럽 안양부인회(75.8), 구국여성봉사단 안양시지부(77.3), 적십자 안양부녀봉사회(77.4),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안양분회(77.6), 안양청년회의소 부인회(77.12), 록지회 안양시지회(73.8)이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록지회」는 안양시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되어 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다. 「안양상의보」에는 “록지회서 복지시설 위문”, “안양시 록지회 보육원 방문”, “록지회서 청소원에 선물” 등의 기사가 여러차례 실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통해 남편 직위 따라 부인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정책적으로 해산되었다.

「로타리클럽 안양부인회」는 로타리클럽이 하나일 때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점차로 로타리클럽이 늘어나자 연합체 구성이 어려워져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탈퇴하였다. 「성조부인회 안양시지부」도 활동이 미미하던 중에 회장 성수옥이 이민을 가버리자 해체되고 말았다. 「여성저축생활 안양시지회」, 「대한조산원협회 안양분회」, 「구국여성봉사단 안양시지부」 등도 시대에 밀려 활동을 중지하였다.

또한 「어머니배구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는데, 그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경기 연습이 있을 때는 부녀계 직원 이 모두 나가 선수들의 자녀를 대신 돌보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안양의 대표 여성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후에 이 배구단을 주축으로 「안양적십자회」가 결성되었다.

1980년대부터...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면서 유엔에서 국가차원의 여성문제 전담반 설립을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산하의 「국립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여성복지원」을 통합하여

「국립여성복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1980년 코펜하겐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대표는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기관설립을 공헌한 바 있다. 이것은 여성문제 전반을 점차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여권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반영하려는 일단의 약속이었다. 1983년 국가적 차원의 「한국여성개발원」 발족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최초로 설립된 여성기구이다. 여성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은 그 설립 목적에 나타나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실, 교육연구실, 자원개발실, 정보자료실을 두었다.

안양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많은 전문성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그 많은 단체를 거명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에는 「한국걸스카웃 안양지구 연합회」(1981),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부녀회」(1981), 「안양YWCA」(1986)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설립되었다.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안양에서 시작되었으며, 행정관서의 별다른 도움없이 자립 육성된 단체로 안양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전국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모범운영 단체>로 선발 제2정무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조직력과 활동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태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 설립이 많았던 것이 그 특징이다. 1990년 「여류서예가협회」, 1993년 「생활개선회」, 1995년 「안양여성자전거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주부민속단」, 2000년에는 「주부예술단」이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1996년 설립된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의 어머니 교통 봉사 단체이다.

이밖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여성들의 자아실현,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갈수록 그 활동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4. 여성을 위한 행정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급격한 변천을 해왔으며, 복지 수요의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새로운 역할 증대와 미래 지향적인 자세 확립이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성행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바 사명을 다해 왔으며, 여성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여 왔다. 여기 그동안의 여성 행정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1 여성행정 변천사

1) 개 요

해방 후 여성들을 위한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당시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 법령 제107조 「부녀국설치령」에 의하여 사상 처음으로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의 창설을 보게 되었고 이어 1947년 10월부터는 전국 각도의 지방부녀행정 조직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1947년 11월 11일 도청에서 부녀계 설치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의무국 간호사업계에서 부녀사업을 겸하다가 1948년 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 부녀계를 설치하였고, 1966년 12월 10일, 경기직제 제6조 제1항에 의해 부녀계가 부녀과로 승격됨에 따라 부녀행정이 활발하여졌는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를 담당해 왔던 시흥군에도 1971년, 부녀아동계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시가 발족되면서 복지과에 부녀 아동계를 설치, 74년 5월 15일 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부녀아동계의 분장 사항은 부녀아동복지 행정시책 수립, 각 여성단체 육성 및 운영지도,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가정 의례준칙 실천 추진, 의례업소 지도 감독, 아동복지시설 지도 감독, 청소년 선도 및 성장고아 직장 주기 운동 추진, 청소년 클럽 지도, 부랑아 선도,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 운영, 아동사업 관계 행사, 아동상담소 운영 및 지도감독, 기·미아 상담 조치, 국내 외 입양 및 위탁 보호사업, 불우아동 후원업무 지원, 부녀상담소 운영, 영세부녀자 직업보도, 요보호여성 선도 및 교육, 부녀자 사회정화 운동 추진, 소비절약 실천, 모자보호사업 및 부녀회 운영지도, 부녀사업 각종 행사 등이다.

1986년 12월 31일 사회사업국을 보건사회국으로 변경, 1987년 1월 26일(규칙 제444호)에는 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로 명칭을 개칭하고 업무를 재편성하였으며, 1988년 1월 25일에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로 명칭 변경,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로 분리, 운영하였다. 가정복지과는 ①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②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③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④ 여성지휘향상 및 생활개선 ⑤ 부녀자의 직업보도 ⑥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⑦ 아동복지 증진 ⑧ 노인복지대책 ⑨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⑩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업무 ⑪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87년 여성업무가 계 체제에서 과 체제로 직제 개편되면서 그해 1월 26일 여성공무원으로서 최초 부녀청소년과장이 보직을 받아 여성업무가 활성화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성업무만 담당하는 여성과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여성업무 전담부서 안양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73. 7. 1. 안양시 승격과 동시 복지과에 부녀아동계 설치, 여성업무 수행
- 1974. 5. 15 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 변경(사회과 부녀아동계)
- 1979. 7. 25 안양시에 局制가 실시되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로 변경
- 1986. 12. 31 局 명칭 변경(사회산업국→보건사회국)
- 1987. 1. 26 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 부녀계로 변경
- 1988. 1. 25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로 명칭변경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 1989. 5. 1 만안, 동안 출장소 개소, 사회산업과 내에 여성복지계 설치로 시와 출장소에서 여성업무를 수행하는 체계
(※ 1990~1992 경기도 부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 1992. 10. 1 만안, 동안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가정복지과 신설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 1995. 5. 1 양 구청의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
- 1995. 5. 15 사회복지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여성회관 설치
 - 관리과/서무계,운영계,시설계 • 사업과/교육계,복지후생계,상담계
- 1996. 1. 1 본청 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로 통합(사회계,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 설치)
- 1996. 7. 1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여성정책을 실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성담당과 신설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전환코자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면서 가정복지 업무 및 부녀복지업무는 시로 이관.

시청내

환경복지국에

 - 사회복지과(사회계,생활보호계,의료보장계)
 -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 아동보육계, 청소년계)
 - 여성과(여성정책계, 여성지도계, 여성개발계) 설치

(※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전담하기 위한 여성과가 신설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양시가 최초이다)
- 1997. 8. 1 구청 사회산업과 내에 여성복지계 신설
- 1998. 1. 20 구만안구청 건물을 개보수하여 안양시여성문화 복지회관(사업계, 교육계)으로 개소
- 1998. 9. 1 아동보육계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과로 이관(여성정책, 여성계발, 여성복지, 아동보육)
- 1999. 6. 1 시정과에서 여성과로 자원봉사계 이관(여성정책, 여성복지, 아동보육, 자원봉사)
- 1999. 7. 1 사회복지 사업소 내 안양시 여성문화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만안,동안 여성회관으로 명칭 변경
(※ '99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새마을부녀교실 시흥군협의회

◀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충혼탑 앞에서 정답게(1973.6.6, 당시 시흥군청 내 여성 공무원)

2) 부녀계몽사업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 여성의 능력개발을 향해...〉

해방직후에는 문맹퇴치가 많이 요구되던 시대였으므로 「국문단기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덕과 경노사상, 미풍양속권장을 위해 선행자를 표창, 아름다운 기풍을 진작시켰다.

1962년에서 1968년까지는 경기도로부터 부녀계몽요원이 안양읍사무소에 배치되어 부녀사무를 전담하였는데 부녀계몽요원은 매년 7일간 합숙교육을 받았고 최일선에서 의식주 생활개선사업과 교양교육, 가족계획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사업을 전개하였다.

1968년부터는 「부녀교실」이 시작되었고, 1972년에는 “새마을운동은 부녀교실로부터”라는 구호아래 시·군·읍·면·리·동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부녀교실」협의체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지도 및 요보호여성 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생활개선사업, 저축 등 계몽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시흥군 부녀계,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구락부, 보건소 가족계획 어머니회)이 부녀지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담당자들이 함께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부녀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강습을 통해 계몽 활동을 펼쳤다.

73년 7월, 안양시로 승격 후 복지와 부녀아동계에서 이 사업을 분장하였다.

1974년 8월, 여성 교양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주부시민대

학」을 개교, 하계·동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부녀기능대학」을 개설하여 1백여명의 부녀자들에게 서예반(한문), 외국어반, 양재반의 세 강좌를 개설하여 55명의 수료자를 낸 것을 필두로 하여 1988년에는 서예, 양재, 꽃꽂이, 사물놀이, 외국어 등 5개 과정을, 그리고 1989년에는 전통요리와 고전무용의 두개 과정을 더 늘여서 7개의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제4기인 1990년에는 서예, 외국어, 양재, 한복, 꽃꽂이, 전통요리, 고전무용, 탈춤 등 8개의 과목에 2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제5기인 1991년에는 370명의 부녀자들이 한글과 한문의 서예과목과 영어, 양재, 한복, 꽃꽂이, 전통요리, 고전무용, 탈춤 등 9개의 과목을 등록 수강하였다.

대체적으로 4월 초에 개강하여 9월말까지 6개월간 계속된 「부녀기능대학」은 여성의 의식개혁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여성이 한가지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여성회관으로 흡수, 여성의 자질향상을 통한 여성상의 정립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교육사업은 개개인의 여성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쳐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었는데, 초창기 「부녀상설기능대학」에서 사물놀이나 서예를 공부했던 여성이 현재는 전문인이 되어 여성회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봉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면 단위로 방문, 계몽사업을 벌였다.



부녀회원들을 찾아다니며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3) 생활개선사업

6·25가 끝난 1954년 국민생활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함으로서 국민생활합리화 3대목표로 ① 도의생활 ② 건설부흥 ③ 과학생활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였다. 또 생활개선계몽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였는데 도시에서 강조한 사항은 <1. 시간을 존중하자 2. 물자를 아껴쓰자 3. 혼례식은 경건, 간소히 하자 4. 낫술을 마시지 말자 5.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었다. 농촌에서 강조한 사항은 <1. 음력폐습 타파하고 양력으로 과세하자 2. 내고장 사랑하고 지켜서 진실한 낙원을 건설하자 3. 먹는 우물 근처에서 빨래하지 말자 4. 전폐하자 낫술, 충실하자 직책 5. 명심하자 양담배값 1년에 32억원 6. 얼굴의 화장보다 마음의 무장 7. 시간을 아끼고 약속을 지키자>였다.

60년대부터는 절미저축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식생활 교육차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농번기 탁아소 설치, 운영

하였으며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 단속하였다.

이렇게 계속된 생활개선사업은 소비절약, 환경개선, 환경보호,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운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강습

4) 윤락여성 선도와 부녀상담

6·25 이후 외국군의 주둔이 늘어남에 따라 윤락여성 특히 외국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의 급증이 부녀행정의 큰 과제였다. 교양강좌를 개설 자질향상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였는데, 일요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윤락여성 계몽교육>

【安養】시흥군당국은 군내 윤락여성 1백여명에게 1967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계몽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강사로는 경기도부녀과장, 안양경찰서, 보안계장, 시흥군보건소장, 시흥군공보실장 등이 담당하고 ① 국민도의 ② 여성의 위치 ③ 보건위생 ④ 가족계획 ⑥ 요리법 ⑦ 미용법 ⑧ 국민저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일요신문/1967.5.28)

<자활여성들을 선도>

【安養】1967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시흥군은 관내 자활여성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선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유문식군수와 권용하서장은 여성들에게 예의를 알고 배우는 여성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일요신문/1967.5)

또한 요보호여성(가출, 불량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등)들의 상담을 통한 예방활동과 선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 시, 군에 부녀상담원을 각 1명씩 총 32명을 배치하였다. 1971년

2월 20일의 시흥군 부녀상담소 조례를 보면 <①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보호 ② 요보호여자의 계몽 지도 ③ 요보호여자의 직무 간선 ④가출 불량 등으로 전락의 위험성이 있는 부녀자의 예방적 선도 ⑤ 요보호부녀자의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활여성회의 교육관영

5) 가정주간 행사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56년 5월 8일을 제1회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를 문교부에서 주관하다가 1957년 5월 8일부터 보건사회부 부녀국에 이관되어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4년 어머니 날을 '아버이날'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편 1961년 제3공화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머니 날」 행사에는 모범어머니를 각 시·도 단위로 선출하고 이를 표창하였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0일간씩 가정주간을 설정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도 계몽을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가정주간에 모범어머니는 물론 착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도 선정 표창하였다. 시흥군에서도 군청에서 우량아선발대회를 열었는데 조선일보 67년 5월 7일자 신문에는 <5일 시흥군 우량아선발대회에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우량아

로 뽑혀 장려상을 받았다. 이 쌍둥이 우량아는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809 유복영(29·신민제지회사직원)씨의 생후 6개월 된 근천군과 근하군. 이날 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의사들의 심사를 받으면서 싱글벙글 웃어 진행을 맡아보는 여자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故)이승언(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안양시 승격 이후에도 가정주간 행사는 계속 이어져 77년 5월 15일자 「안양상의보」에 의하면 당시 안양시·시흥군 가정주간 기념식에서는 훌륭한 아버지, 효부, 선행자, 아동복지유공자, 청소년 선도유공자, 모범직업소년, 모범노인, 선행어린이, 튼튼한 어린이를 표창하였다.

현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월 초 가정주간 기념식을 개최하며 모범청소년, 노인, 효부, 효자,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있다.

우량아선발대회 심사와 시상 모습



1960년대 시흥군청에서 있었던 우량아선발대회, 우량아를 안은 어머니가 상장을 받고 있다.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용모와 몸무게를 심사하고 있다.



1977년 튼튼어린이 접수, 심사 모습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튼튼어린이 사전 검진을 실시하였다.

가정주간 기념식



1971년 5월 가정주간 기념식장에서 어머님은혜를 열창하는 모습



가정주간 기념행사 후 수상자들이 함께(1971.5.10)



가정주간 기념식 후 수상자와 함께(1972.5.8)



가정주간 기념행사 후 수상자들이 함께(1976.5.4)

6) 여성단체 활동 지원

60~70년대는 여성의 자발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단체를 조직, 육성하고, 활동을 도왔다. 부녀계가 빌려 사용하던 구 경찰서 2층에서 여성단체가 행사를 갖고 있었는데 상장을 쓰는 작은 일부터 프로그램 개발, 기획, 일거리 제공 등의 행정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관 주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 회장단을 선출하도록 지도하였다.

70~80년대, 여성단체와 함께 벌인 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자 합동결혼식, 합동회갑연, 보육원 후원사업, 3개 보육원 연합운동회(일일 대모 역할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 1985년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 산하단체 육성, 행사 지원 및 공동사업 전개 등을 통해 여성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7) 가족계획 사업

정부는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조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민간조직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설해 요원훈련, 홍보교육 및 기술지도를 전담토록 함은 물론 1964년 4월 1일부터 각 읍,면 단위로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했다. 시흥군에서도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에 단산', '알맞게 낳아서 훌륭히 키우자'라는 구호 아래 가족계획사업을 시작, 73년 7월, 안양시 승격 후에는 안양시보건소에서 분장하였다.



부녀아동계 정어진계장이 주부클럽 창립식 사회를 맡고 있다.

그후 가족계획사업은 더욱 활발해졌고, 안양시는 1977년부터 3년간 가족계획사업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974년은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 계획의 하나로 전국출산력조사를 통한 가족계획 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모자보건법의 정비, 사업조직의 강화, 사업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피임 대상의 양적 확대는 물론 피임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출산력 저하를 낳았고, 이러한 현상은 인구 성장의 정지를 예고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사업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를 '신인구정책'이라 지칭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인구정책은 모자보건 증진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 노인복지 사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여성회관 건립 추진

여성들의 사회 활동 및 교육, 인재발굴 육성,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은 여성단체장들과 부녀아동계장인 정어진을 포함, 회원 12인이 1976년 2월, 여성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 기금의 기초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였다. 처음 500원부터 시작한 이 모금운동은 점심값을 아끼고, 강사료를 그대로 내놓는 등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의해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여성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어 경기도로부터 여성회관 부지를 확보하면 여성회관 건립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건립기금 56억(시도비 포함)을 확보, 여성회관이 건립되었다.



여성단체장들과 함께 경기도지부 위원을 안내하고 있다.
(우측부터 정어진,이춘홍,중앙위원,(故)송신실,김혜숙)

2 안양시 여성정책 추진 현황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건강한 가정 구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 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이다.

안양시에서는 여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여성정책 기본 5개년(1998~2002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여성 활동의 여건 및 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가 여성인재은행 운영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재를 발굴·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능력있는 여성의 활발한 시정참여 계기 유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재은행』은 안양시 거주 여성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교육분야를 비롯해 정치·행정, 법률, 경제, 건설, 과학·기술, 사회복지·노동, 언론, 보건·의료, 관광·교통, 환경, 문화·체육, 기능 보유자 등 13개분야 전문종사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된 여성인재들은 그 분야별 특성에 맞게 시정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거나 시정홍보 등 시정 전 분야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들의 잠재적인 힘을 개발, 활발한 단체 활동으로 유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거주자 중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뜻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인 안양대학교의 교수 및 초청강사를 초빙, 17주에 걸쳐 매주 화, 목요일 2시간씩(10:00~12:00)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목은 여성지도자의 필요성 및 역할 등 34강좌이다.

97년 처음 교육을 시작, 제5기까지 20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2000년부터 명칭을 여성자치학 교에서 여성지도자양성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

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31개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목표율을 2001년도에 28%로 설정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라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 행사

1996년 6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주간이 매년 7월1일~7월 7일까지 정해짐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여성주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여성주간 기념식장에서 '안양을 빛낸 여성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는데 빛나는 안양의 여성을 선정, 예우함으로써 여성 스스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체육, 환경-의료, 사회-여성복지, 훌륭한 어머니 등의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관내 3년 이상 거주 여성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1997년 제1회에는 초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부인회 고문을 맡고 있는 신영순(1936.5.24일생)이 수상하였고, 1998년 2회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초대회장 윤옥규(1939.11.24일생), 1993년 3회는 국가테니스선수를 역임하고 포항제철 코치인 김일순(1969.1.24일생), 2000년 4회는 안양미술협회회장이며 안양여고 교사인 이재옥(1959.3.12일생), 2001년 5회는 닥종이 인형작가 최만숙(1945.3.22일생)이 수상했다.

또 1999년부터 화목평등부부상을 제정, 여성주간 기념식장에서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1회는 장애인 부부 이재웅·정윤숙이 수상하였고, 2000년 2회에는 천일한의원 원장 부부(이선구·백인순)가 수상하였으며, 2001년 3회에는 대상이 없어 수상자가 없었다.

마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20억원을 조성, 현재 20억3천만원이 적립되어 그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안양이 최초이다.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 「부모교육반」을 운영되고 있다.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중 15%를 재적립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사업당 총사업비의 8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년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1개 사업 34,280천원, 99년에 16개사업 51,330천원, 2000년 18개사업 95,568천원, 2001년 38개사업 119,596천원을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9개사업 103,900천원이 지원 결정되었다.



한마음체육대회



바 안양시여성대회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년동안의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새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다짐하기 위한 행사로 여성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회원에게 대한 표창과 기념식에 이어 이를 축하하기 위한 2부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여성단체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 여성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가정·건전한 사회 조성

가 전자기정육성사업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가정폭력, 가출, 이혼, 기아 발생 등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이해의 장을 넓히고 원만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사랑의 부부수련회** /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대화 부족으로 오는 갈등 해소, 가족의 소중함, 부부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 경제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 미래지향적인 자녀교육 등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매년 관내 부부 40쌍(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 현재 6회째이다.
- **P.E.T(효과적인부모역할교육)** / 96년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자녀, 부부간 문제 등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기법을 배양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모델링을 정립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대인관계, 건전한 가정육성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1기당 8주 교육으로 연간 6기 120명이 수료하며 수료생들은 동아리 모임으로 <좋은 엄마가 되려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연구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부모교육** / 9회 27시간의 심화프로그램으로 6개반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내 자녀 알기, 성격 특성, 어떻게 양육하나, 자녀의 학습태도 증진, 자녀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부모 자녀 마음 열기(대화기법),

성교육은 어떻게 하나, 성숙한 부모 되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일반적인 훈계교육이 아니라 자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미래지향적인 자녀 육성과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많은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 교실** / 아버지교실은 아버지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시간을 이용해 2000년도에 처음 시작, 매년 2개반 130명씩 수료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가정 내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 부부·자녀와의 대화기법, 리더쉽, 성교육,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갖는 등 정서적 공유의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시대 아버지들이 훈훈한 사랑과 가족간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 **예절관 운영** / 2000년 4월 17일 시장관사를 <안양시 예절교육관>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을 위한 예절문화공간으로 사용, 시민들에게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성인 일반, 심화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다례반, 예비부부반, 외국인 체험교실, 관계례행사 등이 있으며, “예”를 통해 가족간의 배려와 이해를 배우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성인일반 24기/744명, 성인특강 470명 (18회), 외국인체험 77명 (5회), 청소년예절교육 13,391명(19개교) 교원연수 1기/35명 등 총 14,700여명이 수료하였다.

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급격한 현대사회 변화와 악화된 경제상황의 여파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 이혼 가정이 늘고있으며,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별 등으로 인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발생이 증가되어 이들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과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모·부자가정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매분기마다 아동양육비, 중고생학비, 학습 재료비, 중·고신입생에게 년 2회 교복비를 지원하고, 추석과 연말연시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5명의 어머니에게 기술 교육비를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사랑실천학원결연사업/ 97년부터는 사교육 부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관내 90개 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줌으로써 입시, 예체능, 컴퓨터 등 배움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여성단체 및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 ② 의료비 할인 및 부인병 무료건강검진/ 97년부터 안양시의사회의 후원으로 관내 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모자가정 196 세대의 가구원 전원에게 의료비 20% 할인 혜택과 동안보건소에서 부인병 무료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 ③ 부모교육/생업 때문에 자녀교육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층의 어머니에게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④ 재가복지사업/생활 환경이 열악한 모자가정을 선정, 무료로 방도배를 해주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시정참여프로그램 송부/모· 부자가정에게 유용한 시정정보,생활,취업,기술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자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상담활성화** / '98년 '여성위기의 전화 1366' 및 '성폭력상담소', '99년 '가정폭력상담소(3개소)', '쉼터(1개소)'를 설치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99년 5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예방·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관계자회의를 개최, 사례 소개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혼모·부 발생예방 대책

- ① 미혼모·부 발생예방 교육/미혼모·부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중고 22개교 14,730명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 음란물로 인해 가치관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성을 정확하게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므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 ② 딸들의 캠프/여름방학을 이용, 저소득층 중·고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개념 정립과 생명의 소중함 및 신체변화, 담배, 술, 인스턴트식품 등이 인체에 끼치는 해로움, 기형아 발생 위험 등을 교육한다. 또한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 임신, 성폭력과 왕따 등에 관한 역할극으로 진지한 생각을 유도, 자아정체성을 찾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힘쓰고 있다.

라 경제활동참여 지원 강화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이 높아지나 경제난으로 인해 취업은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평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전문텔레마케팅, 직업설계, 여성취업알선센터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및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텔레마케팅 교육** / 텔레마케팅은 단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여성 유망직종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 중 저소득층과 실직여성에게 우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과정은 년 2기에 60명을 대상으로 9회 24시간의 과정이며, 수료 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 여성실직가장 및 실업자가 쉽게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2개 여성단체(안양 YWCA, 안양여성회)에 여성실업극복 지원센터를 설치, 민·관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담, 긴급보호, 취업알선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안양시장배 여성바둑대회

3) 여성 능력 계발을 위한 사업

가 여성능력계발썬씨대회

안양 여성들의 잠재능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아실현과 여성발전의 계기 마련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온 『여성능력 계발썬씨대회』는 87년 5월 첫대회를 시작으로 2001년 15회까지 글짓기 등 8개분야(가족글짓기/시·산문, 사진, 그림, 서예/한글·한문, 꽃꽂이, 사군자)에 9,000여명이 참가하여 총1,2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재능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나 여성컴퓨터경진대회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컴퓨터활용 능력 및 정보이용기술 향상을 위하여 여성컴퓨터경진대회를 98년 처음 개최, 2001년까지 4회에 160명이 참가, 여성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경제살리기 및 환경사업 전개

가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알뜰벼룩시장 운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절약정신을 고취하고자 98년 3월에 만안여성회관 내에 주부교실과 자유충여성회가 중고물품을 기증하거나 교환, 판매하는 아· 나 · 바 · 다 상설매장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일부 사회단체(환경연합, 시민대학, Y.M.C.A)에서도 상설이나 비상설로 중고물품 교환시장을 운영해오다 이를 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전 시민의 참여 확대와 시민의식 변화를 도모,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안양의 명소로 품물시장을 만들고자, 2001년부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평촌중앙공원로의 차없는 거리 노면에 비상설 <알뜰벼룩시장>을 개장, 계속 운영하고 있다.

나 이웃사랑 음식나눔은행(food bank)운영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웃사랑 음식 나눔은행(food bank)을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98년 4월에 시작하여 한해동안 1590회에 걸쳐 48,120천원 상당의 음식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일 깨우고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재생비누가공센터는 '98. 1월부터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상근요원 1명과 자원봉사 1일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수거는 기업체 및 군부대, 학교,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 수거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만든 고품비누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안양시청여성과 사무실 전경

▶ 안양시청 여성과에서 하는 일

•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행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 여성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개최 • 여성인재은행 운영 • 여성복지상담 및 보호사업 • 미혼모 발생예방 성교육 •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 및 지원사업 • 여성실업도움센터 운영 •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 일반여성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 및 사후처리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지도 관리 • 요보호여성 상담전화(여성1366) 설치운영 • 건전가정육성 교육운영 • 동거자 합동결혼사업 추진 • 여성활동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여성단체지원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여성개발과 관련 국내외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추진 • 여성 교양지도(시책사업 및 교육) •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 알뜰시장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지도층여성 육성 및 관리 • 여성환경보호운동·음식물나눔은행(Food Bank) 운영 •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사업 추진 • 여성단체 교류사업 추진 • 도움정보 주고받기운동 전개 및 정보알리미 운영 •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 •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관리 • 보육시설 인가 및 지도관리 • 저소득층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 정부보육시설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약정체결 • 보육위원회 운영 •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자원육성 및 홍보전개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등 • 기타 여성·아동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2부

안양의 여성단체

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2. 산하 각 단체의 역사 및 현황
3. 기타단체



“여성의 직관은 때로 남성의 오만한 지식의 자만심을 능가한다”

- 간디 -

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의 군장병 위문/1972년(군자해안초소) · 1997년(진해 안양함장병)



새마을부녀사업촉진대회(1976)와 새천년맞이 안양시 여성대회(1999.12.15)

많은 여성단체들이 시대적, 역사적 성격을 반영하고 또 그 시대, 그 역사가 요구하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되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 발전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사회봉사와 여성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고 이들의 노력은 안양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 1973년 안양시 승격 후 여성 연합체 활동부터 2001년 〈안양여성한마음체육대회〉까지의 활동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소중한 발자취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 괴테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설립목적

안양시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회원단체간의 사업 협의 및 정보교환
 회원단체 지원 및 발전 육성사업
 여성발전과 권익신장 지위향상 사업
 건전가정 육성 및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관한 사업
 여성단체간의 정보 및 친선교류사업
 이웃사랑과 대민봉사 사업
 회원교육 및 여성능력개발 사업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연혁

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여성단체들이 안양시로 이관되고, 또 신규조직의 계획에 따라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이에 개별적인 여성단체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 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973. 8. 28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함.
- 1974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대한조산사회 안양시 분회」, 「전국주부교실 안양시지회」, 「주부클럽 연합회 안양시지회」, 5개 여성단체 연합회를 구성, 경기도 최초로 연합체 활동을 시작함.
- 1976. 2 안양시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 추진을 협의, 각 여성단체장(이춘홍, 이인정, 정순희, 장선)과 관계공무원 1명(정어진)을 포함, 회원 12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기금의 기초를 위해 모금을 시작함.
- 1977 「대한적십자사 안양부녀봉사회」,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안양JC부인회」 3개 단체 가입, 총 8개 단체 연합회를 구성
- 1981 「한국걸스카웃 안양지구 연합회」 가입으로 9개 단체연합회를 구성
- 1985. 9. 10 경기도청 31460-06537에 의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정어진, 부회장 정순희, 박형임, 회계이사 이춘자, 서기이사 계성숙, 감사 이청형, 김경선 취임
- 1986. 2. 12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부녀회」 가입으로 10개 단체가 됨
- 1988. 1. 26 2대 회장에 이청형, 부회장 이은혜, 이춘자, 감사 김경선, 박형임,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취임
- 1988. 3. 12 「안양YWCA」 가입 11개 단체가 됨
- 1989. 2 회관건립기금 400만원 예치
- 1990. 1. 17 3대 회장에 이청형, 부회장 이은혜, 이춘자, 감사 김경선, 박형임,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연임



「여성단체협의회」 연석회의(1974)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장면(2000.12.15, 시청제2회의실에서)

- 1991. 1. 안양시에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
- 1991. 2. 5 「안양부녀의용소방대」가 가입 12개 단체가 됨
- 1992. 1. 8 4대 회장에 이청형 연임, 부회장 이춘자, 박형임, 감사 김경선, 이은혜,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취임
- 1992. 4. 여성회관 건립기금 50억 확보(안양시)
- 1992. 12. 9 여성회관 건립 설계 완료
- 1993. 3. 5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가입, 13개 단체가 됨.
- 1993. 6. 29 안양시 여성회관 기공식
- 1994. 1. 16 5대회장에 이춘자, 부회장 이정자, 계성숙, 서기이사 김선화, 회계이사 박정례, 감사 남대희, 정순희 취임
- 1995. 2 「안양 여류서예가협회」가 가입, 14개 단체가 됨.
- 1995. 6. 9 여성회관 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현판식
- 1996. 1 6대회장에 이춘자, 부회장 이정자, 계성숙, 서기이사 김선화, 회계이사 박정례, 감사 남대희, 정순희 연임.
- 1997. 12. 8 「대한조산사회 안양시분회」가 미활동으로 탈퇴, 13개 단체가 됨.
- 1998. 1. 12 7대 회장에 황영희, 부회장 김명순, 김선화, 서기이사 박정례, 회계이사 이재선, 감사 장순태, 문말자 취임.
- 1998. 5. 6 「안양시 생활개선회」 가입으로 14개 단체가 됨.
- 1999. 1. 5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의 가입으로 15개 단체가 됨.
- 1999. 2. 3 「안양주부민속단」 가입으로 16개 단체가 됨.
- 1999. 9. 2 「여성자전거연합회」, 「만안적십자봉사회」, 「동안적십자 봉사회」 가입으로 19개 단체가 됨.
- 1999. 12. 7 8대 회장 황영희 연임, 부회장 계성숙, 박정례, 서기 이재선, 회계 홍량식, 감사 윤옥규, 김인제 취임.
- 2000. 3. 2 「주부예술단」 가입으로 20개 단체가 됨.
- 2001. 4. 16 고유번호증 취득(안양세무서장 발행)
- 2001. 5. 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경기도지사 발행)
- 2001. 12. 6 9대회장 계성숙, 부회장 이재선, 구명자, 서기 홍방표, 회계 이순표, 감사 서인자, 최용주 선임

기구도



활동사

1970~80년대는 새마을운동 등으로 여성의 정신적 개혁이 강조되었던 시기이며, 각종 여성지도자교육, 강습회, 강좌, 시민대학, 주부대학 등에도 여성의 정신계발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이 시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의 세세한 기록은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와 새마을운동 숭현 참여, 생활개선계몽사업, 인보활동 전개가 주축이 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안양상공회의소에 발행하는 「상의보」에서 몇가지 기록을 발췌 수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단체 청소의 날 설정〉

안양새마을부녀교실 및 여성단체에서는 1975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과 셋째 토요일을 여성단체청소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청소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에 실시되는 「청소의 날」에는 하오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에 걸쳐 집 앞 골목, 하수구, 공동작업장, 쓰레기장 등의 청소와 상가유리창 가드레일 닦기, 그리고 뒷골목과 공중변소의 청소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도 명랑한 고장을 조성케하리라고 한다.(안양상의보 1975.5.15)

〈여성단체서 고아원 방문〉

1975년 9월 18일 한국부인회 이춘홍지회장을 비롯, 성조부인회장 성수옥씨, 안양3동 새마을부녀교실 김순임회장 등은 추석절을 맞아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기독교·평화·안양보육

원)을 방문, 각 부인단체별로 준비한 공동화 2백75컬레, 사과 10상자, 과자 27상자, 축구공 6개, 의류 4백13점을 현재 수용 중인 2백 75명의 고아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위로했다.(안양상의보 1975.10.1)

〈여성새마을축진대회〉

절미저축 365일 작전 및 여성저축 실천을 위한 안양시 여성새마을운동 축진대회가 1976년 3월 12일 하오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우영환부시장을 비롯해서 11개 여성단체 회장단 변우량교수,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영환 부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도시새마을운동의 추진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도시새마을운동에 헌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우량교수(공화당 훈련원교수)의 “도시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도 들었다. 이날 여성운동에 공이 많은 송준임(46세, 박달동 산8번지)외 1명과 평촌동 민백마을(대표 홍사분), 관양동 마분마을(대표 김순운)등 2개 부락을 선정, 각각 표창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백여명의 여성회원들은 애항하고 애족하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한다. 절미저축 목표 347가마 달성, 1천만원 저축을 위한 1주부 1통장 목표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등 새마을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3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청을 출발, 삼원극장에 이르는 중앙로에서 가정의례 준칙 실천과 3대질서 확립,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프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1만여장의 전단을 살포하며 가두캠페인도 아울러 벌였다. (안양상의보 1976.3.15)



연말연시를 맞아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1970년대)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1980년대)

〈여성단체회원 2백명 안버리기 캠페인 전개〉

안양시는 안양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1979년 3월 1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성단체회원 2백여명이 대중 집합 장소와 시장주변 등 시내 일원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어가면서 소비절약과 안버리기 운동 그리고 보리쌀, 혼식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범시민의 참여로 확산 파급하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 오늘의 캠페인을 시발로 안양시 여성단체에서는 계속하여 6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각 여성단체 및 지역에서 2백명씩 참여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릴 예정이다. 또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과 단체에 대하여는 시상키로 하였다. (안양상의보 1979.3.15)

〈가정복지 향상 등 연구키로〉

-여성단체장회의 사회정화 운동도-

안양시 관내 14개 여성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별로 1년동안 활동상황을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모아 변천해가는 오늘의 사회가 우

리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 새롭고 중요한 여성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개최했는데 중요사업 선정으로는 •가정복지 향상연구 •여성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정화운동 •저축생활화 실천 등 사업을 선정했으며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들이 술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강연회,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여성의 자질 향상이 모든 일의 우선됨을 논의하고 앞으로 각 단체별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기로 하는 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협의했다.(안양상의보 1979.10.1)

〈알뜰생활에 앞장〉 -소비절약 강연회-

안양시는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안양시 안양1동 소재 문화예식장에서 관내 12개 여성단체 5백8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절약 및 가정의례실천을 촉구하는 강연회와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안양상의보 1980.8.15)

알뜰생활에 앞장



페품활용 전시회(1978.6)



소비절약 강연회(1980.7.30)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거리 캠페인(1974)



IMF를 극복하기 위한 알뜰캠페인(1997.11)

이렇게 시작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 복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또한 여성세력의 결집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발전해 왔다.

1987년부터의 활동 상황을 년도별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87 • 심장병어린이돕기 메주바자회 개최(각 학교 심장병어린이 25명 도움) • 한시민 한나무 심기 운동
 • 시설아동 연합 운동회 개최(1일 대모 선정, 결연) • 미망인 위로회 개최 • 경기체전에서 향토음식점 운영
- 1988 • 농촌농기구 보내기 운동 • 올림픽성화 봉송 자원봉사 • 장애인올림픽 자원봉사 • 젓갈바자회
- 1989 • 영세모자돕기(자매결연) • 회관건립 기금 400만원 예치 • 시설아동 연합운동회 개최 • 전경 위문
 • 영세모자돕기 젓갈바자회 •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 소년가장 자매결연 사업
 • 제70회 전국체전 여성자원봉사자 500명 활동
- 1990 • 독거노인, 단체별 결연 • 사회복지시설 단체별 결연
- 1991 •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 경로잔치 • 시설아동 연합체육대회 •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
 • 독거노인 돕기/자매결연, 위문 및 김장 담가 주기 • 군부대 및 전경 위문 • 소년소녀가장 돕기
 • 아동복지시설 위문 • 심장병 어린이 돕기 • 수해지역 수재민 돕기 • 아나바다장날 운영 봉사
 • 시민의 날 행사 봉사 •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봉사 • 고부 대화의 날 운영
- 1992 • 여성회관 건립기금 마련 대바자회 개최 • 모자가정 위로 간담회 • 안면기형 불우아동 돕기 자선대바자회
 • 고부 솜씨자랑 대회 • 고부 100쌍 대화의 날
- 1993 • 사랑의 모자학교 • 아파트 마음의 벽 허물기 • 고부 야외 심성훈련 • 소년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 1994 • 저소득 모자가정 방문 위로 • 맑은 물 지킴이 환경 감시원 발대 • 아나바다 상설시장 개장 • 사랑의 정 나누기 운동
 • 농사체험장 운영 • 저공해 비누공장 설립준비 • 저공해비누 보급 무인판매소 운영 • 고부 야외 심성 훈련
 • 영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 고부내림 음식맛 자랑대회 • 어린이집 운영
- 1995 • 쓰레기 종량제 실시 주부 순회 교육 • 사랑나누기 대 바자회 • 가족사랑 중창대회
- 1996 •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및 인성교육 • 사랑나누기 대바자회 • 사랑의 부부 수련회 • 자매결연지역 농촌일손 돕기
- 1997 • 사랑의 부부 수련회 • 가정음식문화 개선 교육 • 설날맞이 작은 사랑 나누기 • 백혈병학생 돕기
 • 알뜰벼룩시장 개장 • 백만가정 한마음 통장갯기 운동 • 북한동포돕기 옥수수죽 시음회
- 1998 • 자원봉사자 1일 연수 • 아나바다 상설매장 개장 • 중 · 고생 재활용교복교환시장 운영 • 자매부대 방문
 • 사랑의 그릇 나누기 • 환경시설 견학 및 현장 체험 • 중추절 사랑의 이웃돕기 • 여성소식지 창간 • 여성포럼
 • 여성지도자 연수
- 1999 • 여성실업 극복지원센터 개설 •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연 • 도움정보 주고받기 • 알뜰벼룩시장 개장
 • 사랑의 징검다리 대바자회 • 수재민 돕기 긴급봉사 • 말기암환자 돕기 자선바자회 • 여성발전사 제작준비
- 2000 • 음식 나눔 은행 설치 1377 • 사랑 나누기 알뜰대바자회 •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사랑나누기 알뜰대바자회 개최 •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사업(3개년사업)
- 2001 •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 • 단체 임원 1일 연수 • 수해복구 봉사 • 년말이웃돕기 • 한마음체육대회
 • 여성포럼 • 여성소식지 발행

주요 활동 현황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며,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 일치된 의견을 모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반영함으로써 여성 발전과 권익신장을 꾀해 온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의 주요 활동 현황을 사진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결집의 장을 마련

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0여 명의 안양여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대단위 규모로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여성대회의 2부 행사로 열리고 있다.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4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지는데 참가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응원전, 장기자랑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기 진작과 단결,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지식 향상



제3기 「상설부녀기능대학」 탈출반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후 (1989.10.19)



여성단체장 간담회/여성단체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을 통하여 단체간의 활동을 교류함(1998)



여성발전을 위해 뜻은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단체 후원회 만남의 날(1999.6.7)



중부수련회에서 안양시여성지도자 1일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 (2000.6.8)

나 정기 월례회의 개최

매월 2일을 <정기 월례회의>로 정하고 협의회에 가입한 20개 단체 회장들과 이사,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별 사업보고 등을 통하여 단체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단체간의 친교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나 여성단체장 간담회

년 2회(봄,가을) 안양지역 전 여성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여성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사업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여성 발전에 이바지하고, 바람직한 여성 활동 및 문제점 등을 함께 토론하므로 효과적인 여성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라 여성을 위한 행사 개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1978년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시작된 <안양시여성글짓기 대회>는 경기도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는 것은 물론, 여성문인 발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대회는 거듭 발전을 계속해서 현재 <안양시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로 확장 운영되고 있다. <여성 능력계발 솜씨 대회>는 2차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데, 그 하나는 솜씨자랑으로 주부와 초·중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글짓기-사진촬영-그림그리기 대회이며 둘은 서예-사군자-꽃꽂이 대회이다.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여성등산대회>를 비롯해서 <부녀사업 촉진 여성대회>, <여성작품 전시회>, <여성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각종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 유도하고 있다. 결의대회나 캠페인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를 통해 사회를 읽을 수 있는데 1991년에는 147회 17,061명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공명선거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근래에는 소비자나 환경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교육과 캠페인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행사



<여성 탁구 대회>



제1회 <안양시 여성글짓기 대회>(1978.5.9)



제7회 <안양시 여성 등산대회>(1987.11.5)



가족글짓기·여성그림그리기·사진촬영 대회 개최식
(2001.4.15, 중앙공원)



가족글짓기 대회 장면
(2001.4.15, 중앙공원)



〈여성 능력계발 솜씨대회〉 서예부문 회화대회
(2001.4.25, 문예회관)



〈여성 능력계발 솜씨대회〉 꽃꽂이부문 (2001.4.25, 문예회관)



제1회 〈안양시 여성작품전〉 (1990.11.9, 문예회관)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안양 실내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여성행사가 제일 먼저 개최되었음도 주목할만하다. (2000.11.13, 안양실내체육관)



일본 소목시 부인회원들의 안양 방문(1981.8)



여성단체 회원들의 일본 소목시 방문(1981.8.19)

지구수비대를 위한 자원봉사대 스웨덴의 에코(ECO) 가족운동 현장
연구(1997.6.3)

2) 여성 발전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가 국제교류 및 타지역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1981년 일본 소목시 부인회원의 안양 방문을 시초로 5회에 걸친 일본 소목시 방문 교류, 또한 2000년 12월에 우수 여성정책사업 시상 등으로 일본 소목시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정보 교환, 유대를 강화하였다. 1996년, 중국자매도시인 산둥성 웨이팡시를, 1997년도에는 여성단체장과 공무원 12명이 동남아(싱가폴, 태국)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1998년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여성단체를 방문하고 환경 및 사회복지 시설 비교 견학과 여성복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또 타지역 여성단체와 교류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팔도 자매결연군 일손 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지 방문도 하고 있다.



나 사회봉사 활동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봉사의 대상도 시설아동을 비롯해서 영세모자, 청소년, 수재민, 농민, 실직자, 독거노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그릇 나누기”와 “사랑나누기 대바자회”, “자매결연지역 농촌일손돕기”, “김장담그어주기” 등은 많은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뜻 깊고 아름다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을 돕는 일을 위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힘을 보태왔다.

사랑나누기 알뜰 대 바자회

〈사랑나누기 알뜰 대 바자회〉는 1998년부터 매년 10월에 20개 가입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근검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단체별 판매품목 이외에 기증품 접수처를 통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판매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나누기에 전액 사용된다.

중추절 사랑의 이웃돕기

중추절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랑의 선물과 성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웃돕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 환경보전·소비절약 활동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운동을 활발히 벌여 1997년에는 경기도로부터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야 우수상을 받았으며, 1997년 한해동안 순회교육 2백 17회, 현장체험 5회, 알뜰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 2만4천명에게 환경보전과 소비절약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또 수분제거통 3만여개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한편 음식물의 구입부터 보관, 조리, 설거지, 식습관까지 단계별로 음식 쓰레기 최소화 실천방법을 마련, 97년 안양시의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96년에 비해 28.5%나 줄어들도록 하였다. 또 1998년 2월에는 “몸에 맞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교복교환시장〉을 운영, 물려줄 대상이 없거나 입지않고 방치된 교복을 재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1999년 1월부터 IMF로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로 여성실업자가 급증하자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개설, 여성 취업 알선에 크게 이바지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와 가정 경제난 극복에 일익을 담당했다.

사회봉사의 현장



1977년 7월 8일 안양천범람 대홍수 수해복구 현장에서 급수봉사를 하는 여성단체회원들.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 발생, 수해현장에 사랑의 접시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 중.(1998.7)



IMF 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 및 가정경제 회복을 위해 <여성 실업 극복 지원센터> 개설.(1999.1.18)



중추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선물 전달 (1998.9. 장애자요양원 행복의집)



시설아동 연합 운동회(1일 부모 되주기)



<사랑나누기 알뜰바자회>가 개최되고 있는 여성회관 광장(2000.10.24~25) 단체별 판매품목 외에 기증품 코너가 인기였다.



범계지하철역 입구에서 개최한 <년말 사랑의 대바자회>(1998.12.19~27)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주자 환영을 위하여 기다리는 모습.



박달동에 위치한 쓰레기처리장을 방문, 분리수거작업을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회원들.(1997.8.11)

「안양여성소식지」 발간

년 4회 계간으로 발행하는 「안양여성소식지」는 안양 여성들의 크고작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계간지로 발행함으로써 여성단체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기록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지도자 연수는 각 단체 회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6월 실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 효율적인 단체 운영 방안, 효과적인 회원 관리, 지도자의 자질 향상 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 등을 제시하여 리더자로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포럼 개최

매년 여성주간으로 지정된 7월 1일~7일 사이, 당해년도의 여성과 관련된 당면 과제와 현안 문제 등을 주제로 선택하여 「여성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여성들이 알아야 할 당면 문제와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정책으로 반영하여 여성발전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여성단체사」 발간

21세기를 맞아 여성단체들의 지나는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동안의 활동을 재조명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21세기 여성단체의 활동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여성단체의 활동상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안양여성단체사」를 발간키로 결정,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 발간을 완료하였다.



안양여성소식지
창간호



여성단체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2000.12.22)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을 위해 실무자들과 역대 회장들이 모여 수집된 자료를 점검 중.(2001.7.20)

역대 회장



■ 초대회장 정 어 진

- 생년월일/1939년 7월 26일생
- 재임기간/1985년~1987년(3년)
- 홀트아동복지회 원장, 경기도여성정책실장 역임
현) 해관보육원 원장



■ 2~4대회장 이 청 형

- 생년월일/1936년 9월 7일생
- 재임기간/1988년~1993년(6년)
- 걸스카우트안양지구연합회장 역임
현) 안양치과 원장



■ 5~6대회장 이 춘 자

- 생년월일/1945년 4월 2일생
- 재임기간/1994년~1997년(4년)
- 안양JC부인회장 역임
현) 안양지역기독교여전도회장



■ 7~8대회장 황 영 희

- 생년월일/1942년 5월 20일생
- 재임기간/1998년~2001년(4년)
- 걸스카우트경기안양지역연맹장 역임
현) 효산의료재단 안양병원 원장



■ 9대회장 계 성 숙

- 생년월일/1947년 7월 30일생
- 재임기간/2002년~
- 안양JC부인회장 역임
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 각 산하단체 약사 및 현황



「안양 시민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한 여성단체 회원들(2000.10.7)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는 20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각 단체는 그 특성에 따라 사회봉사, 여성문화의 향상, 여권신장, 가정생활 개선운동, 소비자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진시키고 있다.

여기 각 단체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활동하였는가를 정리함으로써 그 미래상을 밝히는데 일익을 다하고자 한다.

산하단체 순서는 가입 순서에 준하였으며 「적십자 봉사회」는 편의상 순서 무시, 「적십자 안양봉사회」에 이어 연결 수록하였다.

“여성의 복식”

갑오경장 이후, 신분계급이 폐지되고 조혼의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기독교의 전래와 여성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여성들도 개화사상에 서서히 눈을 뜨게 되었다. 이와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자 여성들의 복식에도 차츰 변화가 나타났다.

개화기 여자 복식의 가장 큰 변화는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됨에 따라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벗게 되었고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짧아지면서 통치마가 등장하고 한복의 개량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의 언론 계몽의 역할이 컸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한국복식사상 열선이 없어지는 가장 짧은 저고리가 착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겨드랑이 밑의 살을 가리기 위해 특수한 허리띠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였고 길어진 저고리와 함께 유행하던 여학생들이 입던 검정색의 짧은 통치마가 국내에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통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닿는 짧은 치마였으며 주름을 넓게 잡았다. 1940년 이후에는 다시 저고리 길이가 짧아져 적당한 길이가 되었고 갓길리와 고름은 길어졌으며 고름대신 브로우치를 달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속착삼, 단속곳,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 바지 등이 있었으며, 뒤편 터서 밑을 여민 개람바지가 나오기도 한 한복의 속옷은 짧은 팬티와 어깨허리 속치마로 대신하게 되었다.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배자, 갓저고리, 마고자 등의 매우 사치스런 옷도 있었다.

1920년 이후에는 고무신이나 신발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운동화, 구두가 나왔다.

머리모양에는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여 쪽머리를 한 사람도 있었고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은 팜프도어를 했다고 한다. 1934년에는 단발을 하였으며 1937년경부터는 퍼머넌트가 유행하였다. 쓰개치마와 장옷대신 양장과 목도리 즉 쇼울이 생겨났다.

유학파와 전도부인, 왕실여성 및 외교관의 부인들이 양장을 가장 먼저 착용하게 되었다. 이시기 양장의 형태는 양어깨가 올라간 큰 소매에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밑으로 퍼진 치마의 길스 결 스타일로 목에 리본을 달아 여성적으로 보였다.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

설립목적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
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 조정, 지도 육성 및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는...

단체 활동을 통해 정신계발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으로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68년부터 전국 각 시·도에 부녀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안양에는 1973년 8월 28일, 시 승격 이후 첫번째 여성단체로 「안양시새마을부녀교실 안양시협의회」가 조직되었다.

한편 관련기관에서도 마을 단위 부녀회를 통해 농촌생활개선지도(농촌생활개선구락부), 저축 장려(농협부녀회), 가족계획사업(보건소가족계획어머니회)을 추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 대상인 부녀자를 지도할 때 상충, 중복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되었다. 그 개선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회의 장소와 날짜를 통일하게 하고, 일정을 조절하는 등의 연합운동을 실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후에 이런 연합운동은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 141호에 의거 「새마을부녀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조직을 통합, 일원화할 때 시범사례가 되었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조직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3. 8. 28 「새마을부녀교실 안양시협의회」 조직
김영자회장 선출
- 1977. 10 국무총리 훈령 제 141호에 의거 자생조직
을 통합 새마을부녀회 조직
- 1977. 10 초대회장 이인숙회장 선출



새마을부녀교실 창립총회(1973. 8. 28)

활동사

「새마을부녀회」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계몽 및 새마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조직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기성조직(부녀교실, 새마을부녀교실, 가족계획어머니회, 생활개선구락부)에 참여한 자는 전원 참여토록 하여 회원은 18,400명(1973년 8월 현재)이었다.

「새마을부녀회」는 동·통 단위로 조직되었고, 「부녀지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시연합회」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송신실, 성수옥이 명예자문위원, 남정자, 최경순, 신영순, 이인숙, 정경순, 박내순, 윤옥규, 윤혜숙, 황영희, 김정숙, 정문자가 초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은 도시새마을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70년대 도시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은 【3대 질서운동】과 【10대 중요 구심사업】을 들 수 있다. 【3대 질서운동】은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정신질서운동〉으로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이웃·계층간 유대의식을 함양, 충효·경로 등 전통윤리의 창조적 계발 및 진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며 〈행동 질서 운동〉으로는 거리질서 지키기, 거래질서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시간 지키기, 음주 추태 안하기, 노상 폭행 안하기 등이다. 〈환경질서 운동〉으로는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가로 환경 정비·정돈,



새마을부녀교실 시 협의회(1974)

생활주변 가꾸기, 푸른 도시·푸른 하천 가꾸기 등이다. 【10대 중요 구심사업】은 새마을청소, 시장새마을운동, 도시녹화, 새마을금고의 육성, 뒷골목 정비, 명랑질서운동, 반상회 운영, 소비절약운동, 새마을분위기 조성 등이 있다. 또, 1974년부터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 아침 1시간 동안 가정, 학교, 직장, 단체별로 청소를 실시하여 도시 새마을사업의 선도적사업으로 일상화 시켰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러한 모든 새마을사업 전반에 걸쳐 노력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녀새마을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주도의 체제로 변환하였다.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으며, 1980년 12월 13일자 법률 제3269호로 공포·시행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설되었다. 따라서 「새마을부녀회」도 그 산하로 흡수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두었고, 시·도에 지부(支部)를, 시·군·구에 지회(支會)를 두었으며 읍·면·동과 마을에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두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새마을운동과 함께 부녀회 활동은 지속되어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행정주도 체제에서 민간주도 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80년대의 대표적인 사업은 【3대시민운동】과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이다. 【3대시민운동】은 소비절약, 준법정신, 인보협동을 말한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 【3대시민운동】의 교육·홍보·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폐품수집, 중고품 교환, 휴지 안버리기, 거리·환경·행락질서 바로잡기 등의 민간 계몽의 전방위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오수로 오염된 안양천과 유원지의 정화사업, 산에서의 취사금지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상당한 결실을 얻었다.



올림픽 꽃탑 장식(1988.9.6, 인덕원사거리)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질서·친절·청결 생활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안버리기 대회, 무궁화심기 대회, 하천정화 대회, 올림픽꽃탑 장식, 거리 청소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거리·상거래 질서 정착과 각종 서비스 업체의 시설 개선, 손님맞이 친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가로 환경 정비, 도시 색채 환경 개선 등 도시환경이 잘 정비되어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 들어 도시새마을운동은 질서확립, 환경정화, 사회봉사, 시민화합에 사업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내고장 환경 가꾸기, 경제 살리기, 도·농간 직거래 촉진, 건전 생활 운동, 도덕성 회복 운동, 자원봉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 내고장 환경 가꾸기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맑은 하천 가꾸기, 수돗물 아껴쓰기, 자연환경캠페인, 환경가꾸기 웅변대회 개최 등과 아울러 매년 6월이면 <방역봉사발대식>을 가짐으로 방역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90년부터 실시 되어온 폐자원 수집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폐자원 수집 경연대회>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궁화 심기(1984.4.14)



꽃길 가꾸기(1993)



공공시설 물청소(1998)



하천 정화 대회(1980)

특히 <폐자원 수집 운동>은 새마을 자립기금 확보라는 2중 효과를 거두어 수익사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현재 각 동별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양시로부터 위촉받아 운영하고 있는 폐식용유 이용 <재활용비누가공센터>이다. 초기에는 10평 미만의 컨테이너에 비누 믹서기, 비누건조용 플라스틱 판과 간이 절단 장치를 믹서기에 붙인 열악한 시설로 폐식용유에 가성소다를 넣어 손으로 젖는 수동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다가 94년 안양시청과 동안·만안구청의 지원을 받아 비누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원들이 하루 3~4명씩 교대로 봉사조를 편성, 비누를 만들고 있다. 생산 규모가 커지자 폐식용유 수거와 비누 판매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정뉴스」, 「반회보」 등에 홍보 내용 게재, 재생비누 제조과정 견학에 학생들 초청, 각 동사무소에 투명 플라스틱 비누 판매대 설치·사용 권유, 건강 걷기 대회·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참가 기념품으로 비누 나누어 주기, 폐지와 비누 교환해 주기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는 연간 10만장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 「안

양시 여성과」에서 관내 뉴욕제과, 신라명과와 급식 인원이 많은 공장식당, 인근 군부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어 폐식용유 수거에 큰 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재생비누 판매 수익금은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회 45쌍(1995~1996) • 소년 소녀가장 초청 간담회 3회(1994~1996년) • 강릉지역 침투 간첩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장병 위문(1996년 추석) • 파주 연천지역 수해당시 비누 3,000장 및 생필품 지원(1995년~1999년) • 동해시 산불 피해 의연금 150만원(2000년 5월 16일) • 독거노인 효도관광 7회(1995년~2001년)에 사용되었다.

이같은 활동은 수범사례로 인정되어 2000년 6월, 「전국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시 조금영회장이 「가공센터 운영」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4월 28일부터는 팔도 벽지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와 <농산물 판매>를 돕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강원도 영월군에서 고추 모종심기, 고추 지지대 설치, 고추 따주기 등을 주로 하며 수확된 고추, 배추, 사과, 감자 직거래 사업을 한다. 2000년도에는 괴산군 생산 감자, 김장배추 2,000포기 영월군 건고추 6,000근을 팔아 주었다.

이밖에도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과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재활용품 수거운동>에도 앞장섰으며, 아울러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직자 돕기, 김장 담가주기, 쌀 나눔 운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96년부터는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어 200여명의 새마을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시간도 해마다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고장 환경가꾸기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국토대청결운동	3월과 5월에 시내도로변, 안양천, 학의천, 역, 공원등 청소(매년 실시)
맑은 하천 가꾸기·안양천 정화대회	안양천, 학의천 등의 하천정화운동
만안교사적지 보호 및 삼막천 자연정화대회	만안교, 삼막천 주변청소
웅변대회, 사생 및 백일장대회	초등학생 환경가꾸기 웅변대회, 환경가꾸기 사생 및 백일장 대회 개최(1996)
방역봉사대 발대식	6월 1일, 방역봉사대 발대식 후 9월까지 방역봉사활동을 함.(매년 실시)
산불예방 및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	동안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캠페인 활동을 벌임(1996.4.23)
담배 궤초 안버리기 캠페인	각동 부녀회원이 전단 배부, 현장 계도를 벌임(1999.7.3)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	안양2동 대우아파트 주변과 안양3동 안양공전 뒷담길 범계동 공원 주변에 무궁화 심기(1998.4.1~4.11)
내고장 환경지킴이	서울시 난지도를 방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견학(1999.6.17)
소하천 살리기 운동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10,000명이 참여 동별로 학의천 안양천 담당구간 대청소(2000.5.20, 6.17)

경제 살리기와 자원재활용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	경제살리기 캠페인, 결의대회(1998.1~11) • 금모으기 행사/1998년 1.22(목) 13:00~17:00까지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서 행사를 벌여 금 289돈을 모음 • 나라사랑 고철 모으기 경진대회/1998. 2. 16(월) 10:00~17:00까지 대한전선 앞 학의천 고수부지(고철 수집량 62톤) • 전국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관양1동 남,녀지도자협의회가 협동상(새마을 중앙회장 표창) 을 수상(1998.5) 실직가정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총 수집량 142.4톤, 수집판매대금과 경진대회 시상금은 실직가정돕기 김장담가주기 비용으로 사용
남은 음식을 이용 요리솜씨 자랑대회	각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모여 경제교육을 받고, 남은 음식 이용요리 품평회를 가짐. 호계1동 부녀회장 윤경자의 '감자케익' 이 최우수 으뜸상을 받음(1999.7.5)
재활용비누 가공센터 운영	새마을부녀회원 매일 3~4명씩 봉사, 재생비누 생산 및 판매 활동을 벌임. 수익금으로는 독거노인 효도관광 비용, 의연금 등으로 사용함.(계속사업)
알뜰벼룩시장	현웃, 도서, 가전제품 교환, 저공해비누 판매



에너지 절약 캠페인(1990.10.19)



사재기 추방 거리캠페인(1991)



남은 음식을 이용한 요리솜씨대회(1999.7.5)



← 경제살리기
금모으기 운동
(1998.1.22)

재생비누 판매 및 →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





폐품 수집 운동



재활용비누 가공센터

자원봉사활동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	독거노인, 실직가정, 불우이웃 등에게 김장 담가주기(매년 실시)
머느리 봉사대 발대식 및 독거노인 효도관광	새마을교동봉사대와 연합,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가까운 명소를 관광시켜 드림(매년 실시)
경로위안잔치	동안구, 만안구 별로 관내 노인 접대(매년 실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마련(95, 96년 3회/ 38쌍 결혼)
수해복구 지원	경기도 연천,문산지구 수해복구 지원 및 의연금품 전달(1996.7.30) 경기도 파주 수해지역 복구작업 자원봉사(1998.8.2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수해지구 수해복구작업 자원봉사(1999.8.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 유원지 수해지구 수해복구작업 자원봉사(1999.8.7)
자원봉사 대축제	3개 보육시설 자원봉사, 헌혈,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가스폭발 사고를 입은 비산1동 부녀회 총무대 방문
장애인 및 독거노인 무료 의료 진료	안양시 장애인복지관,비산사회복지관에 의약품 지원
중국단둥시 조선족중학교 자매결연	단둥시 조선족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서 10,000권, 한복 60벌, 태극기 500개, 학용품 전달(1997)
한가위-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전개	추석절 전후로 각동별 불우 이웃, 시설기관을 선정, 쌀 전달(99년부터 매년 실시)
실직가정을 돕기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동안여성회관 앞 광장에서 견고추,야채류,중고의류,건어물,향토음식 시식판매, 저공해 비누 판매를 실시,
북한동포 돕기 운동 전개	수익금으로 연말연시 실직가정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에 활용 북한 주민돕기 의류 및 어린이 겨울용품 35박스를 모아 경기도 새마을 부녀회에 전달
청소년 봉사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만안구 관내 32개팀 참가)/1996.11.17, 1997.10.19 안양1번가 밤거리 청소년 선도(1997.10.6~12) 학교폭력추방운동 전개,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운영(1999.3~12) 불우청소년, 소년 소년가장 초청 간담회(매년 실시)



「안양시재생비누가공센터」 앞 광장에서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



「평화의 집」 양노원 김장 담그어주기
(1993.12.3~4)



만안구새마을부녀회 주관 합동결혼식, 동거부부 12쌍 결혼
(1995.10.26)



중국단동시 조선족중학교 도서보내기(1997.8.27~9.1)



새마을 효도 경로잔치(1991)



새마을 독거노인 효도관광



독거노인 방문 돌보기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농촌일손돕기	강원도 벼 베주기(1995.10.13) 옥천군 동의면(관양1동),영월군 주천면(동안구),괴산군 문광면(만안구) 고추따기(1996.8.2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추따기(1998.9.29) 강원도 영월군 고추 지지대 설치, 고추 겹순따기, 수박밭 비닐도포 작업(1999.5.28) 안양포도 살리기/관양1동 31-1, . 비산3동 44 포도밭에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매년 실시)
김장시장 개설	동안구청 앞 공터 이용 김장시장 개설(1995)
팔도 벽지농촌군과 자매결연	벽지 농촌 7개군과 자매결연 결연식, 농·특산물 팔아주기(1996.4. 26~)
농산물 장터 개설	추석절을 맞아 팔도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장터를 농협 하나로마트 장터에 개설 (1996.9.19~24)
벽지농촌 감자 팔아주기	강원도 정선, 평창군 감자 팔아주기(1996.12~1997.1)
배추 팔아주기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의 배추 6,000포기 판매
자매결연군 고추 팔아주기	강원도 영월군 건고추를 새마을 알뜰마당과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



농촌일손돕기 새마을 운동(1980.5.2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추따기, 비를 맞으며 봉사(1998.9.29)



안양포도 살리기/포도봉지 씌우기(2001.6.21)



새마을부녀회 직거래 장터(1988.8.17)



강원도 정선 고추 팔아주는 호계1동 새마을부녀회(1993.9)



1993 새마을 알뜰마당



1998 새마을 알뜰마당

기 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휴경지 터밭가꾸기	4,500여 평에 콩, 채소 경작. 480여 명 참가(1995.4.15)
광복절 국기달기 운동	평촌동협의회를 중심으로 광복절 국기달기 운동을 펼침(1995.3.1~8.15)
건강걷기,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1995.10.22)
안양시민축제 참가	시민 퍼레이드 참가/평촌학운공원 집결해서 평촌 중앙공원까지 시민축제 참가 내빈 및 종사자에게 육개장 접대 (평촌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식당 사용, 중식, 석식 4회)
여성단체 바자회 참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의 '여성단체 바자회 참가' 동안구 여성회관 앞 광장에서 각동 새마을부녀회장 40여명이 참여 국수 빈대떡 등 판매 수익금 420,000원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기탁
안양시 여성대회 참가	안양시 여성과 주관 '안양시 여성대회'에 각동 새마을부녀회원 800여 명 참가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새마을 자원봉사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교육(안양시청 전산교육실), 지역사회 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교육(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민간사회 안전망 선포식 교육, 각 동 총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 총무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각종 새마을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그 대회로는 새마을경기도지사에서 주관하는 「부녀평가대회」, 「지역평가대회」, 중앙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안양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새마을결산대회」가 있고 이 대회를 통해서 경과보고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양시새마을부녀회」는 1998년 「경기도부녀평가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1998.12.22).

「안양시새마을부녀회」의 새마을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82분기포상 / 이은혜(82.9.27, 대통령상)
- 새마을 지도자 대회 / 박찬분(87.11.19, 대통령상) · 최은덕(92.11.17, 대통령상) · 구순자(96.11.22, 대통령상) · 황효숙(87.12.31, 내무부장관상) · 이정자(88.12.31, 내무부장관상) · 신옥희(89.12.13, 내무부장관상) · 구순자(90.12.26, 내무부장관상)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김정자(92.11.17, 내무부장관상)
- 새마을지도자결산대회 / 장인순(93.12.29, 내무부장관상) · 정정순(93.12.29, 내무부장관상) · 채숙자(93.12.29, 내무부장관상) · 박덕순(94.12.30, 내무부장관상) · 한정연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촉진교육(2000.7.18~7.28)

- (94.12.30, 내무부장관상) · 이양자(94.12.30, 내무부장관상) · 조금영(95. 12. 5 내무부장관상) · 오인숙(95, 내무부장관상) · 장순남(96, 내무부장관상) · 최관순(97, 내무부장관상) · 길인순(97, 내무부장관상) · 승임순(97, 내무부장관상) · 이순식(98, 내무부장관상) · 최옥순(98, 내무부장관상) · 안정희(99, 내무부장관상) · 김영자(2000, 내무부장관상) · 김기영(2001, 국무총리 표창) · 조금영(2001, 국무총리 표창)

역대회장은 1대 이인숙(1977~1981), 2대~4대 이은혜(1981~1988), 5대~6대 이정자(1988~1992), 7대~9대 김기영(1992~1997), 10대 조금영이며 2000년 1월 13일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목적

기술화·정보화·국제화의 발전에 발맞추어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며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정치·경제·교육·문화·가정·복지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인보사업
생활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 및 우리농산물 장려사업
소비자보호사업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는...

「한국부인회」는 '미풍양속의 부녀도 구현'을 목표로 보사부의 허가를 받아 1963년에 등록한 단체로 1948년부터 활동해왔던 「대한부인회」의 후신이다.

1949년 초 안양에서 「대한부인회 경기도본부」가 결성되었으며 故송신실(1905년생, 당시 대한부인회 시흥군지부 지부장)에 의하여 시흥군 일대 1읍 7개면 시흥군 지부의 읍면 분회가 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로서 반공계몽·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의복간소화를 위한 통치마입기, 옷고름 안달기를 주로 했으며 선거 때는 후보자의 변호인 작대기 기호 이해시키기, 식량절약을 위한 절미운동, 폐품 수집, 노름 막기, 축첩 폐지, 여권 수호 등의 운동을 주도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시키자 「대한부인회」도 해체되었다가, 1963년 「한국부인회」로 등록,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시흥군지부 초대회장 이춘홍은 안양지역 유지부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 이사로 위촉했으며, 후에 그들의 후원이 「한국부인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영순(13대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추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1973년 7월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함으로 1974년

1월 9일 시흥군지회가 안양시로 이관,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가 되었다. 당시 활동 중이었던 회원은 24명이었고, 시흥군지회 회장이었던 이춘홍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한국부인회」는 조직사업부, 생활지도개선부, 선전문화 청년부, 조사섭외부, 소비자보호부를 두어 단체를 육성하여 왔으며, 2001년 6월 현재 이사 10명, 임원 10명, 9개동 부녀회,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혁

1974. 1. 9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한국부인회 시흥군지회가 안양시로 이관됨. 총 24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초대회장 이춘홍, 부회장 김선자, 김복례, 총무 김혜숙, 김정모가 취임하였고 조직사업부, 생활지도개선부, 선전문화 청년부, 조사섭외부, 소비자보호부를 둬.



의왕 정착사업장 방문 위문품 전달(1974)



평촌부락(지금은 범계동) 논에서 피뎀기를 돕고 있다.(1971)

1982. 1. 9 제8회 정기총회 개최, 임원 선출.
회장 이춘홍, 부회장 김선자가 재당선되었고, 총무는 노부자가 당선됨.

1982. 6. 25 비산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회장 이정인, 부회장 김경애, 총무 이애자, 사업부장 김경숙 취임.

1982. 10. 13 6동분회가 14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신부순, 부회장 서옥희, 총무 홍춘광, 사업
부장 권정수, 고문 심재우, 김보선 취임.

1982. 10. 29 5동분회가 14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한승희, 부회장 김점식, 총무 윤정희, 사
업부장 장운덕 취임.

1982. 11. 18 4동분회가 14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홍순례, 부회장 한경숙, 총무 오문자, 사
업부장 제상숙 취임.

1983. 2. 18 석수동분회가 11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
장 이용옥, 부회장 김숙, 총무 이희숙, 사
업부장 이순래 취임.

1983. 7. 9 안양1동분회가 16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장 한정자, 부회장 한삼순, 총무 이수
향, 사업부장 박정자 취임.

1991. 12. 6대 회장으로 김복례, 부회장에 장순태,
심재우, 총무 노부자, 부총무 박정순 취임.

1993. 12. 21 7대 회장으로 장순태, 부회장 노부자, 김
경애, 총무 이희숙, 부총무 박정순 취임.

1994. 1. 21 관양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회장 박
찬분, 부회장 사명숙, 총무 정청자가 취임.
모두 7개 동분회가 조직됨.

1994. 3. 15 안양3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
어 회장 임재희, 부회장 최진옥, 총무 정
옥선, 취임.
모두 8개 동분회가 됨.

1994. 4. 20 박달동분회가 16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장
초한규, 부회장 김순례, 총무 서이자 취임.

1995. 2. 6 안양3동분회가 분동되어 안양9동분회를
조직, 안양3동 분회장 최진옥, 부회장
박영삼, 오재임, 총무 신기림, 취임. 안
양9동 분회장 임재희, 부회장 정순남,
총무 정옥선, 취임.
총 10개 동분회가 조직됨.

1995. 10. 13 비산1동분회가 16명의 회원으로 조직되
어 분회장 한귀분, 부회장 이부엽, 총무
김현숙, 취임.
총 11개 동분회가 활동하게 됨.

1996. 6. 18 한국부인회 소비자 고발센터 개설 및 이
동서비스 실시.

1997. 1. 27 8대 회장으로 김경애, 부회장 노부자,
이희숙, 총무 김영숙, 부총무 박옥선,
감사 김점식, 김선자 취임.

1999. 12. 21 9대 회장으로 김경애 연임, 부회장
이강순, 임재희 총무 김영숙 연임,
부총무 강정자 취임.

2001. 3. 7 월례회시 부총무 구순자, 감사 노부자,
한귀분 취임.

2001. 12 ~ 10대 회장에 임재희, 부회장 구순자, 이
애자, 총무 구춘목 취임



합동 결혼식 개최 후 회원들이 함께



일본 소목시 초등생 친선방문

활동사

1971년 9월 시흥공보에는 <부인회에서 수혜의연품 현지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 시흥군지부 회원 20여명은 삼남지방에 내린 폭우로 가재도구를 잃은 재해민에게 시흥군 전체 부인회원이 수집한 의류 2,000점, 라면 30상자, 현금 11,160원, 기타 학용품과 안양제일교회에서 보내준 의류 370점과 일용품을 가지고 수해현지인 충남 청양군 적곡면을 직접 방문 전달하고 그들 재해민을 위문 격려하였다.」

1970년 12월 18일자 경기일보에는 “연말을 맞아 조여행

시흥군수 부인, 이영호 국회의원 부인 등 한국부인회 시흥군지부 회원 6명은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 위문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관내 과천면 문원리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 떡과 쇠고기 10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로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는 위 신문기사들처럼 시흥군지부 시절부터 보육원 방문이나 논의 피 뽑기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해왔고,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설립 후에도 새마을운동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부대·보육원의 위문활동과 지역발전 및 생활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부인회 본부」에서 추진하는 건전가정 정착사업의 보조활동을 벌여왔다.

그 활동을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보사업/비산동 영세민 쌀배급 및 연탄지원, 군부대 위

소비자보호활동



「소비자보호센터」 개소식(1996.6.18)



가전제품 무상 수리 순회 서비스(1996)



제1회 소비자 교육(1997.6.13)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1997.10.7)



청소년의 소비생활교육(1999.11.18)

- 문, 나자로춘 위문, 보육원 및 복지시설위문, 수재민돕기
- 생활개선사업/아시안게임 급수 자원봉사, 영세부부 합동 결혼식 주최, 아나바다 바자회 참기름 판매, 새생활실천 캠페인
- 농촌일손돕기사업/범계동 벼 피뽑기 봉사
- 교류사업/일본 소목시 초등생 친선방문 환영회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문제가 중심과제로 떠오르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 소비자 문제를 부인회의 특색사업으로 발전시켜왔다. 1996년에는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 고발접수를 실시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안양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소비자 단체 보조금(안양YMCA, 안양YWCA,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을

인보사업, 우리농산물장려사업, 생활개선사업, 여성사업



폐식용유 활용
무공해비누 만들기(1992)



「홀트아동복지회관」 자원봉사(1994)



독거노인 돕기 김장 봉사(1992)

지원 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년에 1500에서 2000여건의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부당한 상거래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활동을 유도하면서 현재까지 15회 청소년 소비자교육 및 12회 상담 실무자 및 주부교육을 통하여 안양지역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셋째,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의 확산과 과소비 억제에 위한 자원재활용의 차원으로 대우, 삼상, 엘지 가전삼사의 협조로 1년에 8차례 가전제품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사업 이외에도

- **인보사업/**장애인 및 고아원, 보육원 방문, 김장담기 봉사

사, 홀트 아동복지 평생후원회가입, 소년소녀가장, 영세 모자가정, 독거노인 성금 및 봉사, 영세부부 합동결혼식 (13쌍), 베트남 한인2세 결혼식 및 생활비 전달,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식당봉사 및 산책봉사

- **우리농산물장려사업/**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농촌일손돕기
- **생활개선사업/**경제안정을 위한 씬씀이 10% 줄이기 캠페인, 자연보호사업, 환경보호사업, 폐식용유를 활용 무공해 비누만들기, LA교민돕기 바자회참여, 공명선거 캠페인,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캠페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소비자교육, 경제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여성사업/**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솜씨대회 참여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새생활 실천캠페인(1990.10, 벽산백화점앞)



전국주부교실 안양시지회

설립목적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 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 전개로 새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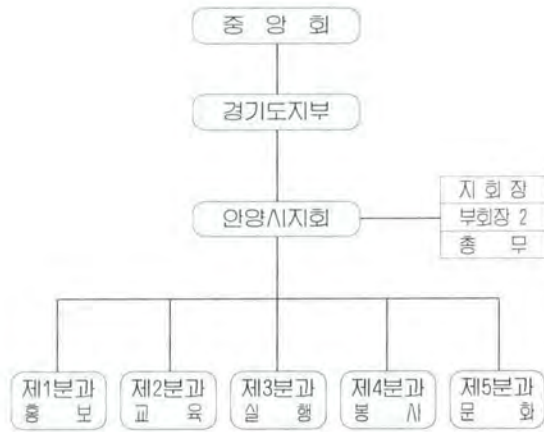
주요사업

주부교실 운영
소비자 운동
생활합리화 운동
사회봉사활동

전국주부교실 안양지회는...

「전국주부교실」은 문교부 등록단체(등기번호 1216호)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있어 주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목표로 조직되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정신을 가진 주부상을 위해 주부교육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안양지회」는 1972년 10월 20일, 만안·안양초등학교 학부형들 중심으로 결성, 약 150여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조직은 아래와 같다.



활동사

매월 1회 주부교실 강좌가 실시되었는데 「교실개강」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 강좌는 교양강좌, 기술강좌, 레크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강하였다. <교양강좌>에서는 주부들이 갖추어야 할 지적소양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기술강좌>에서는 알뜰한 살림을 도모하기 위한 폐품이용기술 등의 강좌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레크레이션 강좌>에서는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및 가정생활의 활력과 명랑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지휘/정순희 초대회장), 운영하였는데, 당시에는 합창단을 가진 유일한 여성단체였다. 뿐만 아니라 활동도 활발하여 1974년 10월 15일에 열린 난파음악제 수원지부 예선대회에서 어머니합창부문 2등으로 입상하는 등의 활약을 나타내었다.

창립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주부교실의 사업실적을 보면 주부를 위한 사회교육활동, 소비자운동, 생활합리화 운동,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별된다.



주부교실의 <교실개강>(1973.7.27)



주부교실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 참가 후(1974)

70~80년대의 주부교실 활동 모습



〈식생활개선 강좌〉 보리쌀 이용 음식 만들기(1981)



바른 식생활 보급을 위한 각학교 순회활동 중(1981)



〈상설 안방 구판장〉 개설(1980)



보육원 방문(1976)



〈교실개강〉 '여성이 필요한 생활법률 바로알기' 특강(1982)



지도자 연수교육을 마치고(1984)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에(1981.3)



보육원생들과의 운동회(1986)

그 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부교실 운영과 소비자 교육, 식생활 개선 교육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여성의 교양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영양 높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있어 주부 역할의 중요성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도 「알뜰구판장」 등을 통한 소비 절약 정신 강화 운동 등, 소비자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또 생활 합리화는 주부가 솔선해야만 한다는 주장 아래 식생활 개선은 물론, 가정의례준칙의 실천, 자연보호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방학을 이용 평화보육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엄마 김밥싸기” 봉사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부교실」의 식생활 개선, 소비자교육을 년대별로 살펴보면,

주부교실의 식생활 개선 계몽 / 1970년대는 “보리가루 조리법과 영양개선”, “고구마 감자 보리를 주재료로 한 시식회” 등 쌀 중심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많았다. 1980년대에는 “보리 혼식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달교육을 실시했으며, 1990년대에는 우리 농수산물 애용을 주제로 한 계몽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부교실의 소비자 교육 / 1970년대는 소비자 계몽 위주의 교육이었으며 80년대는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보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 등으로 변천하였다. 그리고 90년대는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이 많았다.

그밖에도 주부교실 중앙회의 활동 방향에 따라 전달교육과 계몽활동을 벌여왔다. 「주부교실 안양지회」의 연도별 사업 실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973. 8.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안양지역 모범상점 여론조사>에 참가
- 1974. 1. 식생활 개선 시범 실시
- 1975. 10. 25 <전국 식생활 개선 식품 경연대회> 참석
- 1976. 4. 「알뜰 구판장」 개설(년중 무휴)
- 1976. 7. 고아원 방문
- 1977. 4. 「어머니 교실」 개강(년 4회)
- 1978. 10. 1회 지역특산물 개발 <전국 주부교실 바자회> 참석
- 1979. 2.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명시와 안양시로 분할
- 1979. 8. 「상설 안방 구판장」 개설
- 1980. 4. 「소비자 고발 센터」 개설, 운영
- 1981. 10. 식생활 개선 식품 경연대회

- 1983. 4. 꽃꽂이 무료강습 운영(주중 화, 목)
- 1984. 3. 안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부모 식생활 개선 보급운동
- 1985. 8. 기독교 보육원생 일일 부모 되주기
- 1986. 12. 제1회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경로 위안 잔치
- 1987. 7. 제1회 평화보육원 원생을 위한 <엄마맛 김밥 싸기>
- 1988. 4.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 교육
- 1990. 11. <학생가장 돕기 일일찻집> 운영
- 1991. 4. 자연보호 캠페인 및 등산대회
- 1993.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수여
- 1994. 3. <아나바다 상설매장> 개설 운영, 환경보호 운동
- 1996. 4. 우리 농산물 장려 사업
- 1996. 12. 가전제품 써비스봉사(1년 1회)
- 1997. 10. 쓰레기 줄이기, 찬밥을 이용한 요리강좌
- 1998. 4.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 예방> 세미나 참가(한국여성개발원)
- 2000. 6~8 주부교실 회원 전원 예절 교육관 입소 수료 완료
- 2000. 8. 실업 장애인 여성 돕기 일일찻집 운영
- 2000. 12. 18 결혼희관 엘리제궁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
참석인원 280명, 봉사요원 35명
- 2001. 4. 평촌 차 없는 거리에서 「알뜰 베품시장」 운영
- 2001. 6. 5 자원 재활용 캠페인, 쓰레기 줄이는 열가지 방법교육

역대회장은 1대 정순희(1972.10.20~1982.11.10), 2대 김인제(1982.11.11~1992.1.15), 3대 허영희(1992.1.16~1999.7.9)이며 4대 장석예가 1999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1990~2000년대의 주부교실 활동 모습



꽃꽂이 무료교실 개강(1991~)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1990)



제10회 독거노인 경로잔치(2000.12.18)



1987년부터 계속하는 평화보육원 원생을 위한 <엄마맛 김밥 싸기>
(2001.7.19)



「만안여성회관」에 소재한 주부교실의 「아나바다 상설매장」



<사랑나눔바자회>에서 무공해 주방세제 및 머리염색약 판매 봉사(2000.11)



평촌 차 없는 거리의 「알뜰벼룩시장」 운영(2001)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안양시지회

설립목적

여성, 사회, 환경, 소비자, 민간단체로써 가정주부로 하여금 주부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숨겨진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회기능의 담당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환경보존 운동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무료직업안내사업
건전 소비운동
장묘문화개선 사업

대한주부클럽 안양지회는...

「대한주부클럽」은 1966년에 창립되어 주부들을 위한 각종 교제 발간, 좌담회, 세미나, 바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소비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환경/소비자/민간단체이다.

1964년 초 시작된 「화요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故)김활란박사는 당시 주부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계도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이러한 공감대에 호응한 발기인 10여명의 여성 지도자급 주부들과 함께 「화요클럽」이라는 모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이를 통해 <나라의 국력은 국민성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가정 주부들인 어머니요 아내임>을 깨달아 각 지방조직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는 해외지회인 미국 LA지회를 위시해 국내 80여 클럽 13개 지회 36개 지부로 조직된 약 3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신력있는 단체로 성장을 이루었다.

「주부클럽 안양지회」는 1970년 7월, 장선(주부클럽 안양지회 초대회장)에 의해 시흥군지부가 창립되었다. 방송을 통해 주부클럽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직접 「주부클럽연합회」를 찾아가 장선이 당시 회장이었던 이철경과 김천주 총무에게 지부 창립 희망 의사를 표현, 시흥군지부 결성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읍민관(현 안양

2동사무소)에서 성대하게 창립총회를 개최, 활동을 하던 중 안양시 승격으로 인해 1974년 6월에 안양시로 이관되었다.

활동사

「주부클럽」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70년대에는 불우아동 기금 조성, 주부들 직업 알선, 결혼상담 및 가족계획사업 등을 벌였는데, 이 시기 안양지회의 대표적 활동이라면

- 1975 <주부와 가족계획> 세미나 참가
- 1976 불우아동 기금을 위해 바자회 개최
- 1977 주부들 직업 알선
- 1978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 가입
- 1979 결식아동 급식 보조비 지급 시작을 들 수 있다.

80년대에는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미아찾아주기 운동, 올림픽 자원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년대별로 살펴보면,

- 1980 결혼상담부 7주년 기념행사 참석
- 1981 제1회 본회 사업평가회 참석



1970년 7월 주부클럽 시흥군지부 창립총회가 안양읍민관에서 개최되었다.(안양읍민관은 현재 안양2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다)



창립총회 축하 합창(1970. 7)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1982.11)



'고부간 터놓고 이야기하기' 강연을 마치고(1982)



미아방지 이름표 달아주기(1990.9)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을 마치고(1992)

- 1982 제1회 소비 주간 전시회 참석
- 1983 취약지구 주민을 위한 이동고발 시작
- 1984 제1회 지부 대표자 연수
- 1985 <아름다운 내 집 가꾸기> 캠페인
사랑의 양식 보내기
- 1986 미아 찾아주기 운동 전개
식품 제조년 월일 표기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
안토론회 참석
- 1987 시유, 유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
- 1988 올림픽 자원봉사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
- 1989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음란, 폭행 추방을 위한 세미나 참석
<고부간 터놓고 이야기하기> 강연회 참석

90년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운동에 역점을 두었다. 90년대로

들어서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물자의 낭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던 것이다.

「대한주부클럽 안양지회」는 중앙연합회 회의에 참석,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시작했다. 1990년 6월 10일 빨강(태우는 쓰레기), 노랑(음식물찌꺼기), 검정(타지 않는 쓰레기) 삼색의 봉투를 만들어 호계동 주공아파트 부녀회를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봉투를 전달해 준 것을 시작으로 방문 홍보활동, 길거리 캠페인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 베비라 아동복의 협찬을 얻어 매년 5월 초에 벽산 (현, 아울렛) 앞에서 어린이들의 앞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기도 했다. 사회환경이 변하여 이제는 필요성을 상실해 버려 더이상 지속되지는 않고 있다.

97년 하반기 IMF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 기업체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 실

업자 구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생활 대책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주부클럽」에서는 실업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지도 보조교사 파견>을 위임 받았다. 실업이 확인된 사람의 가족(부인이나 딸)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어린이방 등의 보조교사로 파견시키는 일이다. 1단계를 3개월로 하여 1년에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99년 처음 1단계에서는 20~25명이었으나 그 수가 차츰 감소되어 2001년 현재 8명을 파견하였다.

2000년 3월2일에는 안양5동 사무소 강당에서 <예절교육>을 개강. 예절, 한복 입는 법, 다도, 제사상 차리기 등 5개월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안양시장 관사에 「예절교육관」이 설치되자 2000년 8월 15일 1기 수료식을 끝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또 해마다 5월 17일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관으로 <사임당행사>가 경복궁에서 치루어지는데, 전국 각 지회 지부가 참석하여 각자의 재능을 다듬고 겨루는 행사이다. 「안양지

회」에서는 1989년, 1995년 민예품 부분에서 회원 박현정이 장려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윤옥희 외 10명이 참가, 북춤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0~2001년까지의 활동 내역을 년도별로 간추려 보면

1990	<생활용품 나누어 쓰기>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간담회 및 견학
1991	<강물을 살립니다> 캠페인 <가정 교육 부활의 해> 세미나
1992	공명선거 전국 캠페인 자원 재활용 캠페인 실시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
1993	환경보호 캠페인 전국 우수 유기 농축산물전 참가
1994	<식품 포장재 되돌려 주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1990.6.28)



수입상품 안쓰기 캠페인(1992)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2000.7)



화장 유언납기기 설문조사(2000.10.5)

1995 물가안정 캠페인 참가
 <지구사랑 우리 농토 살리기> 캠페인 참가
 1996 녹색조명 보급 운동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토론회
 수입제품 보유 현황 의식 조사
 건전 소비 생활과 국제 경제 강연회 참석
 가스 안전 의식 세미나 참석
 1997 <미아 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
 <가스 얼마나 무서운가> 캠페인
 재활용품 활용하기(재활용 처리장 견학)
 음식물 및 쓰레기 줄이기(난지도 포화상태)
 물 아껴 쓰기(정수장 방문)
 수입 상품 안쓰기 캠페인
 쓰레기 처리 방법(소각장 방문)
 소녀 가장 결연 맺기
 독거 노인 찾아보고 돕기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보육원 및 미아보호소 방문
 북한 아이들 우유 보내기 운동
 유기농법 현장 체험(팔당 덕소 마을)
 1998 모자 가정 세대 방문
 경기도 체육대회 급식 봉사
 실직자 접수 봉사
 포도봉지 싸주기 일일 봉사(동편마을)
 의정부 수해지구 봉사(장안동)
 독거노인 방송국 견학(KBS)
 전남 고흥 교직 연수원에서 교육
 포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시회 및 토론회
 결식 아동돕기 쌀 모으기
 1999. 1. 10 공공근로자 생활 지도자 교육 참가
 3. 9 공공근로 2단계 파견
 5. 17 신사임당 행사 참가



저소득아동 방과 후 보조교사 간담회(1999.4.29)



알뜰벼룩시장(2001.4)



제1기 예절교육(2000.3~8, 안양5동 동사무소)



미아보호소 어린이 머리 이발(2001.7.5)

- 장기자랑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림대 목욕봉사, 복지회관 목욕봉사
- 장묘 문화 견학
- 7. 12 공공근로 3단계 파견
- 7. 21 「대한주부클럽 안양지회」 현판식
- 8. 8 연천 수해복구 봉사
- 9. 1 가스안전 기기에 대한 사용자 의식 조사
- 10. 11 공공근로 4단계 파견
- 10. 25 중산층 안전 대책과 시민 단체의 역할 토론회
- 10. 29 장묘, 가족묘 모형 전시
- 2000. 1. 10 공공근로자 1단계 파견
- 3. 2 예절교육 개강식
- 4. 2 공공근로자 2단계 파견
- 4. 18 사무실 이전(안양7동)
- 5. 17 신사임당 행사 참가
- 기금조성 위한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판매
- 6. 1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 6. 22 주부클럽 단합대회
- 7.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 8. 예절 교육 1기 수료식
- 9. 장묘 문화 설문지 조사 운동
- 10. 5 「화장 유언 남기기」 설문조사
- 11. 장묘 문화 개선 납골당 현장 학습
- 12. 14 에너지 절약 교육
- 12. 25 미아보호소 선물 증정

- 2001. 1. 9 공공근로 1단계 24명 파견
- 2. 비누 만들기, 미숫가루 판매-기금 모으기
- 3. 안뜰 벼룩시장 기금 마련
- 「주부클럽」 전국지도자 연수 교육 참가
- 4. 13 양산 통도사 힐튼호텔에서 지도자 연수교육
- 5. 17 경복궁 신사임당 행사 참가
- 6. 주부클럽 단합회 1일 역사교육(문경세계)
- 7. 석수동 수해복구 2일 봉사
- 11. 공공근로 4단계 8명 파견

1999년까지는 사무실 없이 활동하다가 1999년 7월 21일 안양2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 18일 사무실을 안양7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원들간의 협력이 원활해졌다. 회원들이 모여 재활동 비누를 만들고, 이 기금으로 봉사 활동도 하며 회원들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장선(1970~1975), 2대 장다복(1976~1979), 3대 백봉금(1980~1983), 4대 이계향(1984~1986), 5대 이수자(1987~1989), 6대 박용희(1990~1991), 7대 조정자(1992~1994), 8대 정애영(1995~1995), 9대 유지연(1996~1998), 10대 윤옥희이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주부클럽 안양지회」
사무실 현판식(1999.7.21)



적십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운동

1. 국제적십자운동의 탄생



국제적십자운동의 탄생은 1859년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스위스의 청년 실업가 [앙리 뉘낭]에 의해 싹트었다. 1859년 6월 사업상의 일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지방을 여행하던 [뉘낭]은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 사이의 참혹한 전투가 막 끝난 카스틸료네 마을에 도착했다. 많은 전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참상에 충격을 받은 [뉘낭]은 솔페리노 전쟁의 비참함과 그의 체험을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어 1862년 11월 출판했는데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이 책속에서 [뉘낭]은 부상병자를 간호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자격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평시에 각 국내에 설치할 것과 군대의 부상자를 돌보는 군의료요원들과 군물품을 보호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약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뉘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네바공익협회의 [귀스타브 므와니에]회장, [기욤 뢰프르]장군, [루이 아빠아]박사, [테오도르 모노아]박사가 [뉘낭]과 함께 오늘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전신인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 (일명 5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의 초청으로 16개국 대표가 모인 회의가 1863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국제회의에서 10개 조문의 적십자규약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적십자 운동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2.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선포되었고, 그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수용되었음을 상기하며, 사랑과 봉사정신에 따라 적십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제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 | |
|------------------|---|
| 인도(Humanity) | ▶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으며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을 보장하는데 있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
| 공평(Impartiality) | ▶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
| 중립(Neutrality) | ▶ 적십자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 |

독립(Independence)

며, 어느 때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십자는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필수 (Voluntary Service)

▶ 적십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

단일(Unity)

▶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맑은 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편(Universality)

▶ 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한적십자 회

우리나라 적십자 운동의 역사는 대한제국정부 당시인 1903년(광무 7년) 1월 8일자로 최초의 적십자조약인 “육지전투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가입과 그해 2월 7일 “1899년의 헤이그협약” 서명으로 적십자를 이해하게 되어,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이 반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09년, 일본의 침략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강압에 의해 폐지되고 일본적십자사로 합병되는 비운을 겪었으나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해 7월 13일 “대한적십자회” 설립인가로 부활되어 항일 무력투쟁을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외지의 동포 환자를 돕는 의료·간호활동을 전개하였다.

8·15 광복 직후부터 국내에서 전개된 적십자사 재건운동은 1947년 3월 15일 “조선적십자사”로 결실을 보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49년 4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법률 제25호로 공포됨으로써 같은 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는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재건된지 불과 8개월만에 6·25동란이 발발하였고 대한적십자사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전시 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동란이 끝난 1955년 5월 26일에 JCRC에 적십자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월 28일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국제적십자 회원국이 되었다. 법률 공포 38년만인 1987년 12월 4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내용이 전면 개정되어 법률 제 3988호로 공포되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기구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국무총리를 명예부총재로 추대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전국대의원 총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8인, 국회에서 위촉하는 12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하는 각2인,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각6인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취임되고 기타 임원은 부총재 2인, 재정감독 1인, 법률고문 1인을 둔다.

대한적십자사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에 적십자 사업기관으로 병원, 혈액원, 회관, 봉사관 등이 전국 각지에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사무는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기획관리실, 총무부, 사회봉사부, 청소년부, 의료사업부, 국제부, 이산가족사업부, 홍보실, 감사실, 혈액사업본부에서 집행하며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역시 및 각도의 13개 지사와 혈액원 16개소, 병원 7개소, 기타 교육원, 혈액제제연구소,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조직으로는 청년·부녀·장년·노년층으로 구성된 일반지역·직장봉사회와 각 사업부서별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기능을 보유한 전문봉사회, 초·중·고·대학의 청소년적십자(RCY), 그리고 각종 사업 후원조직 등이 있다.





대한적십자 안양 봉사회

설립목적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 and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활동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특색사업

주부 노래부르기사업(매주 수요일)
딸들의 캠프(년1회)
장학금 전달
지역사회 봉사

대한적십자 안양봉사회는...

활동사

「대한적십자 안양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로 「안양시어머니배구단」을 주축으로 1977년 3월 15일에 발족되었다. 4월 15일에 초대 임원(회장 김신자, 부회장 서신자, 총무 안지숙)을 선출하고, 4월 29일 〈시·군 연합 발대식〉에 전 회원(11명)이 모두 참석, 적십자기와 홍장, 깃지, 봉사복을 수여받고 봉사원 임무를 배우는 것으로 「안양봉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안양지역에 큰 홍수가 났다. 1977년 7월 8일 하루동안 무려 454.5mm의 폭우가 쏟아져 안양천이 범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안양봉사회」 봉사원들은 40일동안 196명이 1,128시간을 청소와 세탁, 그리고 급수봉사, 천막타카소 운영 등 수재해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수제민 돕기 특별봉사 유공단체로 〈보건사회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새로운 봉사일감을 개발, 사회 봉사 활동에 발전을 꾀한 1979년은 「안양봉사회」 제2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충무용사촌」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충무용사촌」은 복지사업과 재활체육활동 등을 통해 장애를 극복,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부상 당한 전역 병사들이 모인 곳으로, 「안양봉사회」 봉사원들은 봄, 가을

로 위안잔치를 열어 그들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매년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족같은 친밀감을 나누었다.

뿐만아니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마련,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일조를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능력 강화를 통해 1981년 10월 11일에는 〈경기도내 적십자 부녀봉사회 간부협의회〉를 안양 관광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한적십자사」가 1983년 KBS 텔레비전과 함께 벌인 〈이산가족찾기 운동〉에서의 봉사도 기억할 만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서울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혈육을 찾기 위해 밀려든 인파 속에서 노란 봉사복을 입은 「안양봉사회」 봉사원들은 이산가족의 편의를 돕는 봉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급수봉사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무렵 급수봉사는 한쪽에 석유콘로나 부르스타를 가져다 놓고 노란 알미늄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인 다음 그것을 다시 식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봉사였다.

경기도 북부의 청평, 일동 소재 군병원을 위문하면서 1985년부터 매년 봄이면 5.8행사를 열었다. 적십자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장기자랑 대회, 백화점놀이 등 다양한 병사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봉사원들이 손수 만든 음식과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방문, 그들에게 따스한 엄마들의 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5.8행사이다.

그리고 지금의 「만안여성회관」 앞에 있던 청소년 고등공민



적십자 봉사회 시·군 연합발대식에 참가. 선서를 하는 모습(1977.4.29)



1977년 안양지역에 홍수 발생. 수해 현장에서 급수봉사를 하였다.(1977.7)

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라면을 끓여주었다. 「대한적십자 경기지사」에서 라면을 공급해 주고, 봉사원들은 2~3명씩조를 짜 근로학생들을 위해 매일 저녁 라면을 끓였고, 또한 해마다 연말이면 모범직업청소년들을 위한 푸짐한 음식을 마련,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1986년 「홀트후원회」가 창립되었는데 「안양봉사회」 봉사원들은 후원회에 참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곳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숙연한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또 이때부터 안양시는 매년 관내 3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육원 아동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안양의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보육원 아동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준비해 간 점심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등 일일부모 역할을 하는 뜻깊은 행사로 「적십자 안양봉사회」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88올림픽에서는 안양을 통과하는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해 급수봉사를 하였고, 올림픽 1개월 뒤에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봉사원 6명이 「장애인올림픽 자원봉사회」의 일원이 되

어 15일동안 경기보조, 안내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올림픽 자원봉사 유공단체로 안양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9년 안양시 주관 「전국 기능대회」가 안양공고에서 개최되었을 때는 참가 선수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료로 격려해주었으며, 인도 수녀들이 경영하는 양로원(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양시 향토음식 발굴대회〉에서는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문말자의 아이디어로 ‘닭갈비 무침’을 개발, 판매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1990년대로 들어서자 대한적십자사는 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위해 안전, 보건 및 혈액,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홍보, 환경의 7개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안양봉사회」도 이에 따라 각 분과별로 나누어 수해지역 일손 돕기, 군부대 김장해주기, 환경보호 캠페인과 헌혈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 여름, 경기 북부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가재도구가 떠내려가 취사가 불가능한 수재민들을 위해 안양시에서



시설아동 방문(1977)



집배원 위안잔치(1978. 12. 8)



안양 노인학교 세탁봉사(1979)



군병원 위로 방문(1979.2)

는 그릇을 수집, 한 가구분씩 분류 BOX에 담아 수해지역에 보내주는 <사랑의 그릇 나누기> 운동을 벌였는데 「적십자 안양봉사회」 봉사원들은 그릇을 풀어서 다시 분류하고 담는 작업에 열심을 다해 동참하였다. 2000년 7월, 폭우로 인해 안양 2동, 석수동 등 여러 곳이 침수되었을 때도 3일간 2,000명에 이르는 수재민에게 급식봉사와 빨래 등의 봉사를 하였다.

또 99년 7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지원하는 쌀 각 10Kg과 「안양봉사회」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매월 쌀10Kg과 계란 1판씩을 60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또 99년 9월, 사할린에서 귀화한 동포들의 집단 거주지인 안산을 찾아가 위문품인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밖에도 「안양봉사회」에는 아주 특별한 특색사업이 있는데 <노래 부르기> 사업과 <딸들의 캠프>가 바로 그것이다.

1996년 가을, 「안양시 여성과」로부터 <노래 부르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월례회에서 사업 시작을 결정했다. 그리고 장소는 「동안여성회관」 3층 강당, 시간은 매주 수요일 1시, 강사는 이화숙, 수강료는 3달(12주)에 25,000원씩으로 정해 1996년 11월 14일, <노래 부르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업은 계속 적자로 누적되지만 했다.

다음해 5월 월례회의에서 <노래 부르기> 사업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남대희 전회장이 20만원을 선뜻 기부하자 이것을 계기로 홍광식 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스폰서를 자진,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고, 이화숙 강사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강료를 내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 안양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여성회관」 측에 다른 개설과목의 수강 신청을 받을 때 <노래 부르기> 수강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덕분에 <노래 부르기> 사업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1997년 12월 22일 안양적십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관내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날 봉사원들은 손수 만든 음식으로 부패상을 차려 내빈,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 이제는 매 총회 때마다 따뜻한 부패상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1년 1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적십자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 중이다.

<딸들의 캠프>는 관내 여자중학교 학생 80명을 모집, 「적십자 연수원(수원)」에서 2박 3일을 함께 하는 활동이다. 여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과 가치관 확립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고, 협동정신을 배우는 조별 행사,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기 자랑, 촛불 의식 등을 통해 인생의 경건함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간마다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세심한 배려로 보살피고 있다. 1998년 7월 28일에 시작돼 2001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딸들의 캠프>는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2000년 5월, 이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관내 여성 50명을 모집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산모와 아기 돌보기> 교육을 시작, 2002년 현재 4차까지 성황리에 수료식을 마쳤다.

적십자에는 봉사시간에 따라 시간표창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안양봉사회」는 1992년 「세계 적십자의 날」, 자진봉사 20,000시간으로(안양적십자 총전원 총 봉사시간)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994년 11월 「경기도 연차대회」에서는 자진봉사 30,000시간으로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2000년 「대한적십자 95주년 연차대회」에서 <5만시간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적십자안양봉사회」의 역대회장은 1대 김신자(1977~1979), 2대~4대 김경선(1979~1985), 5대~6대 남대희(1985~1988), 7대 문말자(1988~1990), 8대 김명순(1990~1992), 9대 김정희(1992~1994), 10대 박미자(1994~1995), 11대 홍광식(1996~1997), 12대 홍방표(1998~2000)이며, 13대 송재숙이 2000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안양에는 「안양봉사회」 외에도 4개의 단위 봉사회가 있다. 1992년 평촌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안양의 인구가 급증, 봉사회 증설이 요구되어지자 만안구, 동안구에 각각 「만안봉사회」, 「동안봉사회」가 창립되었고, 다시 2001년 7월18일에 「좋은봉사회」, 「동그라미봉사회」가 창립됨으로 해서, 5개이상의 단위봉사회 대표들이 모여 구성하는 지구협의회회가 안양에도 결성되었는데, 그동안 「안양봉사회」의 적극 지원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양시 지구협의회」 초대회장에는 「안양봉사회」 10대 회장을 역임한 박미자가 선출되었다.

또한 호계 신사거리에 교육실과 회의실, 사무실이 갖추어진 100여평의 「중앙봉사관」을 개관, 회관건립 기금으로 조금씩 모아왔던 돈, 500여만원으로 사무실 내에 집기류를 구입하였다. 이곳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안양적십자의 산실이 될 것이다.

연혁

1977. 3. 15 경기도 시·군 부녀봉사회 신규조직 계획에 따라 김신자와 10명이 입회, 「적십자 안양봉사회」가 발족됨.
1977. 4. 15 초대회장에 김신자, 부회장 서진자, 총무에 안지숙이 선출.
1977. 4. 29 「적십자 시·군 연합 발대식」에 참석, 적십자기와 홍장, 뺏지, 봉사복을 수여 받음.
1977. 7. 9 안양시 홍수. 40일간 198명의 봉사회원이 1128시간 동안 수재민돕기 봉사 실시
1977. 8. 11 수재민 돕기 특별봉사 유공단체로 보건사회부 장관상을 수상
1978. 「탁구협회 회장기 쟁탈 탁구대회」 입상
1978. 12. 8 집배원 위안잔치
1979. 3. 17 정기총회 -2대 회장으로 김경선 선출
1981. 4. 17 정기총회 -3대 회장으로 김경선 재선
1981. 10. 11 경기도내 적십자 부녀봉사회 간부협의회를 안양관광호텔에서 개최.
-「충무용사촌」 방문, 봄 가을에 걸쳐 위안잔치 열.
1983. 3. 17 정기총회 -4대 회장으로 김경선 삼선
1985. 3. 18 정기총회 -5대 회장으로 남대희 선출
1987. 3. 17 정기총회 -6대 회장으로 남대희 재선
1988. 9. '88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한 급수봉사
1988. 10. 4 「올림픽 자원봉사 유공단체」로 안양시장상 수상
1988. 12. 28 정기총회 -7대 문말자 회장 취임
1990. 12. 17 정기총회 -8대 김명순 회장 취임
1992. 11. 5 세계적십자의 날
자진봉사시간 20,000시간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부터 기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음
1992. 11. 17 정기총회 -9대 김정희 회장 취임
1994. 11. 11 경기도 년차대회에서 자진봉사 30,000시간으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 수여받음
1994. 11. 16 정기총회 -10대 박미자 회장 취임
1996. 2. 15 안양미화원 위안잔치.
안양시장으로부터 유공단체 감사패를 받음
1996. 11. 14 <노래부르기> 사업 시작(매주 수요일 · 강사/이화숙). 2001년 12월 현재까지 진행 중.
1996. 12. 6 정기총회 -11대 홍랑식 회장 취임
1997. 12. 22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노래부르기> 사업 수익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15명에게 장학금 전달(450만원 소요)
1998. 7.27~29 적십자자연수원에서 2박3일간 안양시 관내 여중생을 위한 <딸들의 캠프>를 시작
(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998. 11. 17 정기총회 -12대 홍방표 회장 취임
1999. 3. 자연보호 캠페인을 지속사업으로 시작
1999. 7. 백미 각 10Kg(적십자 지원)과 생필품(안양봉사회)을 관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
1999. 7. 27~30 제2회 <딸들의 캠프> 실시
1999. 11. 19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
1999. 11. 적십자 회관 건립기금 조성 시작
2000. 4. 경기도 모범단체상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수상

- 2000. 5. 1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2000. 7. 29~8. 3 3회 <딸들의 캠프> 천안에서 실시
- 2000. 11. 16 정기총회 -13대 송재숙 회장 취임
- 2000. 11. 1 대한적십자 95주년 연차대회에서 5만시간 단체상을 수상
- 2000. 11. 6~8 2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
- 2000. 11. 16 창립 23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 2000. 5. 9~11 3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
- 2001년 년중 매월 백미 각 10Kg과 달걀 1판을 어려운 이웃 60가구에 전달
- 2001. 6. 적십자사 회관 건립기금 예치
- 2001. 7. 18 지구협의회 결성지원과 좋은 봉사회와 동그라미봉사회 창단지원
지구협의회 회장으로 안양적십자 봉사회 10대 회장인 박미자 취임

- 이 밖에도 시설아동 위로방문, 군병원 위로방문, 집배원 위안잔치, 각종 행사의 급수봉사, 수해지역 봉사, 노인학교 세탁 봉사, 헌혈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등의 많은 구호사업과 사회봉사 현장 활동에 참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안양적십자 봉사회>의 어제와 오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전달자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 안양봉사회」는 그 전달자 역할을 맡고 있다.



구호품 전달(1980)



귀화 사할린동포 중추질 위문(98.9)

적십자 정신을 바탕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자원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홀트일산복지타운」 방문(1980.5.19)



군 병원 생일축하 잔치



「충무용사촌」 사람들과의 친선 탁구대회(1981)



장학금 전달식(2000. 11.16)



안양시 석수동 소재 인도수녀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양로원) 위문 방문(90.4)



안양시 주최 <보육원 아동 체육대회>에서 일일 엄마 되어주기(1987.5)



2001년 100만그루 나무심기/은행나무 터널 만들기



모범직업청소년 위안회(1983.2)



미화원 위안잔치(1996.2)

급수봉사, 자원봉사, 합동결혼식, 장학금 전달 등등등...



〈4,000만 이산가족찾기〉 접수 및 급수봉사(1982)



〈88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한 급수봉사



〈'88장애자올림픽〉 자원봉사(1988.10.15)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1987.9.16)



청계공동묘지 수해복구 급식봉사(1997.8)



「적십자 안양봉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1997.12.22)

적십자 안양봉사회에 특별한 사업



관내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딸들을 위한 캠프>



<노래부르기>의 강사와 함께(1997.12.26)



「안양시여성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2000.5)

자진 봉사상 수상자

5000시간/김경선

3000시간/남대희 김명순 문말자 조영부 박미자 홍랑식 홍방표

2000시간/김정희 송제숙 김경숙 김문중 계성숙 김정자 윤원자

1000시간/전경순 박혜란 이정애 김순자 이승복



시민축제(2001.10)



대한적십자 동안 봉사회

설립목적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 and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활동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특색사업

전통맛살리기 장담그기
자녀와 함께 봉사하기
저소득층 구호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

대한적십자 동안 봉사회는...

활 동 사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로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으로,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웃,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항상 함께하며 따뜻한 인간애를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가꾸는데 앞장서고 인도(Humanity), 공평(Impartiality), 중립(Neutrality), 독립(Imdependence), 봉사(Voluntary Service), 단일(Unity), 보편(Universality) 제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특성에 맞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1994년 2월 4일 「대한적십자 동안부녀봉사회」가 발족, 2000년 4월에 「안양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당해 7월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분과, 청소년분과, 장애노인분과, 홍보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통 맛 살리기 장담고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2월~4월에 실시하며 순수 우리콩 메주와 생수로 된장을 담그어 50일동안 매일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는 정성으로 된장, 간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년에 2명씩 학자금 전액을 보조하는데 대상 선정은 안양시 동안구 관내 학교에 의뢰하고 있다.

1998년에 시작한 이 <전통 맛 살리기>는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의 특색사업으로 국민일보(1998. 5. 20), 내일신문(2001. 1. 18)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가르치고 인성 발달을 돕고자 함께 봉사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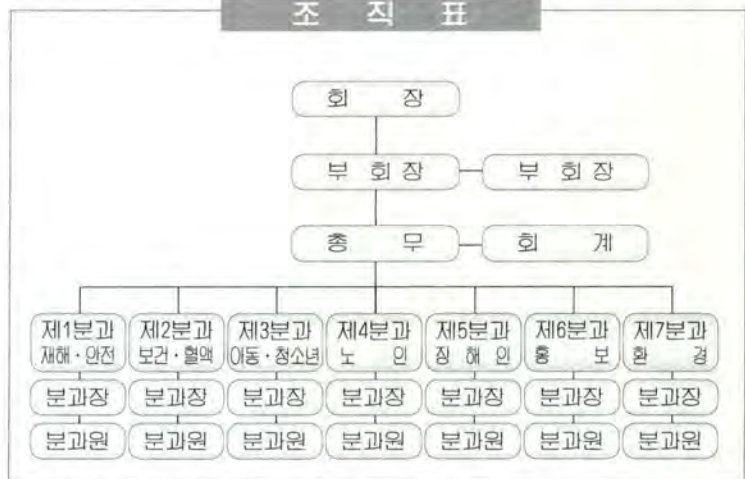
을 갖는데,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봉사의 느낌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관내 10개동의 일반 저소득층과 실직 가정 60가정에 쌀 10kg 1포식을 월 1회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호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2001년, 전진상회관의 의뢰를 받아,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간의 합동결혼식에 신부부케와 식장 꽃장식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매년 실시해서 민간외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계획이다.

역대회장은 1~2대 한상완(1994.2~1996. 11), 3대 엄정희(1996. 12~1998.11), 4대 이순표(1998. 12.~2000. 11), 5대 김혜옥이 2000년 12월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조 직 표



1994. 2. 4 - 「동안부녀봉사회」 예비모임으로 총 19명 중 15명 참석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 초대회장/한상완
부회장/김윤희, 이재선
총무/이순표, 회계/김길자
- <동안부녀봉사회칙안> 세워 결의, 통과하다.
- 총 19명중 15명 참석하여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구청장, 적십자 경기도 지사 회장 및 내빈과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동안부녀봉사회」가 발족되다.
1994. 6. 14 - 월례회의에서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4개부서로 편성하다.
- 총무부, 사업부, 친교부, 교육부
1994. 12. 27 임원회에서 6월 14일 신설한 4개부서를 대한적십자봉사의 분과인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분과, 청소년분과, 장애인·노인분과, 홍보과로 명칭을 바꾸고 재편성하였다.
- 이인실씨 개인사정으로 탈퇴하여 총회원 18명되다.
1994. 12. 29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경기도 일산 「홀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하였으나 교통난 등으로 중단하다.
('94. 4 ~ '94. 12)
1995. 1. 10 제1차 정기 총회 개최(동안구청 회의실)
1995. 2. 7 정경자 회원이 8명 추천(신현덕, 김순안, 배경자, 최은숙, 오미순, 이수련, 김미옥, 김경숙), 이순표 총무가 1명 추천(조경례) 전회원이 입회를 찬성하여 총회원 27명되다.
- 소녀가장돕기 봉사로 비산동 임곡아파트 중3 홍성희 학생에게 「이산재단 지원금」 월 15만원씩 지원키로 하다.
1995. 3. 14 안양시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내의 경로식당 봉사를 매월 셋째, 넷째 화요일 봉사하기로 하다.
1995. 4. <아시아 태평양 봉사대회>에 김길자, 정경자, 김혜옥 참석하다(잠실체육관).
1995. 7. 평촌 「헌혈의 집」에 매월 첫째 월요일 헌혈캠페인 봉사키로 하다.
1995. 11. 2 동안구 14개동 63명을 초청하여 노인복지회관 강당에서 독거노인 위안 잔치를 베풀다.
1995. 11. 22 96년도 임원 선출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회장/한상완, 부회장/이재선, 임정희, 총무/이순표, 회계/김길자
1995. 12. 13 제2차 정기총회 개최(동안구 회의실)



동안부녀봉사회 결성



1995년 11월 2일, 노인회관 강당에서 있었던 독거노인 위안잔치

1996. 1. 9 회원 증원에 대해 3회 봉사, 입회비 5만원으로 결정. 회원은 3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다.
1996. 12. 17 제3차 정기총회(시청회의실) 97년도 임원 선출하다. 회장/임정희, 부회장/김길자, 방명애, 총무/이난영, 회계/이수련
- 월 회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결정하여 '97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하다.
1997. 5. 27 회원간 단합을 위해 단합대회를 양평에서 갖다.
1997. 10. 31 「'97년 지사연차대회」에서 이순표회원이 500시간이상 봉사상을 수상하다.

1997. 11. 11~13 1997년도 특별봉사로 독거노인 가정에 양곡 20kg와 라면 1상자씩 회원의 자녀와 함께 지원봉사하다.
1997. 11. 25 제4차 정기총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98년 중점사업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사업에 두다.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다.
1998. 2. 26 지역봉사로 <전통장 담궈주기> 사업하다.
1998. 5. 20 <간장 된장 전통을 되살린다>로 국민일보에 기사화 되다.
1998. 6. 12 실직자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월1회씩 7회 봉사하다(수원시 장안구).
1998. 8. 2 수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급식봉사에 부식제공 활동하다(안양공동묘지)
1998. 10. 30 '98년 특별봉사로 모자가정에 도배를 해주다.
1998. 11. 5 '98년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서 봉사상을 수상하다.
(1,000시간이상 / 한상완, 김길자, 500시간 이상/엄정희,이재선, 이난영, 250시간 이상/신현덕, 이수련)
1998. 11. 10 임시총회를 갖고 임원을 개선하다.
회장/이순표, 부회장/김길자, 이난영, 총무/김혜옥, 회계/김성희
1998. 12. 8 제5차 정기총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임원 이·취임식을 갖다.
1999. 3. 4 <전통 맛살리기 장 담그기> 사업을 실시하여 메주 151말을 담그다.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쓰기로 하고 예치하다.
1999. 3. 20 저소득층 구호사업으로 10개동에 쌀 3포씩 전달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과 봉사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 왼쪽/전북 장수마을에서 고추밭 매기 ▲ 오른쪽/「홀트 아동복지회」봉사 후

아시아 태평양지역 적십자 봉사원 대회

대한적십자 창립 90주년 기념 <아시아 태평양지역 봉사원 대회>가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과 교육문화 회관에서 있었다.

김길자 정경자 김혜옥 참석(1995. 5. 10~5. 15)



연차대회/매년 10월~11월 사이에 열리는 <연차대회>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제 4회 연차대회 모습(1997. 5. 2)



정기총회/ 제6차 정기총회 모습(1999.11.23)



전통 맛 살리기(된장,간장 담그기)

우리의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콩과 생수,소금으로 된장, 간장을 담가 판매, 그 이익금으로 장학 생을 돕고 있다(1998. 2~)

- 1999. 4. 27 춘계 회원단합대회를 과천 청소년수련원에서 갖다.
- 1999. 7. 20 하계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를 전북 장수군 장수마을에서 고추밭을 매는 농촌일손돕기 봉사를 하다.
- 1999. 8. 연천 수해복구지원 봉사하다.
- 1999. 10. 27 추계 단합대회를 강화도에서 갖다.
- 1999. 11. 3 <'99년 지사 연차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봉사상을 수상하다.
(단체 1만시간 봉사 수상, 1,000시간 이상/엄정희, 500시간 이상/김혜옥, 장옥금, 250시간 이상/김영란, 이연휘, 최은희, 길영숙, 이주연, 김성희 방명애, 오미순)
- 1999. 11. 23 제6차 정기총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각 부서별로 중점사업을 한가지씩 실시하다
- 2000. 2. 24~25 제3차 전통 맛살리기 장담그기 사업을 실시하다.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예치하다.
- 2000. 3.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하는 푸드뱅크에 회원과 차량을 월1회 지원 봉사하다.
- 2000. 4.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다.
- 2000. 7. 「대한적십자사 동안봉사회」로 명칭을 변경하다.
- 2000. 10. 31 2000년도 새임원을 개선하다.
회장/김혜옥, 부회장/이난영, 오미순, 총무/김성희, 회계/최은희
- 2000. 11. 1 2000년도 「대한적십자경기지사 연차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봉사상 수상하다.
봉사활동: 2,000시간 이상/김길자, 1,000시간이상/이순표, 이난영, 김혜옥,
500시간 이상/최은희, 이연휘, 김영란, 신현덕
- 2000. 11. 28 <전통장담그기> 사업 수익금으로 평촌중학교 모범생 오인식, 김희라에게 1년동안 수업료를 지급하기로 하다.
- 2000. 11. 28 제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다.



장애인 가정 방 꾸미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도배로 깨끗이 단장하여 꿈과 사랑을 전하다(98.10.30)



노숙자 무료급식

실직 노숙자에게 용기를 주고자 급식을 실시하여 격려하다(1998. 7)



대한적십자 만안 봉사회

설립목적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량한 사회풍토 조성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활동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는...

활동사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봉사회 증설이 요구되어져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의 시·군·구 부녀봉사회 신규조직 계획에 따라 창립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이다.

뜻을 함께하는 회원 20명이 1994년 6월 27일 조직 준비회의를 거쳐 초대회장으로 조위태, 부회장 이명자, 김미숙, 총무 장숙희를 선출하고 「만안부녀봉사회 회칙안」 결의 통과 및 94년 7월 5일 결성식을 갖기로 결정하여 7월 5일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총회원 29명과, 구청장, 적십자 경기도지사장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창립되었다.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기구에 준하여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홍보분과, 환경분과의 7개 분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회원들이 각자 주어진 분과에서 최

선을 다하고 있다.

「만안봉사회」는 적십자 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공급하는 쌀을 관내 11개동 불우이웃을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고, 재해 현장에서의 급식봉사, 구호품(담요, 생필품) 전달,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밖에도 매월 규칙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첫주 월요일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식사준비, 둘째 화요일은 안양유원지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며, 또한 4개조로 편성, 돌아가면서 비산동 「동방남부일시아동보호소」에서 아이들의 간식 및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2대 조위태(1994.7.5~1998. 11.15), 3대 이명자(1998.11.15~2000.11.17)이며 4대 설옥자가 2000.11. 17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봉사원 23명이 활동 중이다.

부진한 적십자회비모금에 팔 걷고 나선 자원봉사자

안양 만안적십자봉사회, '텔레마케팅' 홍보활동 펼쳐

적십자회비모금이 예년의 87%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요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구 적십자봉사회에서도 홍보캠페인 등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시청소식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만안적십자봉사회는 민간구청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회비관련 각종 민원전화안내와 회비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이란 평을 듣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텔레마케팅」 개념의 능동적인 재원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현재 적십자회비모금은 우편발송비 부담으로 인해 각 지역의 동·반장들을

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로용지 배부 업무를 협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안적십자봉사원들은 각 지역 모금위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전화를 하는 한편,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답변 전화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적십자회비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안적십자봉사회의 실용자회장은 「적십자회비가 없다면 적십자



△ 단양구청에서 적극적인 텔레마케팅에 나선 안양 만안봉사원들



▲ 안양지역 적십자봉사원들이 안양시 안양2동 수해현장에서 이재민급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혁

- 1994. 6. 27 뜻을 함께 하는 회원 20명이 모여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 조직을 위한 준비회의
- 1994. 7. 5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 창립 총회, 초대회장으로 조위태 선출
- 1994. 12. 19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1995. 5. 1 7개 분과(재해안전, 보건혈액,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홍보, 환경) 편성
- 1995. 5. 5 청와대 <어린이날 기념잔치>에 참석, 봉사.
- 1995. 5. 9 「아시아 태평양 적십자 봉사원대회」에 참가, 총무 허숙희 통역 봉사
- 1995. 11. 3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차대회」 참가(회장 조위태, 총무 허숙희)
- 1995. 11. 20 제2차 정기총회
- 1996. 4. 18 자연보호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 결의
- 1996. 5. 3 독거노인 200여명을 초대, 문예회관에서 경로 위안잔치
- 1996. 10. 21 제2대 임원선출, 회장에 조위태 연임
- 1996. 12. 6 제3차 정기총회
- 1997. 3. 19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인 「바울선교원(석수2동 소재)」 방문, 장애인 돕기 재활용비누 만들.
- 1997. 4. 11 「아시아 태평양 적십자 봉사원대회」 참가
- 1997. 11. 21 제4차 정기총회
- 1998. 8. 2 청계공동묘지 수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작업 중인 군장병에게 급식 제공
- 1998. 11. 15 제5차 정기총회, 3대 회장으로 이명자 선출
- 1998. 11. 군경 방문, 위문품 전달
- 1999. 8. 연천군 수해현장 복구사업 지원
- 1999. 9. 17 「안양시여성단체 협의회」 가입
- 1999. 11. 회원 단합대회(설악산 2박 3일)
- 1999. 11. 19 제6차 정기총회
- 1999. 11. 석수2동 소재 「바울선교원」(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김장봉사
- 2000. 4. 26 박달1동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담요와 생필품)
- 2000. 7. 20 석수1동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담요와 생필품)
- 2000. 7. 단체명변경/「대한적십자사 안양만안부녀봉사회」를 「안양만안봉사회」로 개칭
- 2000. 8. 17 헌혈캠페인 - 만안구청



「대한적십자 만안부녀봉사회」 결성식(1994.7.5)



제3기 봉사원지도자 과정(1999.3.8~3.11)

2000. 9. 26 「가평 꽃동네」 환우 돕기 봉사
2000. 11. 1 연차대회에서 김숙희봉사원 시간봉사상 표창(2,000시간)
2000. 11. 17 제7차 정기총회, 제4대 임원 선출
회장/설옥자, 부회장/안오진, 박영순, 총무/김인희, 회계/정순이
설옥자 회장 공적상 수상/훈격(안양시장)
2000. 11. 23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비산동 소재) 봉사 시작(월 4~5회)
2001. 1. 18 <적십자 회비> 모금 시작(텔레마케팅, 가두캠페인)
2001. 2.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에 봉사활동
2001. 5. 18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비산동 소재) 의류 전달
2001. 6. 13 경기도내 회장단 연수(재해 수재민돕기 교육) 참가
2001. 6. 26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의 봉사원 기본교육 참가
2001. 7. 18 대한적십자 봉사회 5개단체 결성식(안양,만안,동안,좋은,동그라미봉사회)
2001. 8. 18 괴산 고추 축제 방문
2001. 8. 28 안양2동 수재민돕기 활동으로 설옥자 회장이 만안구청장 표창
2001. 9. 18 중추절을 맞아 비산동 소재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에 소품 전달
2001. 9. 26 안산의 귀국 사할린 동포 방문, 떡과 선물 전달
2001. 10. 22 안양의 독거노인 80분을 모시고 「이천 도자기 엑스포」로 가을나들이
2001. 10. 30 농촌 일손 돕기 활동(괴산→사과파기)
2001. 11. 2 연차대회에서 설옥자,이명자(2000시간), 정순이(1000시간), 김윤경,이순옥,최기영,김옥현, 최춘우(250시간) 시간봉사상 표창
2001. 11. 18 만안구 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66개 가구에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제공하는 쌀 10Kg씩을 전달



제7차 정기총회에서의 봉사원 서약(2000.11.17)



안양지구협의회(안양,만안,동안,좋은봉사회, 동그라미봉사회) 합동 결성식(2001.7.18)

사진으로 보는 <만안봉사회>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의 손길을...

적십자 봉사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사회봉사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석수2동 「바울선교원」(비인가사회복지시설) 김장봉사(1998.11)



군경 급식봉사를 위한 준비 중(98.8.2)



연천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급식봉사(1999.8.5)



「만안 노인복지회관」 식당 봉사(2000.8.3)



〈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 행사에 봉사 활동



헌혈캠페인(200.1.30)



「경기도 동방남부 아동 일시보호소」 봉사(2001.5.14)



안양유원지 자연보호 캠페인(2000.12.12)



「가평 꽃동네」현장 체험 봉사(2000.10.12)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1997.1.24)



사할린동포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2001. 9. 25)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년차대회(1995.11.3)



「안양평촌우체국」 자원봉사요원 환송 간담회(1995.12.19)



괴산군 농촌일손돕기 〈사과 따기〉 봉사



「아시아태평양 적십자봉사원 대회」 참가(1997.4.11)

시간봉사상 수상자

2000시간/이명자 설옥자 김숙희

1000시간/조위태 김영숙 박영순 안오진 배달영 김인희 정순이 최제분



전몰군경 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로 도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들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사업
정부의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회원의 자활 정착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물군경미망인회는...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는 전물군경의 유족 중 미망인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년 8월 12일 46명의 설립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마치고 원호 처장의 승인을 받아 9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1062호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립 당시의 조직은 본부 외에 시·도청 소재지에 지부와 시·군·구에 지회를 두었다. 이에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는 1977년 11월 14일 원호처 법률 1389호에 의거 창립되었으며, 1988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에서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로 개칭하였다.

역대 회장은 초대 권중흡(1977.11~1979.10), 2대 박서월(1980.10~1999.1), 3대 김군자(1999.1~2000.2), 4대 박강현(2000.2~2000.9)이며 5대 최은덕이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회장은 소속 지부인 경기도지부장이 임명한다. 현재 회원은 40명으로 사무실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등 단체와 함께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혁

1977. 11. 14	원호처 법률 1389호에 의거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설립.
	회원은 22명. 초대회장으로 권중흡 선출.
1979. 5. 17	미망인회 단합대회(부산, 경주, 1박2일)
1979. 10. 5	초대회장 권중흡 도지부 사무장에 임명됨으로 2대 회장에 박서월 선출
1979. 12.	정기총회 개최
1988. 12. 3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가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로 개칭
1995. 7. 14	「보훈회관」 입주
	미망인회 사무실 현판식
1999. 1. 1	3대회장 김군자 취임
1999. 4.	회원 휴양대회(충주 보훈휴양소)
2000. 2. 1	4대회장 박강현 취임
2000. 9. 1	5대회장 최은덕 취임
2001. 2. 22	회원 단합대회(충주 휴양소)



충혼탑 주변을 청소하는 회원들



보훈의 달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

활동사

「대한민국 전문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좌경용공세력 규탄 궐기대회, 남북대화 촉구 등 대국민 홍보활동,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 대국민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 보훈원 양로소 등 불우 회원을 위문하는 등 상부상조 활동과 일선장병 위문 등 수범 활동을 전개한다.
- 매년 UN참전 16개국 참전기념비와 UN묘지를 순례 참배하여 타국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우방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 다른 여성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불법 무질서 추방, 건전사회 기풍 진작, 근검·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동 운동의 범국민 확산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시국 안정 촉구 활동, 전투경찰 위문활동, 공명선거 제도활동과 함께 나라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그 밖에도 민주의식에 부응하는 체질 개선과 단체 회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명실공히 보훈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 사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8. 6. 6	현중일 행사(용화사/안양2동 소재) 매년 실시
1978. 8. 15	조기대청소 참여(역전 광장)
1978. 11. 5	원호양로원 방문, 떡·과일 전달
1980. 1.	매월 1일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청소, 매월 5일 정기 월례회 개최
1981. 12.	사랑의 손길 펴기 (절미 운동으로 무의탁 회원 돕기)
1982. 2.	보훈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
1983. 4.	안보대책 설명회
1984. 5.	자연보호 캠페인(안양유원지)
1985. 11.	농촌 일손 돕기(벼베기/용인)
1986. 5. 13	'88올림픽 손님맞이 대청소 실시 (수원장안공원)
1986. 6. 25	미망인 1일 위로회 (대전국립묘지, 계룡산)
1986. 8. 12	'86 아시안게임 손님맞이 급수 봉사
1986. 11. 11	상이군경회 전상고령 회원 환영식 (뉴코리아호텔)
1987. 4.	보훈가족 돕기 음식 바자회(팔죽판매)
1988. 9.	향토시장 음식 봉사(팔죽)
1988. 11.	보훈청 재활원 및 양로원 김장 봉사
1989. 5.	시국안정 호소문 배포
1989. 6.	유엔참전비 순례



보훈회관 헌판식(1995.7.14)



박서월회장이 회원에게 '장한어머니상'을 주고 있다.

1990. 4.	대학생 시위 중단 촉구대회 (한양대학교 정문 앞)	1997. 6. 14	보훈의달 위안회(육군사관학교) 회원 30명 참석
1990. 10.	중추절 양노소 방문(보훈원 양노소)	1997. 6. 20	보훈의달 위안 행사(안양시장 초청)
1991. 12.	국군장병 위문(경기도 관내 주둔 부대)	1997. 7. 31	국가안보태세 함양을 위한 땅굴 견학
1991. 3. 18	건전사회 실천 운동 캠페인(벽산쇼핑 앞)	1997. 8. 28	대한민국 국호 무시발언의원 규탄 대회 (중앙공원)
1991. 7. 16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1991. 9. 9	안양시 전경 방문 위문품 전달 (돼지 3마리)	1997. 9. 4	안양시의회 방문 (보훈단체 지원금 협조 요청)
1992. 3. 10	안양시 공명선거 캠페인(전철역)	1998. 4. 5	보훈가족 식목 행사(보훈회관 주변)
1992. 3. 23	안양시 공명선거 간담회 개최(연민관)	1999. 4.	회원 휴양대회(충주보훈휴양소)
1992. 10. 9	〈조선남로당 사건〉 규탄 대회	1999. 6. 19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화성용주사)
1992. 8. 21	6·25 참전자 특별연금 지급 향의 시위		
1995. 6. 6	현충일 추념식(현충탑)	2000. 6. 6	제45회 현충일 행사(충혼탑)
1996. 6. 15	유엔 격전지 견학	2001. 3. 6	안양 보훈산악회(수덕사)
1996. 10.	불우회원 및 고령회원 위로방문	2001. 4. 24	전적지 순례(공주동학사, 대전국립묘지)

- 매년 5월 회원병사 위문(장기투병자 1명)
- 매년 6월 관내 13개 유엔 참전기념비 순례 참배

- 매년 6월 고령회원 위문(불우고령회원 1명)
- 매년 6월 현충일 추념식(현충탑)

현충일 추념식



안양6동 소재 충혼탑에서



가신님의 넋을 위로하며 분향...

UN참전기념비 순례 참배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를 순례 참배하는 회원들...(2000)



위문 활동



군부대 위문품 전달(1991)



불우회원 위로 방문(1986)

기 타 활 동



내 집앞 내가 쓸기



식목일 기념 보훈단체 식목행사(1998.4)



자연보호 활동(1996)



여성단체들과 함께 <올림픽맞이 바른질서지키기> 거리캠페인(1988)



충훈탑 참배(1995)

안양 청년회의소 8 월 정기 이사회



안양 JC 부인회

설립목적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안양 JC인의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현대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강좌 및 모든 지식을 배워 훌륭한 아내로서 JC 활동을 하는 남편의 훌륭한 내조자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

JC 활동에 대한 참가 및 내조
부인회원 상호 이해와 친목증진 도모
부인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실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활동 협력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안양 JC 부인회는...

'77년 11월 초순경 부터 김행웅(안양JC 9대)회장과 회원 다수, 그리고 부인들이 모여 수차 협의를 하여 JC 부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안양JC부인회」를 조직하기로 계획, 안양JC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명칭을 「안양JC부인회」로 하기로 하고 창립 준비를 시작하였다.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초안을 김행웅 회장과 사무국장 송청웅 회우, 권운상 이사, 기획위원인 한삼석 회우가 상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였고, 11월 24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1977년 말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특히 JC에서는 197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JC에서 JC부인회를 관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부인회를 지도, 보조하고 있다.

「안양JC부인회」의 설립 연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혁

- 1969년 7월 26일 제3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회」 심의를 거쳐 50번째로 「안양청년회의소」가 인준됨.
- 1977년 11월 초 김행웅회장(안양JC 9대회장)과 JC 회원 다수, 그리고 부인들간 수차의 협의를 통하여 JC 부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획 수립함.
- 1977년 11월 「안양JC」 이사회의 의결을 보아 공식 명

칭은 「안양JC부인회」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이춘자 회우를 선임하여 창립에 따른 준비를 함.

- 1977년 11월 24일 사무국에서 JC 회장단 및 다수의 회원과 부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안양JC부인회」가 출범함(초대회장/이춘자, 명예회장/김인제(당해년도 JC회장 부인)).
- 1977년 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그후 「안양JC부인회」는 「안양JC」와 별도로 1대~4대 이춘자(1977~1980), 5대~6대 계성숙(1981~1982), 7대 홍랑식(1983), 8대 홍방표(1984), 9대~10대 김선화(1985~1986), 11대~12대 정금우(1987~1988), 13대 이희복(1989~1990), 14대 박명순(1991), 15대~16대 이재선(1992~1993년), 17대 김영옥(1994), 18대 황영자(1995), 19대 강영미(1996), 20대 유경애(1997), 21대 강경실(1998)을 회장으로 선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년이 라는 짧은 기간의 회장직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도래되면서 1999년부터 명예회장(JC 현역 회장부인)이 부인회 회장직도 겸직기로 결정, 시행하였으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활발한 활동이 되지 못하였고 3년간의 긴 공백을 보내던 중 2002년 박증근 부인회장의 취임으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안양JC 부인회 창립 3주년 기념식



안양JC 부인회 창립 5주년 기념식

활동사

「안양JC부인회」는 월별, 분기별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JC 신조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조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JC 활동에 대한 참가 및 내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활동 협력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 증진 도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글짓기대회만 하더라도 시 부문에서 이재선, 이희복 역대회장이 장원을 하였고, 계성숙, 이선자, 정경자도 수상 경력이 있다(안양JC 20년사).

「안양JC부인회」 활동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적인 JC 부인회 행사

- 1월 JC 척사대회
-당해년도 JC 회장 주관으로 전회원 참가
- 2월 「유스 JC」와 합동으로 <일일찻집> 개최

- 3~4월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안양시 관내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하여 생필품 및 학용품 전달 (예/탁구대)
- 5월 어린이를 위한 전기족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개최, <안양음악제> 개최
- 6월 각 지구별 체육대회, 회원대회 참석
- 7~8월 3박 4일에 걸친 하계수련대회 및 무의촌 진료, 낙도어린이 학용품 전달
- 9월 자연보호 캠페인 및 등산대회
- 10월 각종 전국회원대회 참가
-1980년 12월 「안양JC부인회」가 전국 최우수 부인회원상 수상
- 12월 「안양JC부인회」 창립기념식 및 합동 송년회
- 분기별 •소질계발을 위한 교양강좌 개최
-연사초청 세미나
-취미, 꽃꽂이, 양초공예, 박공예, 요리
•자매JC와의 교류
•낙도 어린이 초청 민박



JC 척사대회



가족 체육대회



만들기 강습회



무의촌 진료봉사도 함께

활동 간추림

- 1977.12. 3 제1회 <안양음악제>에 참석
- 1977.12.10 <안양JC 창립기념식> 때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설치
홍방표회우 최우수부인상 수상
- 1978. 2. 2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개최
(「유스JC」와 함께)
- 1978. 2.19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비산동 소재 「평화보육원」 방문,
탁구대 1조, 학용품 및 다과 기증
- 1978. 4.24 사무국에서 요리강습 개최
- 1978. 5. 8 제1회 <안양시여성글짓기대회> 참가,
계성숙 감사 장려상 수상
- 1978.10. 6 제27차 <전국 회원 대회> 9명 참석
- 1978.10.20 <안양음악제> 참석
- 1978.11. 4 안양시탁구협회 주최 <탁구회장배 탁구대회> 여성단체 부문에 출전 우승
- 1979. 1. 안양시에서 선정한 1명에게 매달 5,000원 씩 후원회비를 분기별로 지급
- 1979. 2. 6 「유스JC」와 함께 「안양중앙다방」에서 제2회 <이웃돕기 일일찻집> 개최
- 1979. 2.13 고천국민학교 졸업식 때 고천 나자로분교 6학년 유친군어린이 입학금 전달
- 1979. 3. 4 2차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안양기독보육원」을 방문하여 탁구대 1조와 학용품 증정, 다과류를 준비하여 오락회를

를 개최

- 1979. 3.25 월례회의 겸 어린이보호 및 반공세미나 참석(연사/이사용 서울JC회원·김신조 귀순용사)
- 1979. 4.24 꽃꽂이 실습
- 1979. 5. 6 삼양빌라에서 JC회원 가족 야유회 개최
- 1979. 5.13 경기지구 제이씨 축구대회 참가
- 1979. 6.19 중고품 교환설치, 운영 준비
- 1979. 6.22 근로자회관에서 물물교환 실시
(총 26,110원 수입)
- 1979. 9.14 「안양JC」 창립 10주년 기념식 거행
- 1979.10.21 무의촌 진료 협조
(군자면 정황리 오이도/내과,외과,치과)
- 1980. 2. 고아원 방문을 위한 일일 찻집개최
- 1980. 4. 전방시찰 국군 장병위문
- 1980. 7. 무의촌진료 낙도 어린이 돕기
- 1980. 7.31 태안JC와 합동 하계수련대회 및 충남거야도에서 무의촌 진료 및 낙도어린이에게 학용품, 생필품 전달
- 1980.12.12 창립 11주년 기념식 때 <전국회원대회>에서 「안양JC부인회」가 최우수상 수상
- 1981. 3.15 무궁화사진 전시회(일주일)
-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 참여
- 1981. 5. 5 어린이를 위한 전가족 야유회 거행
선물 주기와 운동회 등 즐거운 시간 보냄
- 1981. 6.11 부인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
(꽃꽂이,양조공예,사탕공예,박공예 등)
- 1982. 2. 「동안양JC부인회」 창립 기념식 참석
- 1982. 6.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참석



꽃바구니 만들기 공예강습을 마치고 꽃보다 더 예쁜 마음도 함께...



JC회원 가족 체육대회

- 1982. 7.24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하계수련회 및 무의촌진료, 선물 전달
- 1982. 9. 중추절 선물 전달(보육원)
- 1983. 5. <모범직업청소년 위안회> 개최
- 1983. 6.28 수원지방검찰청 부봉후 검사의 <법률 세미나> 참석
- 1983.12. 소년소녀가장 연말 위안잔치
- 1984. 2.19 일일찾집 수익금으로 「평화보육원」 방문, 세탁기 전달
- 1985.10.31 안양시 주관 <저소득 가정 합동결혼식> 개최(~87년까지 계속)
- 1986. 5. 여성글짓기대회 시부문 장원 (이재선회원)
- 1986. 5. 제10회 <안양 음악제> 개최
- 1986. 6.15 경기지구 가족 종합체전 (김포공설운동장)
- 1986.10. <저소득 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 1987. 4. 2 안양본백화점에서 소년가장을 돕기 위한 서경보박사전(서화전) 수익금으로(250만원 상당) 17명의 소녀소년가정에게 혜택
- 1987. 7.30 충남 서산 안흥국교 가이도 분교와 자매결연
- 1987.10.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 1988. 1. 전가족 관악산 등반대회
- 1988. 2.28 가이도 분교생 19명, 교사 2명, 학부형 1명을 초청하여 서울, 독립기념관 견학 후 회원 가정에서 민박 후 정을 나누고 선물 증정
- 1988. 4.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 1988.11. 짓갈바자회 개최(본백화점)
- 1989. 4. 1인 1권 책 읽기 운동 전개
- 1989. 6. 탁구대회, 볼링대회 우승
- 1989. 9. 독후감 모집 시상
- 1990. 3. 독거노인 자매결연 3명 매달후원
- 1990. 5. <바른 삶 실천대회> 개최
- 1991. 5. 제15회 <안양음악제> 개최
- 1991. 7. 회원 하계수련대회
- 1991. 9. 환경보호캠페인
- 1992. 2. 여성볼링단 창단(주1회볼링연습)
- 1992. 5. 회원 자질향상 공예강습(화관 만들기)
- 1992.10. 1인 1통장 갖기 운동 전개
- 1993. 2. 회원친선척사대회 개최
- 1993. 5.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강습 개최
- 1993. 8. 김소환 명절 보내기 캠페인
- 1993.12. 안양시여성단체 저축운동 1등상 수상 (상금30만원)
- 1994. 3. 회원 자질 향상 꽃꽂이 강습 개최
- 1994. 5. 10개룸 친선체육대회 참석
- 1995. 4. 봄철 피부 손질 강습회 개최
- 1995. 5. 시설연합체육대회 참가 봉사
- 1996. 5. 제20회 <안양음악제> 개최
- 1996. 9. 회원 친선 체육대회
- 1997. 5. 알뜰 벼룩시장 참석 운영
- 1997. 6. <백만가정 한 마음 통장 갖기> 운동
- 1998. 8. 자매JC교류회(충남태안)
- 1998. 8. <사랑의 그릇 나누기> 운동 참여
- 1998. 9. 환경시설 견학



정기월례회를 마치고 잠깐...



최우수부인회원상 수상



홈스테이 사업으로 일본 무생 자매 JC를 방문한 안양JC 회원 자녀



안양JC를 방문한 중국 신죽JC와의 홈스테이 환영회(1997.8)



안양시청을 견학하는 안양JC회원 자녀들과 일본무생JC 자녀들

봉사의 현장



모범직업청소년 위안회 개최(1983.5)



JC부인회 주최 영세부부 합동결혼식(1985.10.31)



보육시설 방문 추석선물 전달



농촌일손돕기(포도봉지 색우기 작업을 마친 후)



시민의 날, 급수봉사에 나선 JC부인회원들(1992)



환경살리기도 우리 몫이죠(1993)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부
안양지역연맹

설립목적

대한민국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계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을 통한 국제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이해와 우의를 증진함.

기본원칙

- 하나님에 대한 의무
- 타인을 위한 봉사
- 걸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의 실천
- 자원지도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봉사에 의한 운영
- 반활동, 도전장, 기능장 취득활동, 야외활동을 통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종교, 정치로부터의 독립
- 국가에 대한 의무
- 세계 우애와 자매애

활동목표

1. 자아 개발 /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 발전시킴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
2. 건전한 인간관계/성숙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익히고, 단체생활에서의 지도력을 기른다.
3. 자연과의 친화 / 야외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모든 생물들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사회에 대한 기여 /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미래에 대한 준비 / 창의적인 태도와 생활에 유능한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부안양지역연맹은...

「한국걸스카우트」는 우리 나라 유일의 소녀·여성 사회교육단체이자 운동체로서 만 4세부터의 대한민국 소녀라면 누구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민들레대/학령전 유아, 유년대/초등학교, 소녀대/중학교, 연장대/고등학교, 연구대/대학교, 일반/지역대) 활동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첫번째 걸스카우팅은 한소제 박사에 의해 광주에서 조직된 소녀1대였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1957년 세계연합회 준회원국으로 인준되었다가 1963년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1969년 <스카우트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활동이 국가의 법률로 확고히 뒷받침 받고 있는 단체이다.

<스카우트 육성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된 단체는 1980년대에 이르러 16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증가한 단체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묶어 줄 작은 연합단위가 요구되면서 지구연합회 조직이 적극 추진되었다.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는 1981년 5월 28일 설립, 1982년 6월 1일 인준되었으며, 초대 이청형(1981. 5. 28~1985. 7. 2), 2대 황영희(1985. 7. 5~1991. 5. 27), 3대 방유자(1991. 5. 27~1993. 11)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는 1982년 10월 5일, 불우한 소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걸스카우트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해 안양소년원의 「선화대」를 발족하였다.

또, 1986년 1월에는 초등학교 자모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성인1대」를 발족하였는데, 지도자 기본강습을 필한 초등학교

교 자모들이 성인대로 재구성되어 대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협조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성인대 발족은 1990년 9월 25일까지 성인 6대가 발족되었으며, 중앙본부에서 시상하는 <전국우수지구 연합회>(1987. 5. 11), <최우수지구연합회>(1988. 6. 3) 표창을 받았다.

1993년은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에게 의미있는 한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걸스카우트」는 조직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행정적 독립과 재정자립을 갖춘 지역연맹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안양에 신도시(평촌)가 들어서면서 대원수가 급증(총대원 4,327명)하여 「안양지구연합회」의 조직이 확대되자, 1993년 11월 14일, 「안양지구연합회」를 「경기안양지역연맹」으로 승격, 전국 최초의 지역연맹이 되었다. 연맹 승격 후 각 성인대를 재구성하고, 유치원생들로 조직된 민들레대를 조직하고, 국제 야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초대 연맹장에는 2대 위원장 황영희가 취임하였고, 2대 안승순(1997. 11. 15~1998. 11. 14), 3대 김승자가 19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연맹장을 맡고 있다.

1995년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김현숙 대장, 1996년 「법계초등학교」의 강인숙 훈련강사, 1997년 「비산초등학교」 오이환 훈련강사, 1998년 「연현초등학교」 박화숙 훈련강사가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신기중학교」의 최순자 훈련강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11월23일에는 안양시로부터 <우수봉사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걸스카우트는 국제적인 운동체로 141개국 1,000만 명의 소녀들이 걸스카우트로 활동하고 있다.

Girl Scout에서 Girl은 소녀, Scout는 정찰병이라는 뜻으로 전투에서의 적의 동태를 알아내 작전계획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엘경은 소년들과 함께 한 야영을 통해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에 감명을 받아 보이 스카우트를 창설하고 이어 걸가이드(Girl Guide)를 창설하였다. 장차 가정에서 어머니가 될 소녀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기대하기 위해서 였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이겨내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안내자(Guide)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 걸스카우트라 불리게 되었고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민들레대, 유녀대, 소녀대, 연장대...

위 오른쪽/체육대회
왼쪽/유녀대 합동 하계야영대회

아래 오른쪽/국제야영대회(1995.8.10~14)
왼쪽/과학놀이 한마당

▼ 자연보호



스카우트의 역할

걸스카우트 지도자의 역할

걸스카우트 지도자는 사회교육분야에 속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자원봉사분야는 실로 광대한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다. 아동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직업훈련분야, 특수교육봉사분야, 보건의료분야, 공동모금분야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봉사들도 있으나 걸스카우트 지도자들은 비교적 전문적인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세계적인 청소년 사회교육단체인 걸스카우트 연맹의 운동원들이며 정신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목표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원봉사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되며 차원을 높여서 이 나라의 소녀들이 걸스카우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내일의 어머니도 여성지

도자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겠다.

이와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그 능력이 걸스카우트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확실하게 한 몫을 하는 지도력을 키워지게 노력할 수 있는 분, 걸스카우트연맹은 잘 훈련된 지도자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임무수행에 적합한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의 교육적 요구는 지도력 개발이다. 이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과 창의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로서 다양한 자원봉사자 훈련을 널리 확산 시켜야 한다.

어머님의 역할

소녀들의 교육은 소년들의 교육의 4배의 교육효과가 있다. 자

신과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의 주역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방향을 계속하는 일의 반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사회의 절반은 정의롭고 사랑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자각하고 걸스카우트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단체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민주사회의 과수꾼이 되어야 하겠다.

걸스카우트 대원의 역할

- 제복을 바르게 입고 다닌다.
- 대중 앞에서 예절바르게 행동하도록 소녀들에게 권장한다.
- 대 집회 후 집회장소를 집회전보다 더 깨끗이 한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사회단체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 공공장소에서 걸스카우트의 여러측면을 보여주는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숨어있는 장기를 힘껏 발휘한다.
- 일반 청소년 대상 하이킹, 야영, 캠프 행사에 참여하고 스카우트를 친구와 함께 참가토록 한다.

연맹 사무국

- 대를 조직하고 대를 육성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대방문, 대조직, 대운영지도 등)
- 대 연합활동을 지원하며 지구행사를 주관한다.
- 지방연맹, 중앙본부행사 및 사업에 협조한다.
- 지구연합회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
- 스카우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원, 대장과 모든 스카우트 봉사자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조 직 표



민들레대 예절캠프, 손바닥 찍기하는 모습



유녀대 보장훈련/손재주(2001.5.12~13)



▲ 소녀대 합동선서식(2000.5.12)

◀ 연장대 스카우트 항공학교 체험활동(2001.6.9~10)

연혁

- 1981. 5. 28 안양지구연합회 설립, 초대 이청형위원장 취임
- 1982. 6. 1 안양지구연합회 인준
- 1982. 10. 5 안양소년원(신화대)발족
 - 불우한 소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또 사회에서 나아가 올바른 정신함양으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스카우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교육·훈련하기 위함
- 1985. 7. 2 제2대 황영희 위원장 취임
- 1986. 8. 1 안양지구 성인1대 발족
 - 초등학교 자모회장을 역임한 지도자로 구성(13명)
- 1987. 5. 23 전국우수지구 연합회 표창
- 1988. 5. 11 최우수 지구연합회 표창
- 1988. 6. 3 안양지구연합회 사무국 개설
- 1990. 9. 25 안양지구 성인6대 발족(4명)
- 1991. 4. 5 안양걸스카우트신문「초록신문」1호 발간
 - 연 1회 발행되는 「초록신문」은 안양지역연맹의 사업보고와 새로운 사업계획 등 스카우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연간지이다.
- 1991. 5. 27 제3대 방유자위원장 취임
- 1992.~현재 각 대 회장단 모임 구성
 - 초등학교 자모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도자 기본강습을 필하고 각 대의 대원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조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함.
- 1993. 1. 안양지역연맹 승격을 위한 대원조직 강화



매월 개최되는 「연맹실행위원회」



군부대 1일 입대한 성인대(1996. 6. 18)

1993. 11. 14 경기안양지역연맹으로 승격, 전국 최초 지역연맹이 됨.(총대원 4,327명)
- 연맹 창립, 초대 연맹장으로 황영희 취임
1994. 3. 24 안양「G.S수품방」개설(안양8동 도정오피스텔 1205-6호)
1994. 5. 21 93년도 각 회장단으로「성인1대」재구성
1994. 6. 10 「성인6대」재구성(안양 부흥초등학교 협조지도자)
- 「G.S수품방」운영시 4월 한달동안 대원 단복 판매를 무료 봉사 함
- 안양시 주관 행사에 안내봉사를 도맡아 함.
1995. 5. 20 「민들레대」조직(벨엘유치원, 색동유치원 외)
- 유치원생들로 구성
1995. 8. 10~14 지역연맹 중 최초로〈소·연장대 국제야영대회〉개최(홍콩대원 17명)
- 홍콩대원(소·연장대) 17명을 초청 4박 5일 동안 민박을 통하여 서로의 국민성과 문화성을 교류하는 데 앞장을 섬
1996. 9.~현재 「선화대」예절교육 및 예쁜송편빚기 대회, 2000년 현재 제 4회가 됨.
-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소녀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을 바르게 입고 올바른 자세로 절(평절, 큰절)하는 법을 배우고 송편예쁘게 빚기대회를 열어 시상함으로서 선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1997. 11. 15 제2대 안승순연맹장 취임식 및 노래부르기 축제
1998. 1. 26 연맹사무국 및 안양수품방 이전(만안구 안양5동 627-92호)
1998. 7.~현재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 여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기 진작과 전산의식을 제공,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함.
1998. 11. 14 제3대 김승자 연맹장 취임식 및 한마당 큰잔치
1998. 12.~현재 장학제도 신설
- 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줌
1999. 3. 17 과천지역 소속대 편입
- 과천지역의 걸스카우트대원들에게 보다 나은 훈련과 교육 등 편리를 도모하고자 연맹장이 손수 대방문을 하여 안양지역연맹으로 소속을 편입하였다.



안양소년원 '선화대' 예절교육(1993.9.22)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1998년에 신설된 장학제도, 김승자연맹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2000.12.17)



1999년부터 시작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2001년 7월 2일에도 열렸다.



음성 꽃동네 김장봉사(98.11.11)

1999. 6. 20~ 현재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 열기
- IMF를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연중 행사의 하나로 하루찻집을 열어 육성위원의 도움을 받아 얻어진 수익금 전부를 다시 각 대로 환원해 주고 있다.
2000. 7. 20~24 연장대 합동 유적지 탐사
- 안양시 보조금과 대 지원비로 해마다 대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을 찾아 그 고장의 특산물과 전통을 알고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화합을 위해 윤선도 유배지인 보길도로 4박 5일동안 하계야영을 실시 하였다. 이에 해마다 국토기행의 일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을 찾아 야영을 할 계획이다.
2000. 11. 23 우수봉사단체상 수상(안양시)
- 본 연맹의 성인대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단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특히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 권익증진에 이바지 한 공이 크므로 표창함

걸스카우트의 기본이념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걸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표어

준비(Be prepared)

표방

일일 일선(一日一善, Do a Good Turn Daily)

규율

1. 걸스카우트는 진실하다.
2. 걸스카우트는 최선을 다한다.
3. 걸스카우트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4. 걸스카우트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긴다.
5. 걸스카우트는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다.
6. 걸스카우트는 자연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한다.
7. 걸스카우트는 규칙을 잘 지킨다.
8. 걸스카우트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닌다.
9. 걸스카우트는 시간과 물자를 아낀다.
10. 걸스카우트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초록마당

안양 결스카우트

안양 결스카우트

창간호

발행인: 윤 영 희
편집인: 장 효 민
발행처: 한국결스카우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로 111-1
인쇄처: 대원 인쇄

선 서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 다음의
조약을 굳게 지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 주
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
킵니다.

규 율

1. 결스카우트는 친절하다.
2. 결스카우트는 충성한다.
3. 결스카우트는 남을 돕고 유익한 일을 한다.
4. 결스카우트는 우애하며 전세계 사람을 형제로 여긴다.
5. 결스카우트는 예의가 바르다.
6. 결스카우트는 자연을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7. 결스카우트는 순종할 줄 안다.
8. 결스카우트는 쾌활하다.
9. 결스카우트는 겸약하다.
10. 결스카우트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꾼다.



우리고장 지역사찰 학문정대프린팅 수리산에서 90년 16월

—창간호를 내며—

초록마당 탄생



결스카우트 안양지구 위원장 최영희

안양 결스카우트 지구연합회가 어언 10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 일과 보편 살았던 본 내용이 완전하며 절로 된 승인이 마시며 즐거워 합니다. 그동안 사라나는 소년들을 위한 결스카우트는 유실위원회, 대장, 육질이며, 청년대원, 지구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봉사로 고난과 보람 승리와 지름을 승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결스카우트 창간호를 보내게 되어 부족할까 모르지만 무척 기쁜 마음이 한방 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강고 빛은 결스카우트 가족의 일정한 터전위에 각지별, 고을 초록의 색이 뿌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초록의 초록마당이 우리의 탄생, 삶에 흐르는 빛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신자와 믿음으로 살 다름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광장이자 컴퓨터 것입니다. 따스하고 정직한 마음을 초록마당에 펼쳐보는 일과 결스카우트가 되어 봅시다. 다가올 미래는 분명히 훌륭한 결스카우트 정신과 훈련으로 담겨진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넘치는 무적함과 보람만이 계속 이어지길 믿고 초록마당 창간호 발간에 애써주신 결스카우트 가족과 편집위원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사



경기연맹장 최 회 규

백만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살기에 세상은 자꾸자꾸 복잡해집니다. 현대화라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우리의 모습을 잊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배마는 가슴을 축축히 적셔줄 물품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결스카우트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에 한 방울인 한국결스카우트 경기연맹 안양지구연합회가 맑고 아름다운 소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열어 초록마당을 발간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발간되는 결스카우트 경기연맹 안양지구연합회가 우리대원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진실로 유익하고 감동될 수 있으며 스카우트인이라는 긍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최자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잘 맞듯이 아직은 갈고 다듬어진 보석이 아니어도 내일의 꿈을 가꾸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정성된 노력은 더없이 값진 것이며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꽃밭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생활에 늘 긍지감을 갖고 노력하며 주변의 모든이들에게 항상 전할 수 있는 밝은 모습의 결스카우트 경기연맹 안양지구연합회지 초록마당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991. 3. 30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안양시지부

설립목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및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 관련 사업
국제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사업

기타사업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안양시 알뜰 벼룩 시장 참여
- 어려운 이웃돕기(급식근로 자원봉사, 성금기탁 등)
- 각종 캠페인 참여(안양천 정화, 불온전단 수거 등)
- 각종 근로봉사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안양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89년 4월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1954년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타이완의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주도하여 결성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부는 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이 제정 공포되자 1964년 1월 「한국반공연맹」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1989년 정일권(丁一權) 등이 주도하여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국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하였다.

본부기구로는 총회·이사회·사무국이 있고,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15개 지회와 시군구 단위 239개 지부를 두고 있다.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1977년 2월 1일 「한국반공연맹 시흥군지부」에서 분리, 초대 김영애 회장이 회원 45명을 규합,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를 창립하고 1987년 1월 17일 안양1동 동사무소 3층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1989년 4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로, 2001년 1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로 개칭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유수호계도활동과 전쟁 위험 규탄대회, 캠페인 등 범국민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오다가 동서간 냉전 체제가 붕괴된 '90년부터는 우리 체제의 우수성과 폐쇄된 북한사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개선 및 개방촉구, 국민의 화합단결, 올바른 민주시민의 함양과 실천을 계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계도활동의 방법으로는 조직의 회원, 지역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반상회의시 계기 홍보,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자유수호 문예백일장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회원들의 계도활동을 돕기 위해 총연맹 본부 민주시민교육센터 소속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자유수호, 시민의식 계도에 필요한 교육을 년 2회 실

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주민화합 웅변대회, 국민대화합 토론회, 열린마음 열린 사회를 위한 국민화합운동, 민주시민 교양강좌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KFL)」은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및 「아시아 태평양 자유민주연맹(APLFD)」의 집행위원국으로서 유엔 NGO 활동을 통해 각국의 대표들과 국제정세 및 이념 운동의 방향 등에 관해 협력하는 등 민간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도 매년 1월 말 타이베이시에서 열리는 세계 자유의 날(World Freedom Day)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자유수호계도활동 이외에도 아나바다 살생매장 운영, 구판사업, 일일차집 개최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탈북주민, 노숙자, 무의탁노인,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운영한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가전제품, 주방 기구류 등을 수집하여 교환 20,000점, 판매 13,000점의 성과를 이룩하였고 수익금 35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산지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축산물 직거래를 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등을 돕고 있다.

또 1988년부터 '93년도까지 4회에 걸쳐 120쌍의 무료 합동 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112 자유센터(031)453-4511 내에 있으며, 2001년 현재 회원은 22개동 조직 73명이며, 역대회장은 1대~5대 김영애(1987~1996), 6대 전혜숙(1997~1998)이며 7대~8대 서윤희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수상회원(장관상 이상)

- 김영애(84.10.20 내무부장관상/96.12.30, 공보처장관상)
- 전혜숙(90, 제2정부장관상)

연혁

1982. 5. 7.
-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창립
초대회장/김영애, 부회장/강연희
- 1982.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성금모금/심장병어린이돕기 100만원 기탁



일일 군 입대
(1984. 9)



청년마라톤대회
부녀회원 금수봉사
(1988.6.25)

1989. 1.
-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2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동거부부 무료합동 결혼식 거행
1989. 4.
- 「한국반공연맹」에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개명
 - 문익환 북한방문 규탄 및 좌경 세력 척결 규탄 대회 참가(45명)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 소년원 위문
 - 폭력과 무질서 추방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0명 참가)
1991.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3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동거부부 무료 합동결혼식 거행
 - 안양경찰서 전투경찰대, 안양소년원 위문
1993.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4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동거부부 무료합동 결혼식 거행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소년원 위문



문익환 북한방문 규탄 및
작경세력 규탄대회 참가(1989.4.19)



역전에서 폭력과 독선 물리치기 캠페인(1989.5.9)

- 1993. 5. • 안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년간 졸업까지 장학금 전달
- 1995.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5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 소년원 위문
- 6.25남침 제 45주년 범국민 걸기 대회 참가(40명)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30회 600명)
- 1997.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6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24회 1,200명),
- 불온전단 수거 및 자연보호 캠페인(4회 100명)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무의탁노인, 노숙자 무료 급식 지원(25회 1,100명)
- 여성지도자 / 단체육성 관리 세미나 참가
- 청계 공원묘지 수해복구 군병력 급식 지원(60명)



성탄절
모범청소년 위안회



안양소년원 위문,
모범청소년 다과회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봉사
활동 전개.



안양경찰서 방문
과일·양말 전달
(1992년부터...)



불온전단 수거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999.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7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한마음 다짐 야유회
-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 구판 사업
(참기름, 흰떡, 소금 등)
- 불온 전단 수거 및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40명)
- 무의탁 노인, 노숙자 무료급식(20회 1,050명)
- 탈북 주민과 불우이웃돕기 일일찾집 개최
- 관내 보육원 4개소 위문(생필품 50만원)
- 여성회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75명)

2000.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에서 여성회로 개명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 8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한마음 다짐 야유회

2001.

-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 구판 사업(참기름, 흰떡, 소금 등)
- 관내 30개동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 10kg 전달



여성회장 이·취임식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1999.1~2001.7, 만안여성회관 내)



탈북자 가족돕기 하루차집



남양주 소재 지체장애자 보호소에 화재가 발생. 위문품을 가지고 방문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화합 홍보 캠페인 (안고실미) 2001년 Smil-Korea 버튼/타이링스 배포



자유공원 내 환경보호 캠페인



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 17세대에 쌀과 김치 전달(2001.11.28)



인양YWCA

설립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 YWCA는...

「YWCA」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어로서 '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아래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YWCA의 목적문을 통하여 이 사회의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청년운동·여성운동·기독교운동·회원운동·국제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런 활동영역을 갖는 YWCA 운동은 1855년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조직되어 2천 5백만 회원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 YWCA는 여성인권, 여성지위 향상,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초교파 운동체로서 인종차별 철폐와 반전, 평화운동, 환경보전 운동, 난민보호운동, 인류의 건강과 보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세계Y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한국YWCA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창립되어 농촌계몽

운동, 축첩반대, 조혼·공창제 폐지 운동 등 사회계몽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 현재 전국 54개 지방 YWCA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매3년마다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과 방향을 정해 각 지역에서 지역여성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YWCA는 1985년 11월 안양 지역의 기독교여성 11인에 의해 발기모임을 개최하여 1986년 3월 12일 '대한 YWCA 연합회'의 인준을 받아 「안양YWCA」 활동이 시작되었다.

I. 단체현황

1986년 3월 12일 창립된 「안양YWCA」는 지역의 건강한 문화창달을 염원하는 안양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YWCA로 거듭되고 있다.

11명의 간절한 기도로 씨 뿌려진 「안양YWCA」는 창립 16년만에 자체회관 보유와 4,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부속시설의 운영과 함께 청년 YWCA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양YWCA 발대식 및 신입사원 환영 야유회(1988.5.10, 광릉수목원)

1. 회원 현황(회우포함)

구 분	정회원	준회원	계
평 생 회 원	126		126
일 반 회 원	1,389	414	1,803
특 별 회 원	21		21
단 체 회 원	17		17
대 학 Y 회 원	79	40	119
Y-teen회원	318	98	416
어린이회원	1,029	791	1,820
합 계	2,979	1,343	4,322

2. 지도력 현황

〈자원지도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상 임 이 사	27	소비자모니터	3
상 임 위 원	98	청소년지도자	5
자 원 지 도 자	68		
합 계		201	

〈유급지도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사 무 총 장	1	사 무 직	3
부장(시설장)	2	교 사	8
선임간사/간사	2/8	관 리 직	3
합 계		27	

3. 부속시설 현황

시 설 명	사 업 개 시 일	사 업 내 용	기 타
소 비 자 고 발 센 터	1988. 4	소비자 권익 증진 운동	
여성인력개발센터	1995. 7. 27	여성 전문 직업 훈련	여성부 지원
꿈이있는 어린이집	1997. 3. 2	영유아 보육·교육	보건 복지부, 안양시 지원
가정 폭력 상담소	2000. 7. 26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	보건여성부, 안양시 지원

II. 약 사

1) 준비와 제 1기(1978년 3월~1990년)

천천히 그러나 결코 느리지 않게 잎을 무성히 피워 섬을 찾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사랑의 꽃을 피워 슬픈 자에게 기쁨을 나누며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좋은 열매로 그들을 생명으로 배울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기독교여성들이 뜻을 같이하여 1978년 3월 안양지역에 YWCA 발족을 서원했다. 이후 1980년 5월 YWCA 발족을 목표로하는 기도모임을 원금자(전 이사), 최민자(현 이사)의 제안으로 정례적으로 갖던 중 1985년 11월 30일 정어진(전 이사) 외 10명(박선희, 박병관, 방유자, 배미숙, 송난순, 원금자, 이인자, 임명자, 장화자, 한민숙)이 중심이 되어 발기 모임을 개최했다.

1985년 12월 18일 안양근로자회관(현 안양 전,진,상 복지관) 강당에서 준비회의를 갖고 배미숙 준비회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다. 1986년 3월 12일, 안양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매월 월례회를 통한 회원 단합과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1987년 3월 12일 창립 1주년 기념예배와 배미숙 회장을 포함한 신임원을 선출하여 「안양YWCA」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



안양근로자회관 강당에서 YWCA 창립 준비위원회의를 가진 후의 기념촬영(1985.12.18)



〈안양YWCA〉 창립예배
(1986.3.12, 안양상공회의소)

1988년 2월 대한「YWCA연합회」로부터 「클럽 YWCA」로 인준 받고 1988년 4월 소비자교발센터를 개설하여 안양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YWCA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지역내 교회와 교회 여성들에게 YWCA를 홍보하고 참여를 돕기 위해 성서이야기대회, 성서사진 소장전, 교역자 부부 초청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안양YWCA」 활동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후 활발해진 회원 활동의 결과로 「안양 YWCA합창단」 창단, 사진반 등의 클럽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며, 1989년 5월에는 안양 YWCA 신문을 창간하여 초기의 「안양YWCA」 활동들을 알리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배미숙 초대회장을 비롯한 초창기 임원진의 왕성한 활동으로 1990년에는 1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위한 무료야간공부방 개소와 청소년 문화광장을 개관하여 매월 1회씩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에서 역량있는 단체로 부족함이 없는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제2기의 성숙한 YWCA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창립1주년 기념예배 및 임원 취임식(1987.3.12)



바른문화 캠페인(1988.6.11, 벽산쇼핑 앞)



소비자교발센터 개소 후 제2회 소비자교육
(1988.9.8, 벽산쇼핑 4층 전시실)



소비자 모니터 교육(1988.5.1~2)



소비자단체 경제교육(1990.4)



제1기 택아모 교육 수료식(1990.11.1)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문화광장

2) 제 2 기(1991년 3월~1995년)

이 시기의 YWCA 활동은 사회적으로 주제가 되어 온 교육, 환경, 경제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맥을 잡아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 준비회부터 열의에 넘친 「안양YWCA」는 초유의 성장을 하여 창립 4년만에 「클럽Y」에서 「준회원YWCA」로 승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안양지역에서의 YWCA 운동은 더욱 고무되었다. 위와같은 내·외적인 배경을 가진 「안양YWCA」 사업은 성장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인한 소비와 향락, 환경파괴와 교육철학 부재로 인한 교육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란 바른 삶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문제의 본질을 나부터 인식하는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배미숙(1.2대)회장, 송난순(3.4대)회장의 지칠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성과

를 올리기도 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 간 대립 완화를 위한 '남북인간 띠 잇기' 행사와 '북한 실상 바로 알기' 강연회를 진행, 평화운동에 참여했으며 훼손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여성환경아카데미', '어린이 생활환경교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하여 YWCA 목적사업인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바른 교육 세미나, 공동체놀이 보급,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아나바다 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 바른 소비를 위한 소비자교육 등 경제 민족화를 위한 사업도 열심히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회원운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클럽활동과 교육 등 회원의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회원의 자체 역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어울마당/벽화그리기(1995)



학생보호 강연 및 공동체 놀이(1991)



청소년 아나바다 장터



YWCA가 주최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자선음악회>



'생명을 귀하게 살을 새롭게'란 주제로 참석했던 중부지역 회원대회 (1994.6)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식(1995. 7. 27)



여성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97.8.28)

2) 제 3 기(1996년 ~2000년)

평촌신도시 개발로 계속된 안양시 인구유입으로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의 붓물은 양과 질에 있어서 최고조를 달해 1995년 7월 노동부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안양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주체意識이 시민행동양식의 제1원칙으로 자리하여 단체인 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YWCA는 전국대회에서 채택한 “21C를 세계와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와 생명운동과 공동체 운동을 주력사업으로 하였다.

「안양YWCA」는 김지영(5,6대) 회장이 재임하던 시기로 「안양YWCA」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아픔과 고통, 더불어 기쁨이 엮갈린 시기였다. 밖으로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 예상치 못했던 사태의 연발로 「안양YWCA」도 예외없이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1997년 3월부터 「가정폭력방지법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5,253명이 동참해 주었다.

제2기에 전술한 노동부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활발한 운영의 이면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 경매라는 고통이 함께 있어 날마다 성장을 자랑했던 「안양YWCA」는 내부적인 성찰이 더욱 요구됐던 시기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을 전문사업화 하는 영역사업이 많아 사업의 전문성이 더해가고 있다. 제5회를 진행한 「여성 고용정보박람회」, 95년 개소한 여성상담실이 가정폭력상담소로 개칭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여성의 자활을 돕는 「자활의 집」 개원 등 소외여성과 함께 하는 공동체 운영을 실현코자 노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게 하는 YWCA목적사업에 충실하고자 했다.

제3기의 특기할만한 성과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 경매으로 회관(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5-19, 대지 376.9㎡, 건평 1,565.82㎡,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마련의 대과업을 이뤄 또 한번 「안양YWCA」 회원의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회원들의 기도가 열매맺는 기쁨도 있었다.

2) 제 4 기(2001년 ~현재)

2001년 제15회 정기총회시 연임된 유철남 회장의 지도력이 함께 한 시기로 그동안 확대일로로 「안양YWCA」 이념과 정신을 담은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재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 이전과 함께 여성부기관은 그동안 소원했던 사업의 비중강화로 안양시 지방의회 여성의원 배출과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 Network,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 및 직장 내 고충처리 등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꿈이 있는 단체를 위한 일들을 다하고자 한다.



제5회 「여성 고용정보 박람회」
(2000. 10. 11~12, 만안구청 회의실)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판식(2001.6.11)



「경기도청소년상담실」과 「안양YWCA」가 함께 주관한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10년 후 나의 명함 만들기”(안양문예회관)

IV. 사업실적

사 업 명	시행년월일	사 업 내 용
발기인 회의	1985. 11. 30	발기인 구성, 조직경과 보고
YWCA 준비회의	1985. 12. 18	준비위원회 구성, 임원 선출
창립1주년 기념예배 및 신입원 취임식	1987. 3. 2	초대회장 배미숙 선출 사업 심의
소비자고발센터 개소	1988. 4. 2~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소비자 권익보호(총 48,848건 처리)
부활란 배부	1988. 4. 2~	부활의 기쁨을 전달·나눔(16,500개 전달)
교역자부부 초청 간담회	1988. 4. 18	YWCA 홍보 및 협조
무료 취업알선센터 운영	1988. 5	구인·구직 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총 13,272)
안양YWCA 자선음악회	1988. 11. 12	안양YWCA 합창단 자선 공연 (정기공연 총13회, 총 공연횟수 25회, 봉사활동 280회)
소년소녀 가장 돕기	1989. 1~	소년소녀 가장 자립 지원(총 1,248명 지원)
어린이 교육	1989. 3. 14~	265,694명 참석
성인교육강좌	1988. 3. 12~	4,228명 참석
회원 강좌	1988. 3. 12~	5,376명 참석
청소년 야간공부방 개관식	1990. 3. 13	야간무료 학습지도·상담활동(1995. 4 종료)
바른 삶 실천대회	1990. 6. 20~	바른 삶 실천을 위한 교육(4,585명 참석)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1990. 7. 20	우리농산물의 보급, 직거래 운동(5,280명 참석)
아나바다 장터 운영	1990. 10. 20~	중고생활용품 나눔(10회 16,800명 참석)
제5회 정기총회	1991. 1. 16	창립 5주년 기념 및 제4대 회장 송난순 취임
환경보전을 위한 강연회	1991. 3. 13~	환경보호운동의 필요 및 실천운동(700명 참석)
공선행 활동	1991. 3. 5~	공명선거 및 유권자 교육(선거시 한시적 활동)
무료법률 상담	1991. 3. 5~	무료법률 상담 지원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제정 운동	1992. 9. 27~	시민대상 가두서명, 조례 청원
남북인간 띠 잇기 대회	1993. 8. 15~	통일기원 인간 띠 잇기(이후 2회 추가 진행)
여성환경 아카데미	1993. 5. 27~	환경관련 교육, 현장견학(매년 진행)
이순심씨 구명운동	1994. 3~ 6	구명을 위한 가두서명, 방청 활동
바른교육 세미나 및 평화교재 설명회	1994.9. 29~10.13	바른 교육 강의, 평화 교재·완구 설명회
제9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장 취임	1995. 1. 19	정기총회 및 5대 김지영 회장 취임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	1995. 7. 27	여성의 전문 직업 교육 훈련(직업훈련 11,206명, 사회교육 8,189명, 취업알선 7,809명, 시간타카 8,581명)
여성상담실 개관	1995. 7. 27	여성의 고충상담 및 지원 활동(5,886건 상담)
선교무용단 발표회	1995. 12. 2~	무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총 88,467명 참석)
고용박람회	1996. 7. 10~	의정지기 교육, 방청활동(총 2,398명 참석)
어린이집 개원	1996. 6. 3~	영유아 보육활동(총 385명 보육)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시민운동	1997. 3. 2~	가정폭력방지법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총 5,253명 참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1997. 3. 13~	음식물 감량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사 업 명	시행년월일	사 업 내 용
자활의 집 개원	1997. 4. 27 ~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총 206명 이용)
여성단체 봉사상 수상	1997. 7. 3	정무2장관 표창
회관 매입	1998. 6. 25	회관 매입 · 이전
후원의 밤	1998. 9. 24	안양YWCA 홍보 · 단체 Network
제13회 정기총회 및 7대회장 취임	1999. 1. 21	총회 및 유철남 7대회장 취임
창립 13주년 및 회관 이전예배	1999. 3. 12	이전 축하 예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조례청원	1999. 8. 24	조례청원을 위한 교육 · 간담회
결연사업	2000. 3. 3	기업체 후원 “웃 한 벌! 사랑 한 벌!” (소년가장 · 독거노인 지원 바자회)
안양지역 문화역사 지도자 양성	2000. 9. 5 ~ 10.3	강좌 및 안양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자활공동체Network	2000. 11. 7 ~	국민기초 생활 법 시행관련 사회복지 Network
선교무용단 자선공연	2000. 12. 13	자선공연을 통한 선교 및 지원활동
제15회 정기총회	2001. 2. 1	2000년 사업보고 및 2001년 사업심의 신임이사 인준 및 유철남 회장 유임
청소년 14th 축제	2001. 2. 14 ~ 매일	매월 14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예산 돋보기 학교	2001. 4 ~ 5. 31	예산 편성, 예산 분석 활동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판식	2001. 6. 11	현판식 및 운영 보고
제2회 청소년 의정 참여 캠프	2001. 8. 8	청소년 의정지기 활동 및 모의 의회 진행
제2회 웃한벌 사랑두벌 사랑의 장날	2001. 10. 25 ~ 27	직거래 농산물, 공산품 판매를 통한 사회복지 지원 활동
제13회 안양YWCA합창단 자선공연	2001. 11. 13	합창단 자선공연
소비자 보호의 날 대통령상 수상	2001. 12. 5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수공 인정, 대통령상 수상
제7회 선교무용단 자선공연	2001. 12. 15	자선공연을 통한 선교 및 사회복지 지원 활동



여성의용 소방대

설립목적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불조심 홍보사업
독거노인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특색사업

여성 암 정기검진 실시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민간 소방 조직으로 1472년(세종19년)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많이 발생하자 각 고을 동리에 지혜있고 근검한 사람을 뽑아서 순찰을 돌게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도록 한 것이 그 유래라 할 수 있는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고 민방위 본부 발족 후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준칙>이 시행되어 전국적인 의용소방대 조직의 기틀이 세워졌으며, 「여성의용소방대」는 1970년 초반부터 여자소방대 또는 여성소방대라는 명칭으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소방홍보활동을 하였다.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는 1974년 초부터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부녀대원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 1984년 8월 1일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1981.10.29)을 근거로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분리되어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으며, 2001년 1월 1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여성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

고자하는 자율적 단체이지만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소방법 제 86조) 지위를 갖는 단체이기도 하다. 대원들은 매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 발전된 소방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소방전문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난·재해 등의 현장보조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화기취급법, 전기, 가스 등의 안전수칙,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 등 주택화재예방 활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거리질서 캠페인, 도시환경가꾸기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98~99년의 경기북부 수해지역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등에서도 현장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지난 1998년 10월부터는 독거노인을 방문 휴대용발신기, 무선페이징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은 1개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장 1인, 부대장 1인, 홍보부와 구호부의 부장과 반장을 두고 있다. 임용권은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

고, 그 외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역대대장은 1대(1977.1.15~1977.8.26)에 백용주, 2대 신기(1977.8.27~1988.1.15), 3.4대 박정례(1988.1.16~1994.1.11), 5대 오영숙(1994.1.12~1997.7.2), 6.7대 조연순이 1997년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대장직을 맡고 있다.

1989년 7월 15일 경기도 36개 시·군 부녀대 중 최우수부녀대로 표창(임사빈도지사)을 받았다.



안양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1984.8.1)

연혁

1974. 순수한 민간인으로 대원을 모집, 활동 시작, 소방관 부인들도 협조자로 봉사활동에 참여
1977. 1. 18 대원50명으로 구성, 초대 대장 백용주, 부대장 (故)신기 취임
1977. 8. 26 백용주 대장 퇴임
1977. 8. 27 제2대 대장 (故)신기 취임
1978. 10. 전방 시찰
1984. 8. 1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부녀소방대」로 분리, 발대식을 가짐
1988. 1. 16 (故)신기 대장 퇴임,
제3대 대장 박정례 취임, 부대장 서옥희, 총무부장 이옥희
1988. 11. 1 소방의 날을 맞아 대원 4명 수상(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소방서장)
1988. 12. 7 경기도 실시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36개 시, 군에서 3위입상)
1989. 7. 15 경기도 36개 시·군 중 <최우수부녀대> 표창 (임사빈 경기도지사)
1990. 4. 16 정기 월례회 교육 및 소방실습
1990. 4. 18 응급처치 교육 전 대원 참석(소방서 강당)
1990. 5. 12 부녀대 자체 정관 제정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재임할 수 있다.
 2. 대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1990. 10. 24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비산동 공설운동장)
1990. 11. 1 소방의 날 기념, 대원 4명 수상
1991. 1. 20 제4대 대장 박정례 연임, 부대장 채경자, 총무부장 오영숙 취임
1991. 2. 5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

조직표



2대 신기대장이 3대 박정례 대장에게 제모와 어깨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1988.1.15)

1991. 11. 1 제1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선에서 12개 시·군 중 1위
-경기종목~소화기 진압, 줄다리기
1991. 11. 13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본선 참가 (수원 연초 제조장 운동장)
경기도 36개 시·군 중 응급처치 부문 1위 수상
1992. 4. 7 응급처치 기본교육(강사 신완진)
1992. 4. 10 경기도 소방본부 발대식 참석(경기도청)
1992. 5. 26 대원 단합대회(속리산)
1992. 6. 29 부녀대원 남편 교통사고 사망, 대원 49명 모두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름
1992. 7. 10 일본 소방인 강연회 참석(문예회관)
1992. 8. 25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견학
1992. 8. 26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 참석(문예회관)
1992. 9. 8 전 대원에 추석 선물 지급
1992. 10. 15 고가사다리차 타기, 소화기 사용법, 화재진압 교육(공설운동장)
1993. 4. 8 전 대원 응급처치 교육(소방서 강당)
1994. 1. 12 제5대 대장 오영숙, 부대장 박경애, 홍보부장 오영옥 취임.
1994. 5. 16 소화기 사용법 교육.
1995. 10. 23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996. 4. 30 대원 단합대회(마이산, 중림온천)
1996. 10. 30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수원 소방본부)
1997. 10. 28 제6대 대장 조연순, 부대장 안용임 취임.
1999. 8. 12 안양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정기)
2001. 1. 1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을 개정(중앙소방본부로부터)
2001. 2. 26 제7대 대장 조연순연임, 부대장 안용임, 총무부장 김경미 취임.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응급처치 표창을 받은 후에(1989.7.15)



경기도 최우수대 표창(임사빈지사)트로피를 소방서장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1989.7.15)

〈여성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과 훈련

재난과 화재, 긴급출동... 응급처치 및 급식지원 등...

1979.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캠페인〉 10회 실시, 불조심 대회 참가
1982. 10. 13	소방훈련 참가
1988. 3. 25	화재예방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1988. 11. 9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으로 가정방문, 소화기 사용법 홍보
1989. 3. 25	화재예방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방홍보활동
1989. 5. 6	부산 동의대 참사 경관과 소방관 빈소 조문
1990. 1. 23	유형업소 불조심 홍보캠페인 전개(안양 1번가)
1990. 1. 30	박달동 가정집 화재 이재민 위로금 전달(4세대 20만원)
1990. 2. 6	소방가족 병문안 위로금 전달(10만원)
1990. 9. 20	수해의연금 기탁(안양시청 20만원)
1990. 11. 12	불조심 캠페인 전개(안양역 ↔ 본백화점)
1990. 12. 3	소방서 김장 김장담그기
1990. 12. 14	협성상가 화재시 의소대 고문이 재난 당해 위로금 전달(10만원)
1991. 2. 8	호계동 맘모스회관 화재 현장 출동
1991. 4. 11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안양유원지)
1991. 4. 12	응급처치 교육 실시(소방서 강당)
1991. 7. 31	수해지구 방문 노력봉사(수해의연금 10만원 전달)
1991. 12. 5	소방서 김장담그기(배추 600포기)
1992. 11. 5	불조심 가두 캠페인(우체국 ↔ 시청앞 ↔ 중앙시장 ↔ 안양역)
1992. 12. 6	박달동 타이어공장 화재 출동
1992. 12. 10	소방서 김장담그기(배추 550포기)



소방의 날 안내봉사



소방의 날 행사(1991.11.9, 안양소방서 강당)

1993. 1. 15 반상회를 통한 불조심 홍보 및 전단돌리기
 1993. 2. 7 동절기 불조심 캠페인 전개
 1993. 11. 9 소방의 날을 맞아 안내 및 음식 봉사
 1993. 11. 15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수리산)
 1996. 3. 26 산불조심 캠페인(수리산 삼림욕장)
 1996. 11. 28 소방서 김장 담그기(배추 800포기)
 1999. 6. 21 일일 민원업무(소방대원들의 모자라는 일손을 돕기 위하여 여성대원들이 2인 1조로 주 5회 돕기 시작)
 1999. 10. 19 <소방기술경연대회(용인소방학교)> 참가, 응급처치·4인5각 경기에 출전 종합 2위, 응원상 수상
 2000. 11. 15 화재 취약지역(중앙시장 및 재래시장)에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및 불조심 캠페인



전방시찰(1978.11)



불조심대회(1979.11.1~79.11.15)



소방훈련(1982)



응급처치 경연대회(1996.10.29)



영월 여성대 친선방문(2001.7.24)



〈제1회 경기도 소방기술 시범 경연대회 본선〉
응급처치 1위 우승컵을 안고...(1991.11.12)



수리산 산불조심 캠페인 후(1993)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화재진압,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마치고...



일일 민원근무
1999.6.2부터 2인 1조로 주 5회, 직원들의 일손을 돕고 있다



소방훈련(1994.5)

봉사의 현장에도 우리가 먼저...

- | | | | |
|--------------|---|--|--|
| 1977. 7. 8 | 안양시 수해 수재민들에게 급수봉사, 인명 구조 등 수해복구에 참여 | 1989. 12. 26 |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영세민에게 성금전달 (5세대, 3동, 9동) |
| 1985. 9. 26 | 전방 군부대 방문 위문품 전달 | 1990. 1. 20 | 〈관내 영세민 돕기〉 15세대 60만원 전달 |
| 1988. 5. 28 | 가정의 달을 맞아 부녀대 특색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결의하고 관내 34세대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 다과회와 생필품을 전달함 | 1990. 5. 2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양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조기청소 활동을 벌임 |
| 1988. 6. 18 | 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청소 실시 | 1990. 5. 23 | 관내 영세가정 돕기(10세대 50만원) |
| 1998. 6. 23 | 〈안양시여성글짓기대회〉 참석 봉사 | 1990. 5. 25 | 〈안양시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일일대모 |
| 1988. 8. 28 | '88서울올림픽 불 조성을 위한 〈범시민 걷기대회〉 참석(42명), 부녀대의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줌 | 1990. 6. 13 | 수리산삼림욕장에 "나무사랑하기" 표찰 부착 (43명 참석, 70개) |
| 1988. 9. 3 |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대청소 실시 | 1990. 6. 19 | 건전소비생활 결의대회 참석(문예회관) |
| 1988. 12. 13 | 소년소녀 가장돕기 일일 찻집 운영 (수입 1,590,000원, 경비지출 281,440원, 잔액 1,308,560원) | 1990. 7. 2 | 새마을 조기청소 실시 (소방서↔순복음교회↔가축위생연구소) |
| 1988. 12. 28 |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33세대에 성금 전달 | 1990. 9. 8 |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결의대회 참석 |
| 1989. 4. 7 |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안양6동 소방서 앞 ↔ 시내 일변가) | 1990. 9. 22 | 고양군 일산읍 수재민 위문 - 빨래, 가재도 구 정리, 침수주택 벽지바르기 봉사 |
| 1989. 5. 15 |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소녀 가장 방문 생필품 전달(석수2동) | 1990. 12. 22 | 사랑의 선교원 방문 40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안양 2동 소재) |
| 1989. 6. | 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청소 실시(2회) | 1991. 2. 7 | 에너지 절약 결의대회 |
| 1989. 9. 13 | 「나눔의 집」 방문, 쌀 80kg 전달 | 안양시 3개 보육원 방문 -45만원 상당의 과일 전달, 소년소녀가장 방문 -15만원 상당의 이불 전달 | |
| | | 1991. 2. 26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아·나·바·다〉 장날 봉사 |



88장애인올림픽 성화 환영



소녀가장 장학금 전달(1989)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1991. 3. 4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순회교육(문예회관)	1992. 5. 22	5대 맑은정신 회복운동 결의대회(소방서강당)
1991. 5. 15	전경 위문(비산동 공설운동장 소재) - 속옷, 과일전달(40만원 상당)	1992. 5. 27	전경 위문, 20만원상당 물품 전달
1991. 5. 29	〈안양시 시설아동체육대회〉 참석 일일 대모	1992. 5. 30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여
1991. 6. 6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우체국 사거리)	1992. 6. 2	출퇴근 교통캠페인 전개(본백화점↔금성센터)
1991. 7. 10	〈고·부 대화의 날〉 참석	1992. 7. 16	〈범 여성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실천결 의대회 참석(문예회관, 강사 황인태)
1991. 7. 26	바른 삶 실천운동 특별강연회 참석	1992. 8. 19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관한 교육
1991. 9. 11	〈이요섭과 함께 노래부르기〉 참가	1992. 10. 1	〈안양시민의 날〉 전통차 시음 봉사
1991. 9. 19	안양6동 「나눔의 집」 방문	1992. 10. 8	〈전국여성대회〉 참석(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1991. 10. 1	〈안양시민의날〉 급수봉사	1992. 11. 10	합동결혼식 참석
1991. 11. 16	무의탁노인 결연금 전달 - 안양4동 이부녀, 석수1동 임노선에게 각 각 20만원 썸썸이 10%줄이기 소비생활 실천교육 (문예회관)	1992. 12. 14	독거노인 김장담가 주기(3세대)
1991. 12. 16	안양6동 「나눔의 집」 방문	1992. 12. 16	안양6동 「나눔의 집」 방문
1992. 1. 3	독거노인 후원 매월 2만원씩 전달	1992. 12. 22	사랑의 선교원 방문(안양 2동)
1992. 2. 17	〈썸썸이 10%줄이기〉 범여성 건전소비생활실천 결의대회	1993. 5. 13	영세가정 방문, 생필품 전달
1992. 3. 3~7	여성회관 건립기금마련 바자회 봉사	1993. 6. 6	보훈가족 방문, 1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1992. 4. 28	안양시 예능대회 봉사(문예회관)	1993. 9. 18	중추절을 맞아 「나눔의 집」 방문
1992. 5.15~19	L·A 폭동 피해 교민돕기 바자회	1993. 12. 13	연말 연시를 맞아 소녀가장 방문,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
1992. 5. 21	〈안양시 시설아동체육대회〉 일일대모	1996. 3. 15	독거노인 돕기(2세대 2만원씩 통장 입금)
		1996. 4. 11	국회의원선거 개표소 종사원 간식봉사
		1996. 7. 5	안양시 환경사업소 견학,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1996. 7. 30	파주 문산 수해지역 봉사-빨래,가재도구 정리



고양군 수해지구 도배(1990.9.22)



천주교 신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나눔의 집」 방문

1996. 8. 21 을지훈련 상황실 위문, 떡·음료 전달
 1996. 9. 18 저소득 모자가정 도서 사주기 운동 전개
 1996. 10. 28 북한만행 규탄 쫓겨대회 참석
 (안양공설운동장)
 1998. 10. ~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제공,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점검
 1999. 5. 12 강원도 영월군 남편 광천 1리 농촌 일손돕기
 1999. 7. 14 「바울선교회」 방문 - 목욕, 빨래, 청소
 1999. 8. 7 수재민돕기 사랑의 접시 나누기 운동 전개,
 경기 북부지역 수해 수재민에게 주방기기
 170점 전달

1999. 12. 1~2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2,200포기(350세대)
 2000. 4. 21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2000. 6. 15 안양 사랑의 집과 자매결연(박달동 소재)
 2000. 9. 20 강원도 영월군 홍월2리 고추따기 일손돕기
 2000. 9. 30 영월 군수 감사패 받음.
 2000. 10. 27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시
 -여주 신록사 및 온천목욕
 2000. 12. 15 독거노인,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2000.4.12)



수재민돕기 사랑의 접시 나누기 운동(1999.8.7)



2000년 5월부터 무선 페이징시스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 일일나들이/안양시에 거주하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일나들이를 다녀옴(2000. 4. 26)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설립목적

여성자원봉사자의 뜻을 한데 모으고,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평화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복지시설 기관, 식당 봉사, 안내 등 자원봉사
 상담자원봉사
 학생가장후원사업
 푸드뱅크(음식나눔은행)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안양에서 시작, 행정관서의 도움없이 자립 육성된 단체로 그 조직력과 우수한 활동성은 「안양시 종합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태가 되었다.

먼저 그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1984년 11월, 한국여성개발원이 경기도 여성회관에 「자원봉사활동 인력은행」을 설치, 그 임원으로 안양지역에서 2명(정어진 외 1명)이 선발되고 1985년 9월에 4명(윤옥규 외 3명)이 「용인정신병원」에 예술치료 요법인 서예지도 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1987년 6월, 그동안 활동해 왔던 6명이 주축이 되고 안양시에서 자원하는 31명을 더 해 총 37명이 제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단에 입단하여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대회기간(9월19일~22일)동안 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88홀트자원봉사단」이 창단되었는데 이때도 38명이 입단,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올림픽이 끝남과 함께 자원봉사단도 해단되자 그때 참석했던 대다수의 봉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정식 출발하게 된 것이다.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활동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과 일반 봉사원으로 구분 운영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1989년 3월, 운영위원 19명을 추대하고 46명의 봉사자를 4개조로 편성, 조장 중심 체제의 조직을 구성,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 1월, 봉사가원이 120여명으로 증가되자 일정한 연락처가 필요하게 되어 14평의 사무실(안양 4동 676-117, 안양중앙장로교회 3층)을 임대, 봉사원들간의 연락은 물론 상담과 취미지도(서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안양 6동의 36평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이런 일련의 이전 과정은 행정관서의 도움없이 뜻있는 사람들의 모금만으로 이루어졌다. 그후 1995년에 「안양시노인복지회관」으로, 그리고 1999년 10월 27일 「동안여성회관」(TEL,386-9957)으로 이전하였다.

활동사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창립 초, 매주 목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장애자 돕기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주1회 15명씩 방문하여 청소, 풀뽑기, 사무 보조, 재활 보조와 함께 장애자들의 기저귀 접기, 죽먹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한달에 3,000원가량의 회비를 모아 방문시 이용할 차량 대절비를 충당하였다.



‘88서울장애인올림픽에서 「홀트자원봉사단」으로 입단, 안내봉사를 하는 중에(1988.10.15)

이렇게 시작한 봉사가 그 규모가 점점 확장되어 94년 7월부터는 별도의 봉사의 날을 정하지 않고 월~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돕기 봉사는 물론 사회복지 시설 봉사, 호스피스 봉사, 재가노인 가정 봉사, 푸드뱅크, 상담봉사와 함께 관내 중요행사의 단순 노력 봉사, 소년소녀 학생 가정과 후원결연사업, 여성단체 연합사업 등 봉사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현재 「안양여성자원봉사회」의 활동 상황을 좀 더 세밀히 기술하면, 노인종합복지관(동안,만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수원사무소), 나그네 집(전, 진, 상) 장애인 수용시설 및 노인시설(한사랑마을, 양지의 집, 향림원, 안민교회), 원광 어린이 집 등의 사회복지시설 봉사, 여성회관상담실, 안양시청소년상담실의 상담 봉사, 안양병원과 한림대학 성심병원의 호스피스 봉사, 재가노인가정 밀반찬 배달봉사, 기타 각종 행사의 봉사, 그리고 매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등 30여 가정을 54명의 후원자와 결연 맺도록 돕는 후원사업, 연수교육, 기초교육, 심화교육, 현장교육 등의 봉사교육사업 등이다.

특별히 교육사업은 봉사원들의 자질 향상 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히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상담을 들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여성개발원」에 전문 상담원교육을 위탁, 수차례 심화교육을 거친 봉사자들을 「여성회관 상담실」과 「안양시 청소년상담실」에 배치, 봉사토록하고 있다.

자원봉사회 내에서도 신규봉사자와 기존 봉사원을 분류 상담을 하는데 신규봉사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봉사의 동기를 제공하고, 기존봉사원들에게는 봉사의 의욕을 돋구어 주고 있다.

또 강남성모병원에 호스피스 교육을 위탁, 수료한 18명의 봉사자가 각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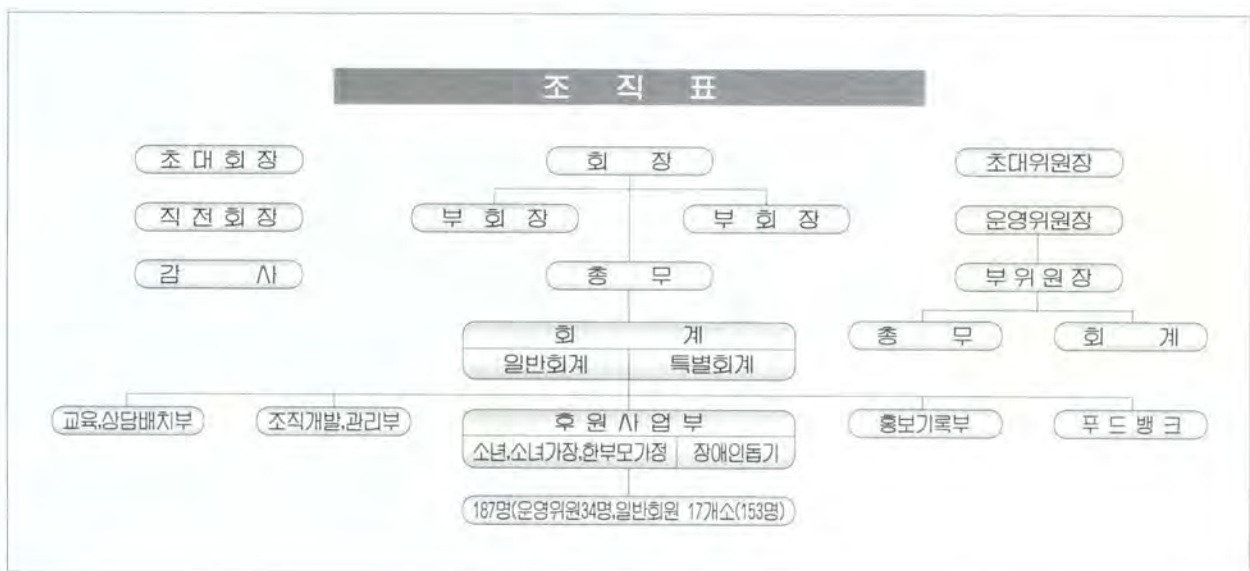
이밖에도 특별사업으로 <푸드뱅크사업(음식나눔은행)>을 하고 있는데 기탁자 66개(학교, 제과점, 기업체, 공공기관, 대중 음식점, 개인 및 단체)에서 받은 음식물을 수혜처(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 아동), 사설(미인가)시설, 일반사회단체, 종교단체) 64개소에 고루 배달하고 있다.

또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봉사활동 뿐만아니라 연말 평가회(1993년~)와 활동소식지 발간(1997.8.28 창간)등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1996년에는 10여년간 봉사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사례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을 발행하였다.

2001년 10월 현재 187명의 봉사원들(운영위원 34명, 일반회원 17개조 153명)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간 봉사 실적은(1985.9~2001.10) 19,950회 62,886명 284,868 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윤옥규(1990.2.27~1996.12.31), 2대 최용주(1997.1.1~1999.12.31), 3대 심재룡이 2000년 1월 1일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1대 정어진(1990.9.3~1996.7.2), 2대 조은숙이 1996년 7월 3일에 추대되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연혁

1984. 11. 1 「경기도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조직시 안양에서 2명이 선발되어 임원으로 봉사활동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정어진 • 교육분과 위원/계성숙
1985. 9. 2 「경기도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봉사원 4명이 교육 및 지도분과 위원으로 선발되어 「용인정신병원」에서
 예술치료 요법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서예지도 봉사 실시
 • 봉사원/윤옥규, 김명순, 인경희, 김신자
1987. 6. 14 전국 제 7회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에 37명이 입단하여 발대식 참석
1988. 10. 15 「'88서울장애인올림픽」 봉사단원 38명이 10일간 대회 봉사
1989. 2. 27 「안양여성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은 운영위원과 일반봉사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운영위원 19명 • 봉사원 46명 (4개조)
1990. 1. 5 사무실로 안양4동 676-117 안양중앙장노교회 3층 14평을 임대하여 상담봉사실 설치
1990. 2. 27 봉사시작 1주년 기념 자축회 120명이 참석 정식으로 임원 선출
 봉사임원 • 초대회장/윤옥규 • 부회장/남궁영예 • 총무/이인자 • 회계/장순태 • 서기/김명희
 • 운영위원회 총무/김경선 • 서기/김명희
1990. 9. 3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 초대위원장/정어진 • 부위원장/양명자, 조은숙 • 총무/서인자 회계/최용주
1992. 1. 16 안양5동 613-28로 사무실 이전
1992. 3. 2 안양시의 의뢰로 자원봉사 상담실에서 「안양시여성자원활동센터」를 위탁받아 업무 개시
1993. 4. 15 사무실 36평으로 확장 이전 → 안양6동 490-1
1993. 5. 3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
1993. 11. 24 <'93 자원봉사 활동평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1994. 5. 13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운영위원으로 봉사 시작(정어진)
1994. 11. 24 여성자원 봉사활동 육성강화 공로로 <전국대회>장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윤옥규 회장)
 - 자원봉사센터 모범운영 단체로 선발 수상(제2정무장관)
1994. 12. 13 <'94자원봉사 활동평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1995. 2. 20 「안양여성자원 봉사회」(센터)사무실 이전 (안양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선출 광경, 초대운영위원장에 정어진 선출(1990.9.3)



안양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1990.10.10)

1995. 12. 29 안양 평촌 우체국장의 감사패 받음
1996. 4. 23 <봉사시작 9주년 기념식> 및 <'96년도 정기총회>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축회 개최
신임원 2대 • 회장/최용주 • 부회장/심의숙, 심재룡 • 총무/성명자 • 서기/이국희
• 회계/정종순 • 부회계/김은희 • 감사/김정임, 공재옥
1996. 7. 3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 31명 참석하고 임원을 선출함.
2대 • 위원장/조은숙 • 부위원장/양명자, 이인자 • 총무/천희수 • 서기/서인자
1996. 11. 15 제 2대 회장 이 • 취임 및 '96자원봉사활동 평가회(동안여성회관 대강당)
1996. 11. 15 자원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 발간 자축연(1,500부)
1996. 12. 12 <'96여성활동유공자 및 자원활동센터 모범운영상> 수상 (제2정무장관상)
1997. 1. 31 <경기도민의식 함양 큰상> 인보부문 장려상 수상
1997. 8. 28 <안양여성자원활동소식> 창간 1,000부 발행
1997. 12. 29 <'97년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동안여성회관 대강당)
1998. 1. 16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봉사회」 부회장에 심재룡 취임
1998. 7. 7 자원활동센터 운영 장려상 수상 (경기도지사상)
1998. 7. 7 여성주간기념식에서 윤옥규 전회장이 “안양을 빛낸 여성상” 수상
1998. 9. 9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봉사자 심재룡부회장이 노동부장관상 수상
1998. 12. 1 자원봉사활동 모범단체로 안양시장상 수상
1998. 12. 15 <'98자원봉사활동평가회>(동안여성회관 대강당)
1999. 10. 25 제10회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총회
신임원 3대 • 회장/심재룡 • 부회장/심의숙, 문영희
• 총무/안광숙 • 회계/최윤희
• 서기/최영숙 • 감사/성명자, 강미수
1999. 10. 27 자원봉사회 사무실 이전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안양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동안여성회관 2층)
1999. 11. 25 자원봉사회 회장 이 • 취임 및 <'99 자원봉사활동 평가회>(동안여성회관대강당)
1999. 12. 31 1992년 3월2일부터 위탁 운영하던 「안양시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해지
2000. 2. 22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회 정기총회 개최

“자신부터 버려야 감사랑도 알지요”



1993년 자원봉사자 평가회(1993.11.24)



1994년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후 - 윤옥규초대회장 대통령상 수상

2000. 3. 2 푸드뱅크사업 위탁 및 전용 차량 인수
2000. 6. 1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제0136호)
2000. 12. 19 <안양여성자원봉사활동 총 평가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2000. 12. 29 경기도 <푸드뱅크인의 밤> 단체 버금상 수상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001. 2.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자원봉사회 회장에 신상숙 취임
2001. 2. 20 “넉넉한마음으로봉사하는생활”(안양여성자원봉사회소식지 6호 500부 발간)
2001. 2. 28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정기 총회 개최. 임원 보선 (시청 제 2회의실 11:00)
- 신임원 • 회장/심재룡 (유임) • 부회장/정중순, 윤영자 • 총무/최영숙, 강미수
 • 회계/특별/정복순, 이순례 일반/최윤희, 조은영 • 감사/김학민, 정군례
- 운영위원 • 위원장/조 은숙 • 부위원장/양명자(유임), 서인자 • 총무/천희수 (유임) • 회계/안순옥
2001. 4. 9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취득 (고유번호 :123-82-09673 안양세무서장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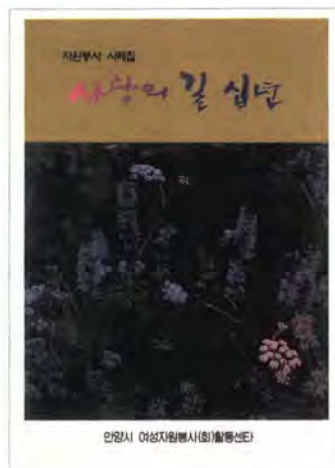
<안양자원봉사회>의 간행물



자원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 발간 출판기념회(1996.11.15)



자원봉사활동센터 소식지 '안양여성자원활동소식' 창간기념회(1997.8.28)



자원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



자원봉사 활동 평가자료집

년도별 사업실적

년 도	주 요 사 업
1984. 11. 1	「경기도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조직시 안양에서 2명이 선발되어 임원으로 봉사활동
1985. 9. 2	「경기도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봉사원 4명이 예술치료요법으로 서예지도 봉사
1987. 5. 19	전국 제7회 「장애인체육대회」에 37명이 4일간 봉사
1988. 4	「안양시 상설부녀 기능대학」에서 7명이 서예지도 봉사
1988. 10. 15	「'88서울장애인올림픽 봉사단」 단원으로 38명이 10일간 대회 봉사
1989. 3. 2	장애인시설인 「홀트 일산복지타운」 생활관 일손돕기 봉사
9. 26	제70회 「전국체전」에서 부녀자원봉사원으로 6일간 46명이 봉사
1990. 7. 9	상담요원 28명이 안양시 16개 동사무소에 배치, 임원, 안내 등 봉사 시작
8. 13	자원봉사 상담실에서 상근 상담 봉사 시작
1991. 11. 16	저소득 모자세대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전달
12. 17	안양시 관내 독거노인 7명을 선정 각 가정 방문(선물과 집안 일 돕기 시작)
1992. 10. 30	「안양시지」 원고 교정에 7명이 5일간 봉사
1993. 2. 18	무의탁 노인 환자 보호시설인 「평화의 집」 봉사 시작
7. 22	「나그네 집」의 결인 및 노인 중식 무료 제공 노력봉사 시작(매주 목요일)
1994. 1. 26	척추장애인 그림동우회(그림사랑) 그림그리기 돕기 봉사 시작
1994. 7. 5	안양시청 「민원 정보센터」 안내 봉사
1994. 7. 28	「안양시 노인 종합 복지관」 봉사 시작



장애인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생활관 일손돕기 봉사 죽 먹이기 (1989.3.25),



「홀트일산복지타운」 김장담그기(1989.11.19)

년 도	주 요 사 업
1995. 1. 15	저소득모자 가정 7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12명을 각각 후원자와의 결연을 돕기 시작
6. 29	「안양여성회관」 상담실에 1일 2명씩 상담원 36명 상담 봉사
11. 1	안양시 「시민정보센터」에 자원봉사활동 상담 창구 개설
11. 14	가정 수도물 수질검사 모니터 요원으로 60명이 교육 이수 후 위촉받음.
10. 23~11.24	전문상담봉사자 66명 교육 이수(안양시와 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
12. 18	제1차 자원 봉사자 연수 교육 136명(안양시 지원)
12. 1	「평촌우체국」 우편물 분류 보조 봉사 시작
12. 4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수원사무소」 자원봉사 시작
12. 21	학생 봉사자 모집 및 배치(나그네집 무료 급식소)
1996. 4. 1	안양시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배치
4. 15	수화봉사자 교육 11명 수료(동안구청장 협조)
5. 20	독거 노인 효도 나들이 서울대공원(노인 21명, 봉사자 28명, 자가용봉사 12명)
5. 22~23	제2차 자원봉사자 연수 150명 참석(안양시 지원)
6. 3	노인 무료병원 봉사를 위해 매일 1명씩 배치
6. 17~7.22	전문상담봉사자 심화교육(보수교육, 안양시 지원)
7. 24~9.28	P.E.T 교육 24명이 수료
7. 25	물가 조사원 위촉장 수여 및 교육
7. 29	「동안보건소」 정기봉사 시작, 매일 1명씩 배치
1997. 2. 4	「비산복지관 경로식당」 봉사 시작(월1회)
3. 11	자연보호 및 정기 등산반 조직
4. 26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견학(우수봉사자 64명)
7. 14	「영생교회」 봉사 시작(주 1회)
11. 22	안양시 「만안노인복지회관」 봉사 시작
12. 5	「바울선교원」 봉사 시작(월 1회)



척추장애인 그림동우회 「그림사랑」 그림그리기 돕기 봉사(1994.1.26)



안양시 「시민정보센터」에 상담창구 개설(1995.11.1)

년 도	주요사업
1998. 2. 26	가사 봉사원 봉사증 위촉(30명)
3. 26	관내(236세대 250명)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시작(매주 목요일).
4. 3	호스피스 교육 18명 수료(강남 성모병원)
4. 13	「만안보건소」 봉사 시작
4. 19	실업자 구인,구직 상담 안내
9. 14	「음성 꽃동네」 현장체험 45명 봉사
1999. 1. 12	「안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 배치
3. 8	「한림대학 성심병원」 봉사자 배치(36명)
4. 13~14	불우이웃돕기 알뜰 장날 수익금으로 결식어린이 쌀 80Kg, 의류 150점 기증
4. 17	노인정 순회 발 맛사지 봉사자 파견
5. 17	「덕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자원봉사 시작



「평촌우체국」 우편물 분류봉사(1995.12.27)



어린이집 급식봉사(1996. 9. 11)



독거노인 '에버랜드' 호도나들이(1996.5.20)

년 도	주 요 사 업
1999. 6. 28~7. 9	가사 봉사원 양성교육(성결대학교 10명)
8. 6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연천군 수해지구-의류 320점, 성금 200,000원)
9. 14	「가평 꽃동네」 현장교육 및 체험 봉사(52명)
2000. 3. 7	「푸드뱅크」 차량 봉사 시작
3. 8	1차 상담자 연수 심화 교육 12회(50명)
6. 2	「푸드뱅크」 자문위원 회의(시 관계직원 및 자문위원 10명)
6. 9	「경기도 향림 재활원」 1일 봉사(53명)
6. 20	제7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20명 이수)
6. 28~29	「푸드뱅크」 첫 연수 참가(4명)
8. 2	「홀트아동복지회」 제조작업(자녀와 함께 9명 봉사)
8. 29	사회복지기관 마케팅 전략 강좌(7명)
9. 21~22	열린 복지 아카데미 교육(31명)
9. 25~27	2차 상담자 연수 심화 교육(5회 15명)
10. 13	현장체험 교육 「여주 은혜의 집」(42명)
11. 17~18	컴퓨터 교육(테마별 정보 탐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27명)
12. 15	신규봉사자 전체 교육(37명)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목욕봉사(1996.9.10)



독거노인 밀반찬조리 및 배달 시작하는 날(1998.3.26)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수료식(2000.7.4,성결대학교)



열린복지 아카데미교육(2000.9.21,과천시민회관)

년 도	주 요 사 업
2001. 2. 1	「부흥사회복지관」 식당 봉사 시작(매주 목요일)
3. 1	「부흥사회복지관」 미술 지도 시작(1명)
4. 24	〈2001년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수원월드컵 경기장)
5. 15~16	〈사랑나누기 바자회〉 개최(동안여성회관 앞마당)
6. 23	「해관 보육원」 고아 대학생 장학금 전달(50만원)
6. 26~27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도자 능력 향상 연수/경기도 공무원 수련원/후원:경기도)
7. 11	봉사원 재교육(동안여성회관 소회의실) 심재룡 외 38명
7. 15~29	수해지역 주민 숙박시설 봉사(신안양교회, 만안교 노인정) 장미수 외 14명
9. 11	〈장애인 채용 박람회〉(수원 공설운동장) 신상숙 외 9명
9. 13,20,27	청소년 분야별 심화교육(동안여성회관 예식장) 홍영란 외 30명
10. 22~27	계슈탈트(집단 상담) 교육(동안여성회관 폐백실) 정복순 외 12명
10. 27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수원 월드컵 경기장) 정종순 외 10명
10. 30	농촌일손돕기(충북 괴산) 심재룡 외 35명



푸드뱅크 차량 인수식
(2000.3.12)



푸드뱅크 차량봉사 현장
(2000.3.7)

년도별 봉사시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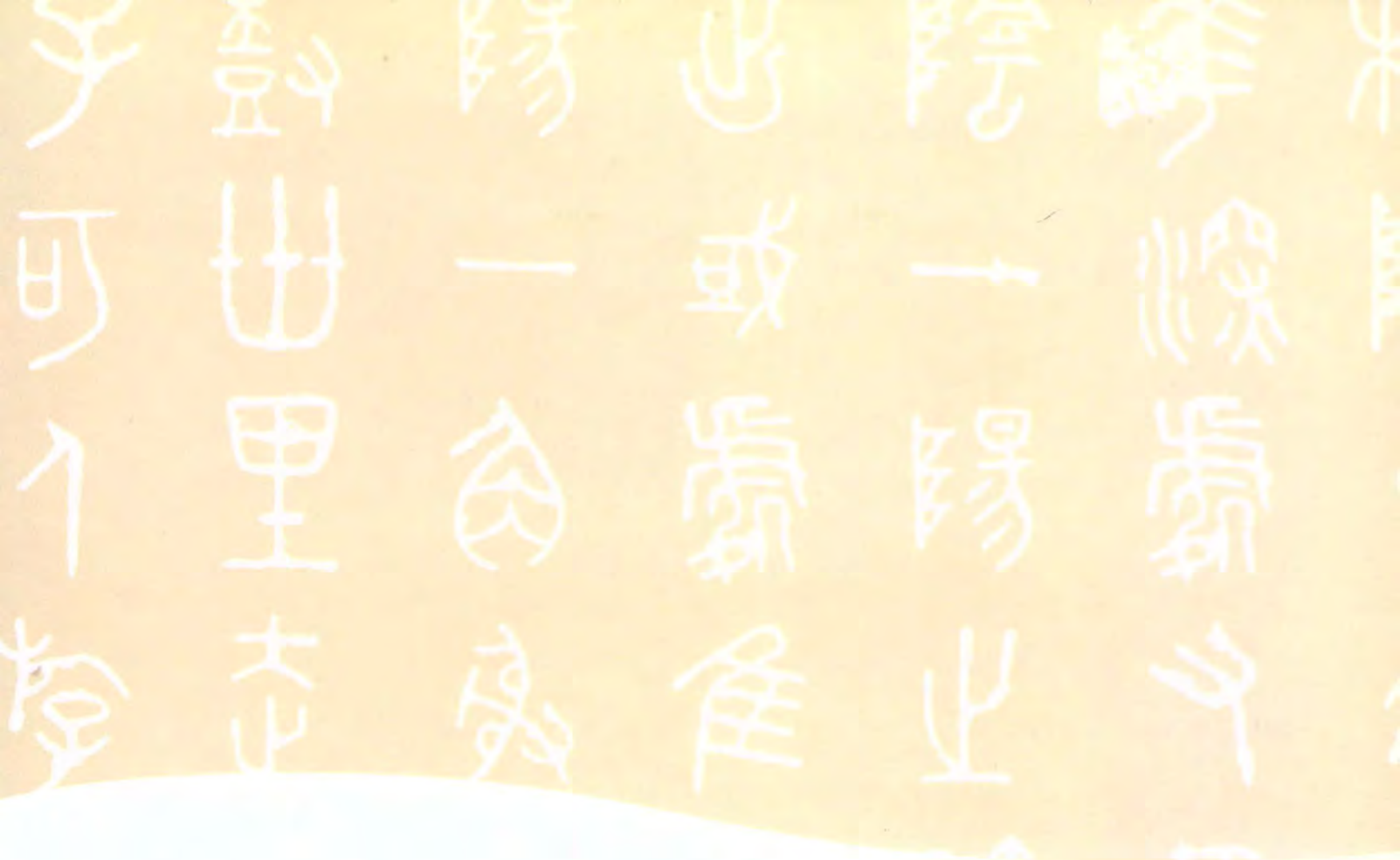
년 도	봉 사 내 용	봉사회수	봉사인원	봉사시간
1985	용인 정신병원 서예지도 봉사 외	26	104	208
1986	용인정신병원 서예지도 봉사 외	3	12	24
1987	제7회 장애인체전 봉사 외	10	360	2,376
1988	88장애인 올림픽 봉사 외	38	1,182	8,229
1989	일산복지타운 장애인 생활보호 봉사 및 재활훈련 봉사 외	48	699	3,057
1990	주부대학 서예지도 봉사 외	197	1,287	6,796
1991	독거 노인 가정봉사 외	255	945	5,002
1992	장애인 체전 봉사 외	619	1,861	8,563
1993	나그네 집 무료 급식 봉사 외	663	1,394	6,320
1994	노인종합복지관. 그림사랑(척추장애인 동호회) 봉사 외	899	2,203	9,402
1995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봉사 시작	2,379	6,038	23,307
1996	부녀. 청소년 상담 봉사 외	2,083	6,456	28,864
1997	그림사랑. 나그네 집. 곰두리회관봉사 외	3,055	7,882	34,949
1998	동안.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봉사 외 (안내. 경로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	3,266	10,461	48,437
1999	안양병원 호스피스봉사, 한림대학 성심병원 봉사 외	3,949	13,538	61,437
2000	푸드뱅크(음식 나눔 은행). 요보호 재가노인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 외	1,117	3,808	18,125
2001	동안여성회관 여성상담실. 청소년상담실 상담봉사. 만안여성회관 빵 만들기 봉사 외	1,324	4,257	19,335
총 계		19,950	62,886	284,868



푸드뱅크의 바람직한 운영 교육
(2000.9.22, 동안여성회관 소회의실)



청소년 상담봉사



安養女性書藝家協會

설립목적

안양 여성서예인으로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안양지역 여성서예 발전에 기여하며 안양시 여성들
의 정서함양과 안양지역 여성서예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여성서예인 발굴, 육성
서예전시를 통한 정서 함양
서예지도를 통한 후배 양성
지역문화사업
사회복지관 서예봉사

안양여성서예가협회는...

「안양여성서예가협회」는 1990년 8월 24일, 안양시 「가정복지과」 주선으로 안양여성서예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참다운 여성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며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2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안양시 「가정복지과」 김명자과장, 「부녀복지계」 이순덕계장, 이영옥, 윤옥규, 이남아, 서인자, 강운정, 이혜숙, 서화자, 이강순, 이경분, 허윤정, 이상희, 이인향이 참석하여 준비위원회를 가지고, 회장 윤옥규, 부회장 이남아, 총무 서인자, 회계 이혜숙, 서기 강운정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회원 선정 기준을 <경기도전>, <동아미전>, 전국규모 서예대전, <국전> 등에서 입선 이상, <안양여성회호대회> 입상 및 입선 3회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활동사

1990년 9월27일~30일까지 「안양미술관」(안양1동 소재)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후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1994년도(5회)에는 안양서도회와 연합전을 열었다.

여성서예인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6월15일, '여초 김응현' (서예전문 연구단체 동방연서회 대표)선생을 초청, <서법강의>를 가졌으며, 1991~94년 <관악사생대회 및 회호대회>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반 서예지도 봉사를 하였는데 졸업생들의 동문회(이문화, 한우리회, 명지회)를 조직(1993. 4), 계속 서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중에서 「이문화」는 명실상부한 여성서예단체로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서예지도 봉사는 현재까지도 「안양여성서예가협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서, 1994년 11월부터는 「안양시노인복지회관」에서, 1995년 1월부터는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여

성대학」, 「시립도서관」, 「안양문화원」 등에서 계속하고 있다.

회원들의 작품 기증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데 회원들은 단체나 회관 등, 기념할만한 때와 장소에 작품을 기증하고 있다. 그 기증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노인복지회관」에 서예작품 7점(윤옥규, 이남아, 강운정, 서인자, 이혜숙, 이강순, 서화자), 「동안여성회관」에 서예작품 10점(윤옥규-2점, 이남아, 강운정, 서인자, 이강순, 윤영자, 유방미, 이병임, 박영자), 「만안여성회관」에 작품 7점(이강순, 윤옥규, 서인자, 이혜숙, 윤영자, 이남아, 강운정), 1996년 11월 「안양시청」 이전기념으로 작품 2점(윤옥규, 이남아), 그리고 2000년 「안양시 예절관」 개관할 때 작품 4점(윤옥규, 이남아, 서인자, 이혜숙) 등이다.

1999년부터는 <가혼 써주기>사업을 시작했다. <가혼 써주기>는 미리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혼 내용을 접수 받았다가 5월의 회원전에서 접수자들에게 글씨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01년 현재 3회에 걸쳐 모두 62가정에 가혼을 전달하였다.

또 2001년 9월에는 오랜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관악여성서예공모전>을 개최, 21일 수상식을 가지고,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상작 전시회를 가졌다(안양문예회관 전시실). 첫번째 대상은 우리글인 궁체를 쓴 옥담 이영옥의 <말한마디>가 수상하였다.

「안양여성서예가협회」 현재 회원은 45명이며 회원들은 각 문화센터, 문화원, 여성회관, 동사무소 등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인 서예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2대 윤옥규(1990~1994), 3대 이남아(1995~1996), 4대 이강순(1997~1998), 5대 서인자(1999~2000)이며, 6대 이혜숙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안양여성서예가협회」 사무실은 동안여성회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번지 사회복지사업소, TEL. 386-6151) 2층에 있다.

연혁



서예가 협회 첫번째 총회,
윤옥규초대회장의 보고 장면(1991.12.14)



경기도 주부의 날 주부회대회에서 휘호하는 회원
(1992.5.26)



서예가협회 회원들이 함께

- 1990. 8.24 「안양여류서예가협회」 창립 -초대회장 윤옥규 선임
- 1990.11.29 90년차 총회
- 1991. 4. 9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지도 시작
- 1991. 6.15 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법강의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
- 1991.10.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 1991.12.14 91년차 총회
- 1992. 5.26 경기도 주부의 날, 〈주부회대회〉 참가
- 1992.10.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 1992.12. 5 92년차 총회 -제2대 회장 윤옥규 재임
- 1993. 4.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반 동문회 조직
- 1993.10. 제3회 〈동문회원전〉 후원 -이문희,한우리회,명지회
- 1993.12. 8 93년차 총회
- 1994.10.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 1994.12.27 94년차 총회
-제3대 회장 이남아 선임, 고문 윤옥규 추대
- 1995. 1.24 회장 이·취임식 -안양문예회관
- 1995. 2.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 1995.12.27 95년차 총회
- 1996. 4.26 〈안양 미협전〉 출품
- 1996.12.13 96년차 총회 -제4대 회장 이강순 선임
- 1997. 4.23 〈안양시 여성 휘호대회〉 참관
- 1997.12.13 97년차 총회
-고문 이남아 추대
- 「안양여성서예가협회」로 개칭
- 1998. 6.23 〈안양시 여성 휘호대회〉 참관
- 1998.12.26 98년차 총회
-제5대 회장 서인자 선임, 자문위원 이강순 추대
- 1999. 4.23 〈안양시 여성 능력개발 솜씨 대회〉 개최 협조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
- 1999. 5.21 ~ 25 〈가훈 써주기〉 -안양문예회관
- 1999.12.11 99년차 정기총회
- 2000. 5.23 ~ 28 〈가훈 써주기〉 -안양문예회관
- 2000.12.14 2000년차 정기총회
-제6대 회장 이해숙 선임, 자문위원 서인자 추대
- 2001. 5.23 ~ 28 〈가훈 써주기〉 -안양문예회관
- 2001. 9 〈관악여성서예공모전〉 개최

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법강의



〈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법강의〉 현장에서 〈안양여성서예가협회〉 발전을 위하여 선생께서 휘호하시는 모습과 그 작품

■ 여초 김응현선생

주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장, 동방연서회 회장, 한국전각협회 회장

1991년 6월 15일 안양시·안양여성서예가협회 주최 〈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법강의〉가 안양문화예술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있었다.

여초 김응현선생(1927.1월 생)은 우리나라 當代 書法界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東方硏書會의 대표이며, 「東方書範全集」, 「東方書藝講座」, 「如初金膺顯手墨」, 「金膺顯印存」 등의 서법연구의 업적을 가진 분이다.

이날의 서법강의는 안양문화원, 한국미협안양지부 후원, 감로연, 도실지, 예화랑, 대동서림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으며 300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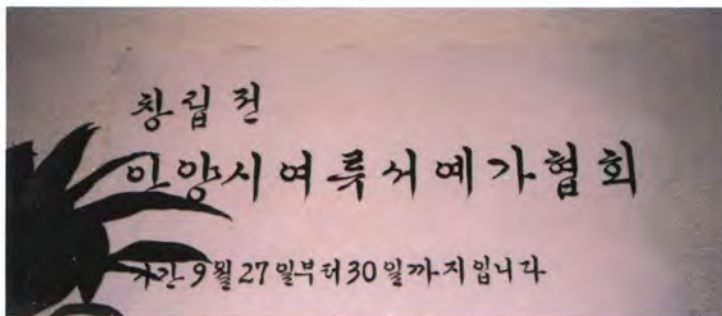
▲ 당시 홍보를 위해 사용되었던 포스터

◀ 김응현선생의 강의 모습

전시회

1990. 9. 27~30	안양 여류서예가협회 창립전	안양미술관
1991. 10. 22~25	제2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2. 10. 23~27	제3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3. 10. 22~27	제4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4. 10. 20~23	제5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5. 4. 26~5. 2	제6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6. 4.	동안구청 청사 개원기념 작품전	
1996. 5. 17~21	제7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7. 5. 15~19	제8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8. 7. 2~6	제9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9. 5. 21~25	제10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9. 11. 22~26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 회원 소장전	만안 여성회관
2000. 5. 23~28	제11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2001. 5. 23~28	제12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2001. 9. 21~27	제1회 <관악여성서예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안양문예회관 전시실

「안양여류서예가협회」 창립전 개막식 모습과 참관하는 회원들의 모습



관악여성서예공모전 개최

안양시·한국예총 안양지부가 후원하고 「안양여성서예가협회」가 주최한 <관악여성서예공모전>이 2001년 9월 21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 출품된 작품 305점 중에서 우리글인 궁체를 쓴 옥담 이영옥(말한마디)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김경옥(서정봉님의 한나절), 박향선(계당우흥), 김성옥(포은선생 시), 정옥희(묵매)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한글·한문·문인화 부문에서 각각 다수의 특선작과 입선작이 선정되었다. 서예공모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 운영위원장/이남아 • 운영위원/윤옥규, 이강순, 서인자, 김영남, 강윤정, 이혜숙
- 심사위원장/구자송 • 심사위원/김홍석, 권인호, 허희태, 정천모, 정응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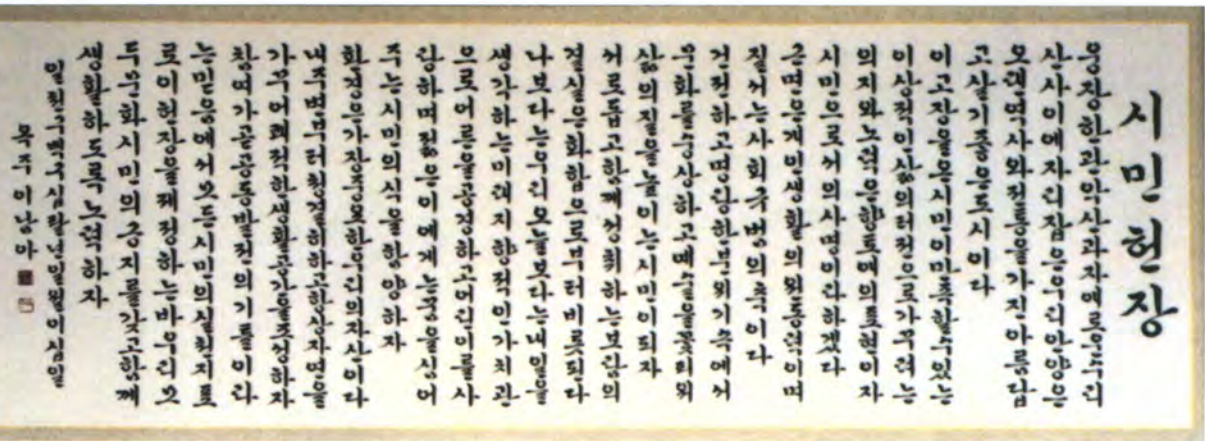


제 1회 <관악여성서예공모전> 심사 현장, 그리고 수상작 전시회 관람 모습

팜프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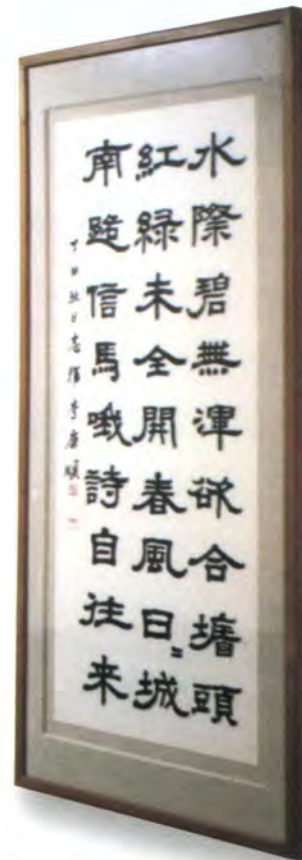
기증한 서예작품들



• 이남아 (만안여성회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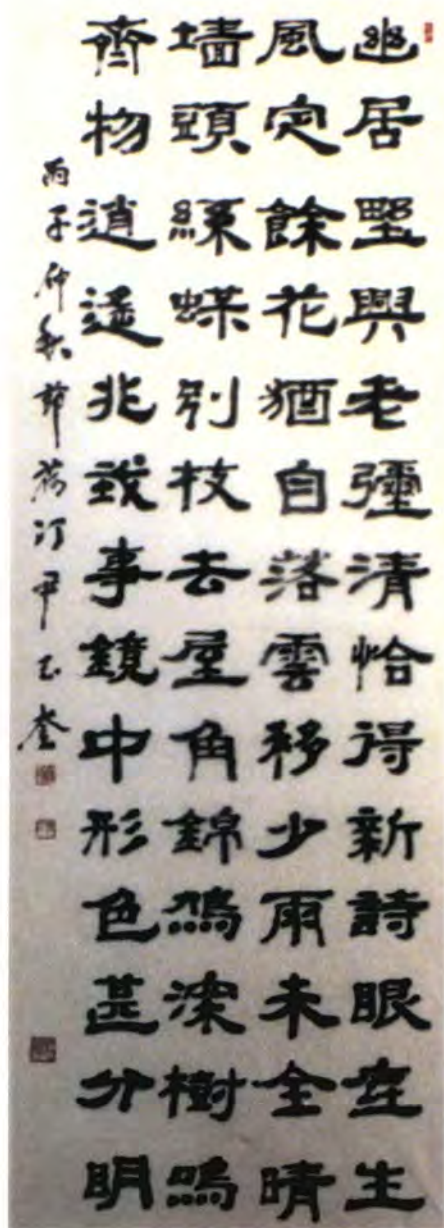


• 서인자 (예절관 소장)



• 이강순 (만안여성회관 소장)

새벽에 일어나니 시냇가 기운 차갑고
숲안개 아지랑이 사방이 희미하네
유연히 거문고와 책대하여 앉았으니
조일토록 그윽한 새나를 향해 우짖는듯



은거하여 사는 것 늙을수록 더욱 좋고 눈 앞에 얻는 시에 기쁨 절로 나누나
 바람 자도 남는 꽃 저절로 떨어지고 구름가도 가람비는 계속하여 내려라
 담장 위의 나비는 가지 떠나 날아가고 추녀 끝에 있던 새는 숲에서 우는구나
 진리를 깨닫는 일 내 일이 아니던가 저울 속의 형상은 너무나 분명하다

• 윤옥규 (만안구청 소장)
 제목/즉흥시(시골에 은거하여 자유롭게 사는 은자의 기쁨을 노래)



舊德先疇人樂其事
 和風甘雨天降之祥
 옛덕을 선대에서 세습하니 사람들은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은화한 바람과 기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상서로움이다

• 이혜숙 (예절관 소장)



생활개선회 안양시지회

설립목적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과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단체로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교육행사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식품의 개발 및 판매
 전통음식의 계발
 생활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농촌과 도시 회원간의 교류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및 선진지의 생활개선 연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득활동과 기금 조성

안양시 생활개선회는...

「안양시생활개선회」는 1993년 12월 농촌지도소 소속의 취미 교육 수강생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처음 14명으로 시작, 현재는 70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교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한지공예, 칠보공예, 동판 공예등의 생활공예강습을 연 1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과 안양시 농업발전 기금을 확보하여 전통요리, 꽃꽂이 등의 취미교육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다. 이밖에도 원예교육, 다도교육, 개량한복 만들기 등의 교육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생활개선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 여성 일감맞기 사업장을 방문,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농산물 홍보를 통해 농촌도 돕고 단체의 기금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안양시생활개선회」는 평창군 영농조합과 유기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월군, 포천군, 양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고추따기 봉사와 고추, 마늘 농가와의 직거래도 하고 있다.

또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매년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를 비롯 난 농장 및 채소 재배 농가 봉사를 연 15회 이상 실시하여 회원들이 농촌 생활의 실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비의 지원을 받아 선진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 5월 19일에는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기금을 지원받아 하동군의 <야생차 축제>에 참가, 농가에서 민박하며 녹차의 자생지도 살펴보고 제조과정까지 견학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5일에는 자매결연지인 예산군의 <여성일감맞기> 사업장을 찾아 작업장을 견학함과 동시에 그곳의 생산물 구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를 더 하기도 했다. 인근 홍성군의 「장자울 전통 장유공장」을 견학 했을 때는 농번기의 바쁜 중에도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농촌 여성들의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998년 5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나바다 행사> 참가, 무궁해 비누 판매, 「만안복지회관」 급식봉사(월1회), 중앙병원 안내봉사(월4회), 「호계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 5월8일 어버이날에는 다른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1000여명의 노인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도우미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김희연(1993.12~1996.12), 2대 이미숙(1997.1~1998.12), 3대 구명자(1999.1~2000.12), 4대 한지연이며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포천군 생활개선회의 안양 방문, 도·농간의 교류(1997.6.27)



<한지공예> 아름다운 한지를 이용 생활에 필요한 반진고리를 만드는 중 (1998.4)

연혁

- 1993. 12. 20 「안양시 생활개선회」 창립(초대 회장 김희연 취임)
- 1994. 2. 회원 단합을 위한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실시
- 1994. 3. 농산물 직거래 추진(울진 취나물, 참깨 등 15종)
- 1994. 4. <한지공예> 교육 실시(농촌지도소 회의실)
- 1994. 5. 6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법 교육을 8주간 실시(농촌지도소 회의실)
-강사/장승자(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1994. 6. 19 남양주시 광릉내 수목원 견학
- 1994. 9. 23 전통예절교육 -강사/설옥자
- 1994. 10. <칠보공예> 교육(농촌지도소 회의실)
- 1994. 11. 9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 회원 및 생활개선교육 수료자 70명이 우리 농산물의 이용 요리 전시 및 시식회, 민속놀이 등을 함께 함.
- 1995. 4. <동판공예> 교육 실시(장식용 액자 만들기)
- 1995. 10. <전통음식> 교육 -강사/방성순(장아찌연구가)
- 1996. 3. 수리산 등산 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25명 참석)
- 1996. 11.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 우리음식 만들기 경진, 우리 농산물 이용 요리전시 및 시식회
- 1996. 12. 20 정기총회 개최(회장으로 이미숙 선출)
- 1997. 1. 4 제2대 이미숙 회장 취임
- 1997. 2. 농촌지도소에서 척사대회 실시 및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농산물 직거래 실시(취나물, 참깨 등 10종)
- 1997. 3. <꽃꽂이> 교육 10회 실시 -강사/김순옥(금연회안양지부장)
- 1997. 4. 1 비산동 김기연씨 농장에서 상추, 치커리 수확 봉사활동(30명 참석)
- 1997. 4. 7 수리산 등산 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 1997. 4. 21 미용강좌 8주간 실시 -강사/성미숙(성피부미용원장)



<우리농산물 애용장터/1995. 9.10>
지방특산물을 소개, 판매하는 우리농산물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장터



난 농원 봉사 활동(1993. 4. 2)

1997. 4. 28 <전통음식> 교육 -강사/노진화
1997. 5. 15 일산 <세계 꽃박람회> 견학
1997. 5. 29 관양동 민광규씨 농장 난 분갈이 봉사(10명, 3회)
1997. 6. 27 포천 생활개선회원 안양 방문
1997. 8. 18 <동판공예> 교육 4회 실시
1997. 9. <개량한복 만들기> 교육 6회 실시 -강사/김선옥(안양양재학원 부원장)
1997. 11. 10 열차를 이용한 내장산 견학
1997. 11. 13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개최
- 민속놀이 및 우리농산물 이용 요리 전시와 시식회
1998. 2.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시작(이후 월1회)
1998. 5. 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1998. 6. 9 화훼 재배 농가 꽃 팔아주기 봉사(수원역에서)
1998. 6. 17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관양동 전의수 농가)
1998. 6. 23 <안양 여성 기능 대회> 도우미 안내 봉사활동(문예회관)
1998. 11. 19 김포시 농촌 여성일감갓기 사업장 견학(쌀눈 기름공장, 샘재 콩나물 공장)
1998. 12. 3 정기 총회 개최(회장으로 구명자 선출)
1999. 1. 19 제3대 구명자 회장 취임,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1999. 3. 22 도생활개선협의회 주최 <메주 바자회> 참가(수원 갤러리아백화점)
1999. 4. 12 <한지공예> 교육(한지액자만들기)
1999. 6. 15 가평군 아침고요원에 수목원과 포천군 술박물관 견학(41명 참석)
1999. 6. 20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관양동 이명순농가)
1999. 7. 8 가정원에 손바닥정원 실습교육 -강사/류희정
1999. 8. 30 팔도자매결연지 일손돕기 추진(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40명 참가)
1999. 9. 「중앙병원」 안내 봉사 실시
1999. 11. 8 <칠보공예> 은목걸이 만들기 교육
1999. 11. 정기 총회 및 실적 보고회
2000. 4~6 <아트 프라워> 교육 10회 실시 -강사/박찬옥회원



화훼농가 일손돕기(2000.3)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
(2000.6.20)



관양동 텃밭가꾸기(2000.8)

2000. 5. 18 도·농 교류사업으로 <하동야생차 축제>에 참가, 차 만들기 실습(40명 참가)
2000. 6. 21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관양동 박영애회원 농장)
2000. 10. 10 청원군 상수「허브랜드」와 속리산 견학
2000. 10. 11~12 <생활 도예> 교육(수리산 도예원)
2000. 10. 25 <전통 상차림> 교육 -강사/김윤자(안양요리학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바자회 참여, 젓갈류 판매(조개젓 등 10종)
2000. 12. 안양시 예절관 교육(12명 참가), 「호계동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시작
2000. 12. 4 정기 총회(회장으로 한지연 선출)
2001. 1. 제4대 한지연 회장 취임
2001. 1. 15 <생활개선> 교육 실시 -강사/박미연(자연식 건강요법)
2001. 4.~6 <꽃장식> 교육 10주간 실시 -강사/박찬옥회원
2001. 6. 5 홍성군, 예산군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장 견학 및 광천 토굴, 광천장 견학(46명 참가)
2001. 6. 19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활동(관양동 박영애회원 농장, 34명 참가)
2001. 9. 10 강원도 평창군 농촌지도자회와 도·농교류사업 실시-감자 캐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2001. 10. 17 「세계도자기엑스포」 참가(광주시, 이천시)
2001. 10~11 <전통음식 교육> -강사/김윤자(안양요리학원 원장)



아트 플라워 교육(2000.7~8)



분재현장교육(2000. 6~7월)



안양시 자매군인
영월군 연화2리
고추밭 일손돕기
(1999.8)



차 비비기(2000.5.19, 경남하동 야생차밭)



시음 및 다도강의(2000.5.20, 경남하동)



전통요리 공개강좌(2001)



홍성군 은하면 장철리 장자울 전통장류가공장 견학(2001.6.2)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봉사
(2001.5.8)



어머니교통안전 지도자회

설립목적

뜻있는 어머니들을 교통안전 전문가로 양성하여
안양지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해방
되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을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음주운전 예방 및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안전사고 취약지, 사고사례 제보
교통사고 유자녀 사랑나누기 운동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발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는...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의 어머니 교통 봉사단체로서, 95년부터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활동해오다가 점차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1996년 7월 26일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를 결성하고 9월24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안양의 「녹색어머니회」는 안양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는데 1992년 2대 김정희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등학교의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부들과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통감, 회원들과 뜻을 모아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는 5명의 회장단(회장,부회장,총무,부총무,감사)과 5개 활동팀장(교통안전교육팀, 사고사례제보팀, 위반차량 고발팀, TV모니터팀, 사고 유자녀 지원팀), 10명의 상임위원, 그리고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회」 회장들로 구성된 31명의 대의원, 일반회원 4,2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대 김정옥이 2대까지 연임이 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정옥 회장이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류상현 회원은 행정자치부장관상, 이은순회원은 건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회원의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는 어머니(외국인 포함)로 교

통안전교육과 시험등의 과정을 통해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가 되며, 이렇게 소정의 교육을 거친 회원들은 안양시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순회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점 제보,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발, 음주운전 추방 운동 등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통안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거리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본 연합회와 별도로 각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 사무실을 두어 자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회원들은 교통안전 교육 및 어린이 등학교 지도는 물론 환경경찰의 임무와 교통문화선도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각종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 생활 속의 사고를 예방하는 생활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소년소녀 가장 돕기,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독거노인 돕기, 푸드뱅크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제1회 어머니지도자 체육대회(1997.10.23)



- 노란색은 태양(천재지변)
- 녹색은 자연(산, 들, 바다)
- 청색은 인위적(붕괴, 오염)

모든 지구상의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지키며 안전문화를 고취시키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심볼입니다.

연혁



매연차량 적발을 위해 지키는 모습
(1995.10~)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인 「어린이교통공원」
(자유공원내 소재)개장식 후에(1997.12.6)



어린이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1997.5.16)



교통지도자 양성 교육(1997.6.17)

- 1995~1996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활동
- 1995. 3. 22 환경경찰 발대식
- 1996. 7. 26. 「(사)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결성
- 1996. 9. 24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 1996. 10. 20 건설교통부 장관상 수상
- 1997. 4. 7 제2기 <전국교통안전지도자 발대식> 안양이 대표로 선서
- 1997. 9. 「교통안전 합창단」 결성.
- <어머니 지도자 전국합창대회> 참가, 준우승
- 1997. 10. 제1회 <어머니 지도자 전국 체육대회> 참가 종합우승
- 1998. 5. 12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2기 발대식
- 1998. 10. 제2회 <어머니 지도자 전국 체육대회> 참가, 종합우승
- 1999. 3. 4 척사대회
- 1999. 3. 25 99년도 회장단 워크숍(안양 경찰서)
- 1999. 4. 30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무실 현판식(구 동안구청)
- 1999. 5. 24 「녹색어머니」발대식, 480명 참가(안양문예회관 소강당)
- 1999. 5. 27 초등학교 24개교에 각 4벌씩 녹색제복 전달
- 1999. 6. 12~13 산업안전 관리공단 1박 2일 연수교육(인천 산업안전 관리공단)
- 1999. 11. 4 「녹색어머니 연합회」 가을 야유회 개최(충주호)
- 2000. 5. 25 대의원 야유회 실시, 47명 참여(천안)
- 2000. 6. 5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단체부문 <경기도지사상> 표창 받음
(시청 대강당)
- 2000. 6. 24~25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열린 생활안전지도자교육 50명 연수
- 2000. 11. 23 <안양시 여성대회> 참가 응원상 수상
- 장기자랑에 만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참여
- 2000. 12. 13 자원봉사대회 참여, 전정숙 상임이사 <안양시장상> 수상

활동사



〈녹색 환경 경찰 발대식〉 환경운동에 참여 시작(1995.3.22)

- 1997. 6. 〈환경의 날〉 행사 참여, 〈우리강 살리기〉 캠페인 한달에 1회 실시
-「교통안전공단」 교수진 초빙, 교통안전 어머니 교육 실시
- 1997. 7. 「자동차 성능연구소」 방문, 사고 위험성을 회원들과 함께 알아봄
- 1997. 11. 「환경연합회」와 함께 「환경의 밤」 개최
-음식물 줄이기 일원으로 〈신김치 페스티벌〉 개최
- 1997. 12. 일일찾집 개최(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 1998. 2. 〈경제를 살립시다〉 캠페인 실시
- 1998. 3.~11.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주 5회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 1998. 4. 3 〈우리 산을 살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장미:800그루, 무궁화:200그루
- 1998. 4. 9 「녹색어머니」 대상으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1998. 5. 1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험 실시
- 1998. 5. 12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1998. 5. 20 〈자동차 매연 줄이기〉 캠페인

1995.~1996.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활동

-각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교통 정리 및 아이들 교육

- 한달에 한번씩 매주 첫주 화요일 캠페인 실시
- 연중행사: 일일찾집, 교통사고 예방 촉진대회, 알뜰바자회, 환경살리기 운동 등

1997. 4. 〈녹색어머니 교통교육〉 실시 및 시험 통과한 어머니들에게 수료증 발부

1997. 5. 〈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

- 각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 교육 실시(12, 370명)
- 어머니지도자 320명 교육 수료



〈녹색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1996.10.29)

1998. 6. 3 <환경의 날>을 맞아 안양천 청소
 1998. 7. 안양천 청소 및 정화 운동
 1998. 8.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실시
 1998. 9. 안양천 청소 및 선서식
 1998. 11.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1998. 12. 3 일일찾집 개최
 1999. 1.~10. 매월 금요일, 「만안구 노인 복지회관」 무료급식 식당 봉사(매월 8명 참가)
 1999. 3.~현재 매월 화요일, 각 주요 교차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매월 385명 참가)
 매월 아침 각 초등학교 앞 교통 정리 및 통학길 지도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월요일~금요일, 강사 2명)
 1999. 3. 29 비산 초등학교 어머니회 교통 교육, 학부모:180명 참가
 1999. 4. 23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 어머니 지도자」 교육 실시, 190명 참가
 1999. 4. 24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자> 행사 참여 및 안내·교통지도, 기념품 증정
 1999. 4. 2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공청회 주제발표 및 책자 제작(수원 산업안전 관리공단)
 1999. 4. 28 「박달 초등학교」에서 어머니 교통 교육 실시, 98명 참가
 1999. 5.~11 <아나바다 바자회> 개최(안양, 덕현, 초원, 비산, 서초등, 신단, 삼성, 각 초등학교 강당)
 1999. 5. 3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자격 필기시험 실시, 178명 참가(자유총연맹)
 1999. 5. 20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시상식 참가(수원 시민회관)
 1999. 5. 24 <여성유주 추방 결의대회> 및 「녹색어머니」 발대식, 480명 참가(안양문예회관 소강당)
 1999. 6. 18 단오절 교통정리(중앙공원)
 1999. 7. 5 <전라남도 광주 어머니 지도자> 출장 시범 교육(광주 전남대)

① 환경운동 <안양천살리기>(1998.7.16) ② 준미술학원 학생들 교통안전교육(1997.5.24) ③ 환경 거리 캠페인(1998.2.26)
 ④ 5~6세 취학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1997.6.24)





제2기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강습회 후 시험보는 광경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재활용 시범회(1999.10.15)

- 1999. 7. 30~31 <김해시 어머니 지도자> 1박 2일 연수(김해시 여성회관)
- 1999. 8~현재 용인 에버랜드 교통강사 출장교육(에버랜드 내 교통공원)
- 1999. 8. 26 <창원시 어머니 교통안전> 출장 시범교육(창원 안실련)
- 1999. 9. 18 <안양천 정화대회> 및 안양천 청소(비산대교 천변)
- 1999. 10. 22 <안양시 교통 봉사자 화합 한마당> 개최, 24개 단체에서 760명 참석(안양시청 대강당)
- 1999. 11. 2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시범 및 <신김치 재활용> 강좌(글로리아 부페)
- 1999. 12. 초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운영
- 1999. 12. 중순 송년회 및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전달
- 2000. 1. 뉴코아백화점 앞에서 <핸드폰 사용금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700여명 서명)
푸드뱅크 5회 실시
- 2000. 1.~12. 매월 첫번째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안양시 전지역)
- 2000. 2. 안양시 전지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감시, 450건 고발
- 2000. 3.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13개교)
푸드뱅크 12회 실시
- 2000. 3.~12. 「안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25,400여명 교육완료)
매주 화요일 용인 에버랜드 출장 교통안전 교육 실시(1,650명 교육)
- 2000. 4. 19 안양시청 6층회의실에서 <생활안전지킴이> 양성교육 실시(178명 참여)
- 2000. 5. 3 각 초등학교별 안전깃발 및 깃대 전달(330매 전달)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촉진대회(540명 참여)
- 2000. 5. 9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단 발대식 및 교통 감시 실행(신당동 교통 공단, 210건 고발)
- 2000. 5. 20 「화성군 자동차 연구소」 견학 및 교통 안전 교육(45명 참여)
- 2000. 6. 29 「안양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각 초등학교 회장단 <교통안전 교육대회> 실시(212명 참여)
- 2000. 8. 23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이수(강남대학)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안양시 교통봉사자 화합 한마당>(2000.10)



환경운동인 <안양천살리기> 주부홍보요원 발대식
(2001.4.10)



운전중 안전띠 생활화 결의대회(2001.4.26)



〈안양천살리기〉정화운동(2001.3.23)



〈백만그루 나무심기〉내가 먼저(2001.4.7)



자전거대행진 사고예방 교통정리(2001.5.6)



장애아동의 나들이도 함께 해요(2001.5.10)

- 2000. 8. 27~28 화성지구 수해복구 참여(17명 참여)
- 2000. 9. 「중화당 한방병원」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활동 전개, 〈안양천 살리기〉정화운동 참여
- 2000. 10. 불온물 수거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단속 활동(먹자골목 앞)
시청 대강당에서 〈교통봉사자 화합 한마당〉 개최(21개팀, 720명 참여)
〈안양천 살리기〉새마을 비누공장의 무공해 비누만들기 견학 및 무공해 비누사용 캠페인 전개(40명 참여)
무공해비누 판매 및 안내장 배포(뉴코아백화점 앞, 40명 참여)
- 2000. 10. 25 비산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
- 2000. 11. 7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전국 안실련 체육대회 실시
- 2000. 11. 29 일일찾집 개최(뉴코아백화점 10층)
- 2000. 12. 8~9 안양 실내체육관, 〈천하장사 씨름대회〉도우미 활동(24명 참여)



「자동차 실험 연구소」 방문 활동



「99환경봉사 대상 및 새천년 환경인의 밤(2000.1.14)」



일일차집



「동지고아원」 방문(1998)



연합회의 단합을 위해 초등학교 및 교통봉사자의 화합 한마당



설립목적

전통문화를 통한 주부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전놀이문화 풍토 조성, 그리고 더불어 소외된 이웃·불우한 이웃들을 위안하는 문화봉사 활동을 하며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 정기공연/연 1회
- 옷다리농악가락, 풍물, 설장고, 오북, 앉은북, 소고춤, 진도북춤 익히기, 마당놀이
- 후진양성
- 탈춤 강좌
- 문화 봉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
- 우수한 지도자 양성

주부민속단은...

1990년, 안양시에서 운영해오던 「부녀기능대학」에 탈춤반이 신설된 것이 「주부민속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녀기능대학 탈춤반」에는 노명우(송파산대놀이 이수자)가 교수를 맡고 있었으며 평균학생은 30여명 정도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1기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던 중에 1992년 탈춤반 수료생이 3기까지 배출되어 규모가 커지자, 11월 11일에 1,2,3기수료생이 모여 합류 연수모임을 가지고, 또 1993년 2월 6일 서울 잠실놀이마당에서 벌어진 <대보름놀이 한마당 가창행렬>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며칠 후인 2월 17일, <탈춤> 모임인 「한무리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1994년 2월 28일 「로빈회」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행사>(1994.10.9)에 북춤 공연, <구충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1995.3.1)에서 '지신밟기', <미국LA 교포위문공연>(1995.10.21), 안양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가든 글로버시에서 <교포 위문공연>(96.10.12) 등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3회에 걸친 정기공연도 가졌다.

초대회장은 황영자(1993. 2. 17~1994. 3. 2)가 선임되었고, 2대 안병란(1994. 3. 2~1994. 12. 21), 3대 윤영자(1994. 12. 21~1996. 12. 20)이며, 4대 양진이(1996. 12. 20일)가 회장을 맡았다.

「한무리회」 창단 이후 조갑용(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호, 진주 삼천포 농악전수교육 조교), 노수철(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제27호 살풀이 제97호 이수자), 강민석(한울림 예술단 단장) 등을 초빙, 각종 전통문화놀이와 춤사위를 익히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무리전통민속예술원 한무리회의 이름과 같으니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고, 또 회원 8명이 탈퇴, 그것을 계기로 1998년 1월 17일, 이름을 바꿔 재창립을 하였는데 그것이 현재의 「주부민속단」으로, 1999년 2월 4일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주부민속단」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양진이가 계속 회장직을 승계하다가 1998년 12월 4일 제7회 정기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안선예(1998.12.4~2000.12.14)가 선임되었고, 현



재는 박영자(2000. 12. 15~)가 회장을 맡고 있다.

「주부민속단」은 「안양문화원」의 산하단체로써 매년 8회에 걸쳐 <탈춤무료강좌>를 개설, 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수료자들 중에서 전통문화를 익히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1년에 1회,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2001년 현재 회원은 42명이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2회(화,금), 정기적으로 연습실(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307-37, 구 동안구청 2층)에 모여 강민석(한울림 예술단 단장)의 지도로 옷다리 농악가락, 사물, 소고춤, 실장고(얇은반,선반), 오복춤, 얇은북, 호남우도풍물, 진도북춤, 탈춤 12마당 등을 익히고 있다.

「주부민속단」 현재까지의 총 공연 횟수는 탈춤공연 39회, 오복춤 103회, 얇은북 10회, 진도북춤 15회, 사물놀이 111회, 풍물놀이 89회에 이르며, 매년 한번씩 하는 정기공연은 2001년 올해로 8번째이다.



L.A 한인 경로잔치 포스엔셀레스 한인노인들을 위한 「제4회 포도원 잔치」가 22일 한인타운 디드모어 호텔에서 열려 노인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 행사는 포스엔셀레스 한인노인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포스엔셀레스 지사-이영호 기자)

<1995년 11월13일자 「중앙일보」에서>
- LA 한인경로잔치, 이 행사에 한무리회도 출연하였다.

화 제 의 모 임 전통의 숨소리를 찾아서



「한무리회」는 주부들 연호는 전통을 계승하여 제1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1994년 10월 15일 제1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1994년 10월 15일 제1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1994년 10월 15일 제1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설립하였다.

<1997년 2월7일자 「자연환경신문」에서>

- 1990. 4. 2 「안양시 부녀 기능대학」 탈춤반 신설 (장소/근로자회관)
- 1991.10.25 탈춤반 제2기 수료식 발표공연(문예회관)
- 1992.11.11 1·2·3기 합류 연수모임(문예회관)
- 1993. 2.17 「한무리회」 창립(회장 황영자 선임)
- 1994. 3. 2 제2회 정기총회(회장 안병란 선임)
- 1994. 6.16 한무리회 제1회 정기공연(문예회관 소강당)
- 1994.12.21 제3회 정기총회, 「주부기능대학 탈춤반 5기 합류
-회장 윤영자 선임
- 1995.10. 7 한무리회 제2회 공연, 탈춤(문예회관 마당)
- 1995.12.13 제4회 정기총회
- 1996.10. 2 제3회 한무리 정기 탈춤 공연
- 1996.12.20 제5회 정기총회
-회장 양진이 선임
- 1996.12. 4 사물 및 풍물연수 시작(조갑용 선생님)
- 1997. 8. 5 8명 탈퇴
- 1977.10.12 한무리회 제4회 공연/사물,탈춤,북춤,풍물(평촌 중앙공원)
- 1997.12.10 제6회 정기총회(문화원)
- 1998. 1.17 「주부민속단」으로 개칭
- 1998. 9.25 제5회 안양 주부민속단 정기공연/사물이야기, 마당놀이 4막,
오북, 진도북춤(문예회관 야외무대)
- 1998.12. 4 제7회 정기총회
-회장 안선예 선임
- 1999. 2. 3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 1999.10. 1 제6회 정기공연/한국의 소리 진도북춤, 오북춤 풍물 북놀이 샌
님미알, 포도부장
- 1999.12.10 제8회 정기총회
- 2000.12.15 제9회 정기총회
-회장 박영자 선임
- 2000.12.21 제7회 정기공연
-사물, 풍물, 앓은북, 오북(문예회관 야외무대)
- 2000.10.20 제8회 정기공연
-웃다리농악가락, 소고춤, 설장고, 마당놀이, 오북춤, 앓은북,
호남우도풍물(문예회관 야외무대)



동아리활동에서 시작...



<사진설명>

- ①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있었던 송파산대놀이마당의 '수표담교놀이' (1992. 10.8)
- ② '제4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탈춤기본춤사위)
- ③ '제5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 ④ '제6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의 오복춤(1992. 10.14)

1990년

- | | | |
|-------|------------------|--------|
| 5. 27 | 한마음체육대회(가장행렬) | 성남체육관 |
| 5. 30 | 경기도 여성기능대회(곤장놀이) | 수원시민회관 |

1991년

- | | | |
|--------|--------------------|---------------|
| 5. 31 | 송파 주부 공연 창조출연 | 국립국악원 소극장 |
| 7. 2 | 농협주부대학수료식 전야제(기본춤) | 농협 2층(남부시장 내) |
| 10. 18 | 송파산대놀이마당에서 수표담교놀이 | 서울장충단공원 |

한무리를 창립하고...

1993년

- | | | |
|--------|----------------------|-------------|
| 2. 6 | 대보름놀이 한마당(가장행렬) | 잠실놀이마당 |
| 10. 17 | 평화보육원 일일어머니체육대회 찬조출연 | 평화보육원 |
| 11. 18 | 제2회 룸비니 합창발표회 찬조출연 | 문예회관 대강당 |
| 12. 18 | 전통민속예술원 한무리 개원 축하공연 | 서봉빌딩(서울 잠실) |

1994년

- | | | |
|--------|------------------------------|----------|
| 2. 20 | 로빈희 주최 경로잔치 찬조 출연 | 안양공고 운동장 |
| 4. 28 | 불의 축제 (사물놀이, 북춤) | 수원 종합운동장 |
| 5. 3 | 제3회 어린이대상 큰잔치 찬조출연(사물놀이 북춤) | 평촌 중앙공원 |
| 5. 3 | 아주환경 1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사물놀이) | 문예회관 소강당 |
| 10. 9 |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 행사 축하공연(북춤) | 근로자회관 마당 |
| 10. 25 | 동안구 한마음 운동대회(사물놀이) | 평촌 중앙공원 |
| 12. 11 | 주부민속 예술공연단 창단 및 한무리 발표회(오복춤) | 국립극장 소극장 |

1995년

- | | | |
|-------|-----------------------|------------|
| 2. 14 | 서울 송파구 대보름놀이 (북춤) | 잠실 놀이마당 |
| 3. 1 |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공연 | 광화문 |
| 3. 11 | 한국 장애인 미술전시회 축하공연(북춤) | 안양 문예회관 |
| 4. 2 | 파주 정원요양원 위문공연 | 파주 정원요양원 |
| 5. 6 | 원주 실내체육관 2주년 기념행사 | 강원도 원주문예회관 |



▲ 구총독부 철거 선포식 /지신밧기(1995.3.1)

◀ 구총독부 철거 선포식 공연후 기념촬영

불우이웃돕기 ▶
대바자회/길놀이
(1995.11.23)



1995년

- 5. 27 전통문화한마당 큰 잔치(마당놀이, 북춤)
- 6. 2 단오제 행사 (북춤)
- 10. 5 안양시민의 날 행사 (북춤)
- 10. 21 L.A 교포위문공연
- 11. 13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북춤)

잠실구민회관
안양종합운동장
안양종합운동장
L.A 아드모아 공원
수원 시민회관



LA재미교포 위문공연(95.10.21)

1996년

- 2. 12 춘천시립 양로원 위문공연 및 단합대회
- 5. 23 연꽃마을 위문공연(북춤)
- 6. 20 단오제 행사 (풍물 및 행사보조)
- 6. 23 도 민속경연대회 (북춤 및 행사보조)
- 10. 5 시민의 날 행사(북춤)
- 10. 12 안양시 자매결연도시 초청 한인축제 특별공연
- 11. 2 만안 문화제 거리축제(거리행진북춤, 풍물)

춘천 시립 양로원
용인 연꽃마을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평촌 중앙공원
안양 종합운동장
미국 가든 글로버시
평촌먹거리촌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 사물놀이(96.10.11)

1997년

- 1. 31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념(북춤)
- 3. 8 교차로 주회 공자 유물전 개막전 행사(풍물,북춤)
- 5. 20 여성의 전화 개소식(풍물)
- 5. 28 국제 레슬링 대회 (풍물, 북춤)
- 6. 7 암사토요마당(오북춤)
- 6. 7 문화원 주최 '전통혼례식' 출연(풍물)
- 6. 9 단오제 행사(북춤, 진행, 안내)
- 6. 20 한마음 여성화음잔치 출연(북춤)
- 7. 2 97년 여성주간 행사(북춤)
- 8. 20 일본 기옥현 소목시 방문단 환영 만찬(단소, 북춤)
- 8. 21 일본 기옥현 소목시 방문단 환영 만찬
(설장고, 탈춤, 북놀이)
- 9. 6 농수산 도매시장 개장식 공연(풍물,길놀이)
- 9. 21 네팔(코당지역)돕기 자선바자회
(풍물, 북놀이, 북춤)
- 9. 28 인사동 전통 토종 문화전
(북춤, 노장, 취발이, 탈춤)
- 10. 2 안양 문화제 개막식 행사(안내, 진행)
- 10. 4 안양시민의 날 개막전 행사(북춤)
- 10. 12 제4회 한무리 정기 공연(민요, 탈춤, 북춤, 풍물)
- 11. 2 남산 제천행사 (북춤, 탈놀이)
- 11. 6 외국인(멕시코) 방문단 환영회(북춤, 북놀이)
- 11. 20 외국인(러시아) 방문단 환영회(북춤, 설장고)

전주덕진 종합회관 대강당
인사동 탑골공원
여성의 전화 사무실
안양종합운동장
암사동 유적지
시청 뒤 소공원
안양 종합운동장
안양시청 강당
안양시청 강당
뉴코리아 호텔
희래원

농수산물시장
안양 문예회관

인사동 거리

안양 문예회관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중앙공원
서울 남산
안양시청 강당
안양시청 강당



국제민족문화교류협회 태극,방곡 위문공연
(글로벌리아호텔)

주부민속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1998년

- | | | |
|--------|---|-------------|
| 2. 21 | 평촌1번가 민속거리축제 공연 | 평촌1번가 |
| 3. 1 | 방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찬조출연 | 안양문예회관 대강당 |
| 4. 24 | 국제민족 문화 교류행사 공연(사물, 오복춤) | 태국 방콕 |
| 7. 7 | 경기도 여성주간 행사(사물놀이) | 경기도 도청강당 |
| 7. 8 | MBC 실업기금 모금 자선공연 | 평촌 |
| 7. 11 |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태극기 이어달리기 참석, 공연(얇은북, 진도북춤) | |
| 9. 12 | 환경보호 나라사랑 자연사랑 행사 축하공연 | 시청 강당 |
| 9. 13 | 도 민속의 날 기념축제(진도 오복춤) | 평촌 중앙공원 |
| 9. 26 | 안양 시민의 날 식전행사(진도 북춤) | 안양 종합운동장 |
| 10. 2 | 금요 상설무대 4회공연(서울 오복 진도북춤) | 안양 문예회관 |
| 10. 16 | 만안문화제 가족 중창대회(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대강당 |
| 10. 19 | 서머힐 교육원 탈춤 사물놀이 공연 | 군포 서머힐 교육원 |

1999년

- | | | |
|--------|---------------------------------------|--------------|
| 3. 25 |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창립대회(사물놀이) | 군포 시민회관 |
| 4. 3 | 안양시장 취임식 공연(풍물 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
| 4. 20 |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대강당 |
| 5. 13 | 안양예술제(풍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야외무대 |
| 5. 17 | 주부클럽 신사업당 전국행사 장기자랑(사물놀이 얇은북/최우수상 수상) | 경복궁 |
| 6. 18 | 단오제행사 풍물놀이 | 평촌 중앙공원 |
| 7. 2 | 경기도 여성 주간행사 (사물놀이) | 수원 문예회관 대강당 |
| 9. 20 | 전국 사물거루기대회 참가(풍물놀이/탈립상수상) | 양평 |
| 10. 9 | 도민체육대회(풍물) | 평촌 중앙공원 |
| 10. 24 | 세계의 북소리 99 서울 드럼 페스티벌(풍물 길놀이) |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
| 10. 26 | 만안구 중창대회(오복춤) | 안양 문예회관 대강당 |
| 12. 31 | 안양시 새천년 맞이 전야제(사물놀이) | 안양역 광장 |



세계사물놀이 거루기 한마당 "풍물놀이"(양평실내체육관, 2000.10.28)



마을 잔치(2001.5.19. 안양실내체육관)



해물큰잔치(호계노인복지회관, 2001.5.8)



봉담 해뜨는 마을 양로원 방문(2001.6.16)



세계 도자기엑스포 "인양의날" 축하공연
(경기광주, 2001.8.29)

2000년

- | | | |
|--------|-----------------------------------|------------|
| 3. 1 | 3·1절 행사 한마음 길놀이(풍물) | 수원, 군포 |
| 3. 6 | 한림대학병원 개원 1주년 기념 행사
(얹은북, 오복춤) | 한림대학병원 강당 |
| 4. 7 | 로타리클럽 기념 식수행사(풍물) | 중앙공원 |
| 4. 20 | 장애인의 날 사물놀이 | 안양문예회관 대강당 |
| 6. 10 | 단오제 행사(풍물) | 평촌 중앙공원 |
| 7. 7 | 안양시 여성주간 행사 개막 공연 | 안양시청 강당 |
| 8. 8 | 안양시 노인 자원 봉사단 발대식(사물) | 동안여성회관 |
| 10. 1 | 만안 문화제(풍물) | 평촌 중앙공원 |
| 10. 8 | 안양 시민 축제(사물놀이) | 평촌 중앙공원 |
| 10. 28 | 제9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풍물) | 양평 실내 체육관 |
| 11. 23 |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막공연 | 안양 실내체육관 |
| 12. 8 | 천하장사 씨름대회(풍물,사물) | 안양 실내체육관 |
| 12. 9 | 천하장사 씨름대회(풍물,사물) | 안양 실내체육관 |

2001년

- | | | |
|---------|------------------------------|------------|
| 2. 7 | 평촌 1번가 주민자치단체 척사대회(풍물놀이) | 평촌중앙공원 |
| 3. 23 | 시각 장애인 협회 개막식(사물놀이) | 호계동 공원 |
| 4. 20 | 장애인의 날 행사(사물놀이) | 문예회관 대강당 |
| 4. 21 | 알뜰벼룩시장 개장식(사물놀이) | 평촌중앙공원 |
| 5. 4 | 노인 경로잔치(사물놀이) | 부흥고등학교 강당 |
| 5. 8 | 해울 큰잔치(사물놀이) | 호계 노인복지회관 |
| 5. 19 | 2001 마을잔치(풍물놀이) | 안양 실내체육관 |
| 5. 30 | '일어서는 사람들' 작품전시회 개막공연(풍물놀이) | 구축 화가 협회 |
| 6. 8 | 금요 상설 국악 한마당(풍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
| 6. 16 | 봉담 '해뜨는 마을' 양로원(풍물, 사물놀이) | |
| 6. 28 | 평등문화실천 전국 릴레이행사 (풍물놀이) |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
| 8.10,24 | 금요상설무대(사물) | 문예회관 야외무대 |
| 8. 29 | 세계도자기 엑스포 안양의 날 축하공연(사물) | 광주 |
| 9. 7 | 금요상설무대(사물) | 문예회관 야외무대 |
| 9. 16 |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사물) | 문예회관 소강당 |
| 9. 21 | 경기민요소리보존회 및 민속국악 창단식(오북) | 문예회관 국제회의실 |
| 9. 22 | 호스피스 후원금 모금행사(사물) | 새중앙교회 |
| 9. 23 | 로타리, 라이온스, JC 합동 체육대회(풍물,사물) | 군포초등학교 |
| 10. 3 | 외국인 근로자 위문공연(사물) | 새중앙교회 |
| 10. 13 | 시민축제 축하공연(풍물) | 평촌 중앙공원 |
| 10. 16 | 노인체육대회 식전·후 행사(사물,풍물) | 중앙공원 |
| 10. 17 | 안양LG, 수원 삼성 축구시합 응원 | 수원 월드컵 경기장 |
| 10. 23 |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축하공연 사물 | 문예회관 대강당 |



공연 전에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을 빌어주는 고사

정기공연

- ▶ 제1회 안양 한무리회 공연
 - 1994년 6월 16일 안양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 ▶ 제2회 안양 한무리회 탈춤공연
 - 1995년 10월 7일 안양 문예회관 마당에서
- ▶ 제3회 안양 한무리회 공연
 - 1996년 10월 2일



공연 팸플릿

공연 모습





공연 팸플렛

- ▶ 제4회 정기공연 및 만안문화제 개막식/1997년 10월 12일, 중앙공원 놀이마당 - 사물이야기, 마당놀이 4막, 오복, 진도북춤
- ▶ 제5회 정기공연 및 만안문화제 개막식/1998년 9월 25일, 문예회관 야외무대 - 사물이야기, 마당놀이 4막, 오복, 진도북
- ▶ 제6회 정기공연/1999년 10월 1일 - 한국의 소리 진도, 북춤 오죽춤, 풍물, 마당놀이 두마당
- ▶ 제7회 정기공연/2000년 12월 21일 - 사물, 풍물, 진도북춤, 오복춤, 설장고
- ▶ 제8회 정기공연/2001년 10월 20일 - 옷다리 농악가락, 소고춤, 설장고, 앓은북, 풍물, 오복, 마당놀이

수상

- 1998년 11월 16일/안양시 '국악경연대회' 풍물 부문 <동상>, 오복 부문 <동상> 수상
- 1998년 11월 29일/ '백운 사물겨루기대회' <버금상> 수상
- 1999년 5월 17일/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최 '신사임당 전국 장기자랑' 북놀이 <최우수상> 수상
- 1999년 9월 20일/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주최 '세계사물겨루기대회' 사물 부문 <버금상>, 풍물 부문 <딸림상> 수상
- 2000년 10월 28일/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주최 '세계사물겨루기대회' 풍물 <장려상> 수상
- 2000년 12월 13일/안양시 자원봉사자대회 <기쁨상> 표창



한마음체육대회 입장식 장면



안양여성자전거회

설립목적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단련하고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 운동, 회원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자전거타기 캠페인 전개
년말 어려운 이웃돕기
소년가장 장학금 지급
환경 살리기
노인복지회관 봉사

안양여성자전거회는...

자전거로 도로를 힘차게 누비는 용감한 여성들...

1995년 9월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뜻을 함께 모아 「안양여성자전거회」를 창단한 이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오전 회원들이 함께 모여 가까운 청계사, 백운저수지, 서울대공원 등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회원간의 친교와 화합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장거리코스를 선택하여 공해없는 도시 자전거타기 캠페인등을 벌이며 건강을 단련하고 환경도 살리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층이 40-60대로 결코 적지않은 나이에 중년 여성들로 구성 되어 있지만 젊은 여성 못지 않은 탄력있는 건강을 자랑하는 회원들...

월드컵, 환경, 교통질서 자전거캠페인과 전국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캠페인 등에 참여해 경기도를 일주하는 등 공익을 위한 일에도 앞장섬은 물론 연말 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도 년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양여성자전거회」는 현재 이정자 회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혁

- 1995. 8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 15명이 모여 창단 준비
- 1995. 9 「안양여성자전거회」 창단
초대회장/이영자, 총무 김정옥 선출
- 1996. 9 〈자전거대행진〉 개최
- 1999. 3 제주도 자전거 일주(2박3일)
- 1999. 7 전국 자전거 일주(부산-대구-경주-대전-안양) 4박 5일
- 2000. 8 제2대 임원 선출
회장/이정자, 총무 박정희
- 2001. 7 경기도 자전거 일주 (4박5일)
- 2001. 8 월드컵, 환경, 교통질서 자전거캠페인

주요 추진사업

- 1995. 9 「안양여성자전거회」 창단
- 1996. 5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 1996. 9 고성 향토문화재 및 통일전망대 자전거 대행진
- 1996. 12 연말 불우이웃돕기 소년가장 장학금 전달
- 1997. 5 〈춘천시민의날〉 자전거퍼레이드 참가
- 1997. 5 불우이웃돕기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 1997. 12 연말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지급
- 1998. 3 제주도 자전거 일주 (2박3일)
- 1998. 5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학금 지급
- 1998. 12 연말 이웃돕기
- 1999. 5 가정의달 저소득가정 자녀 학자금 지급
- 1999. 7 전국 자전거 일주(4박5일) 부산→대구→경주→대전→안양
- 1999. 12 소년 소녀 가장돕기
- 2000. 6 저소득가정 자녀 학자금 지급
- 2000. 6 6.25행사 임진각 자전거 대행진
- 2000. 9 강화 유적지답사 자전거 일주
- 2001. 4 제주도 자전거 일주(2박3일)
- 2001. 5 소년소녀가장 돕기 10명 지원
- 2001. 7 경기도 자전거일주(4박5일) 자전거타기홍보
- 2001. 9 〈춘천시민의날〉 자전거 퍼레이드 참가
- 2001. 10 설악산 자전거 일주(2박3일)

• 매주1회/한림대학병원 안내봉사

• 매주1회/만안노인복지회관 목록 봉사



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별 입장 모습



여의도 지구의 날 행사



제주도 2박3일 180Km 일주



수리산에서



학의천 공원에서



안양주부예술단

설립목적

풍물놀이를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며, 우리 가락과 소리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전통문화 계승 발전
 풍물놀이 및 우리가락의 활성화
 문화가족 저변확대
 전통문화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
 전통문화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주부예술단은...

안양시에서 운영해오던 「부녀기능대학」 탈춤반 수료생들이 모여 1993년 「한무리」라는 <탈춤>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4년 2월 28일 <로빈회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행사>(1994.10.9)에 북춤 공연,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1995.3.1)에서 '지신밟기', 안양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가든 글로버시에서 <교포위문공연>(96.10.12)등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3회에 걸친 정기공연도 가졌다.

1997년 8월, 중진회원 운영자 외 7명이 한무리회를 자진 탈퇴 안양문화원 「주부예술단」을 창단, 회장으로 운영자가 선임되었다. 2000년 3월 2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는 황영자가 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주부예술단」은 정통 풍물의 기량 향상과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예술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97년 7월 부터 안양문화원에 풍물강좌/지도/조감용(중요무형문화

재)>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를 1년이상 수료하였거나, 문화원장 또는 지도강사의 특별추천 받은 자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의 회원은 정회원 23, 준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2회(월,수) 정기적으로 연습실(안양시 동안구 관왕2동 1307-37, 구 동안구청 2층)에 모여 조감용선생(중요 무형문화재)에게 설장고, 농악, 선반, 설장고, 상모, 사물놀이, 대북의 합주 등을 지도 받고, 매년 하계수련회와 정기발표회를 통해 실력향상을 위한 정진을 계속하고 있다. '대북의 합주'와 '상모농악'이 뛰어난 특기라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1997~1998년에는 부안중학교, 호성 초등학교에서 설장고를 지도하였고, 현재는 만안여성회관과, 비산복지회관에서 풍물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1회 만안노인복지회관에서 조리, 배식 보조활동, 오지마을(하동) 신망애재활원(마석)에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연혁

1993. 2. 17 「한무리회」 창립(회장 황영자 선임)
 1994. 3. 2 제2회 정기총회(회장 안병란 선임)
 1994. 6. 16 한무리회 제1회 공연(문예회관 소강당)
 1994. 12. 21 제3회 정기총회(회장 윤영자 선임)
 1995. 10. 7 한무리회 제2회 공연, 탈춤(문예회관 마당)
 1995. 12. 13 제4회 정기총회 5기 합류(보성가든)
 1996. 12. 20 제5회 정기총회(회장 양진이 선임)
 1996. 12. 4 사물, 풍물연수 정통사물 및 풍물연수 시작
 (조갑용 선생님)
 1997. 7. 20 운영자 외 7명 「한무리회」 자진 탈퇴
 1997. 8. 1 「주부예술단」을 창립, 초대회장으로 운영자 선임
 1977. 8. 1~6 하계 국악연수(전남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지도/국립국악원 조갑용, 김창만
 1997. 12. 22~1.30 설장고 지도(부안중학교 어머니회)
 1998. 3. 5 안양문화원 제2기 풍물강좌 개강식
 설장고, 사물놀이
 1998. 4. ~6 설장고 지도(호성초등학교 어머니회)
 1998. 8. 2~6 하계 국악수련회(강원도 봉화북곡초등학교)
 -지도/국립국악원 조갑용
 1998. 12. 29 제2회 정기총회 개최
 1999. 4. 9 안양문화원 제3기 풍물강좌 개강식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1999. 4. 28 경기일보에 「안양주부예술단」 활동 소개
 1999. 8. 6~10 국악연수(상모돌리기) -지도/조갑용
 1999. 10. 9 「경기방송」 <안양주부예술단 임원들과의 대화>
 1999. 12. 27 제2회 정기공연 및 수료식(안양문예회관)
 (대북합주, 사물놀이, 설장고)
 2000. 1. 7 제3차 정기총회
 2000. 3. 2 「여성단체협의회」 가입
 2000. 4. 19 안양시 자매결연 미국교포학생에게 설장고 지도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2000. 12. 18 제3회 정기공연(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2001. 1. 15 제4차 정기총회 -황영자 회장 선임
 2001. 7. 2 「서대문경찰청」 여경창설 55주년 기념공연
 2001. 8. 15 광복절 55주년 기념식 공연
 2001. 10. 27~28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2001. 11. 23 여주교도소 모범수 교화사업



제3회 정기발표회(2000년 12월 18일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제2회 정기사물놀이 한마당 단원들과 함께...(1999.10.25)

〈한무리〉라는 이름으로 “주부민속단”과 함께 활동하던 때...

1993년

12. 18 전통민속예술원 한무리 개원 축하공연 서봉빌딩

1994년

4. 28 불의 축제 (사물놀이, 북춤) 수원 종합운동장
 5. 3 제3회 어린이대상 큰잔치 찬조출연(사물놀이 북춤)
 10. 9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 행사(북춤)
 10. 25 동안구 한마음 운동대회(사물놀이) 평촌 중앙공원
 12. 11 주부민속 예술공연단 창단 및 한무리 발표회(오북춤) 국립극장 소극장

1995년

2. 14 서울 송파구 대보름놀이 (북춤) 잠실공원
 3. 1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공연 광화문
 3. 11 한국 장애인 미술전시회 (북춤) 안양 문예회관
 4. 2 파주 정원요양원 위문공연 파주 정원요양원
 5. 6 원주 실내체육관2주년 기념행사 강원도 원주문예회관
 5. 27 전통문화한마당 큰 잔치(마당놀이, 북춤) 잠실구민회관
 6. 2 단오제 행사 (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5 안양시민의 날 행사 (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21 L.A 교포위문공연 L.A 마드모아 공원
 11. 13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북춤) 수원 시민회관



안양시부녀기능대학 4기 수료생들이 모여(작품발표회/90.10.11) 한무리를 조직, 정기 공연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대바자회 개장 길놀이(95.11.23)등의 활동을 하였다.



1996년

- 2. 12 춘천시립 양로원 위문공연 및 단합대회
- 5. 23 연꽃마을 위문공연(북춤)
- 6. 20 단오제 행사 (풍물 및 행사보조)
- 6. 23 도 민속경연대회 (북춤 및 행사보조)
- 10. 5 시민의 날 행사(북춤)
- 10. 12 안양시 자매결연도시공연
- 11. 2 만안 문화제 거리축제(거리행진북춤, 풍물)

- 춘천 시립 양로원
- 용인 연꽃마을
-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평촌 중앙공원
- 안양 종합운동장
- 미국 가든 글로버시
- 평촌먹거리촌

1997년

- 1. 31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념(북춤)
- 3. 8 교차로 주최 공자 유물전 개막전 행사(풍물,북춤)
- 5. 20 여성의 전화 개소식(풍물)
- 5. 28 국제 레슬링 대회 (풍물, 북춤)
- 6. 7 암사토요마당(오북춤)
- 6. 9 단오제 행사(북춤, 진행, 안내)
- 7. 2 97년 여성주간 행사(북춤)

- 전주덕진 종합회관 대강당
- 여성의 전화 사무실
- 안양종합운동장
- 암사동 유적지
- 안양 종합운동장
- 안양시청 강당



1995. 10. 7 제2회 한무리회 탈춤공연



1996. 10. 2 제3회 한무리회 정기공연

주부예술단을 창립...

1997년

- | | | |
|--------|----------------------------|---------|
| 9. 3 | 만안구 가족노래자랑 초청공연 -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
| 10. 23 | 문화가족 풍물발표회 -설장고, 북춤, 사물놀이- | 평촌 중앙공원 |

1998년

- | | | |
|--------|----------------------------|--------------|
| 9. 13 | 제3회 재안양 6개 도민회 민속놀이-사물놀이 | 평촌중앙공원 |
| 9. 17 | 우리국악 금요 상설무대 -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야외무대 |
| 9. 20 | 프로축구 LG, 삼성대항 식전행사 -웃다리 풍물 | 안양종합운동장 |
| 9. 25 | 만안문화제 개막식 공연 -사물놀이 | 안양 문예회관 |
| 10. 17 | 안양1번가 거리대축제 -사물놀이 | 안양일번가 역광장 |

1999년

- | | | |
|----------|--------------------------------|-------------|
| 1. 24~25 | 오지마을 위문공연 -설장고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 5. 30 | 안양청소년 축제 축하공연 -대북의 합주 | 안양청소년 수련관 |
| 6. 4 | 안양국악협회 금요상설 특별공연 -사물놀이, 설장고 |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 |
| 6. 18 | 안양단오제 식후행사 -대북의 합주 | 안양평촌 중앙공원 |
| 6. 24 | 해오름 뮤지컬 초청공연 -설장고, 사물놀이 | 안양문예회관 |
| 10. 1 | 안양만안문화제 개막식 식전공연 -대북의 합주와 사물놀이 | 안양문예회관 소강당 |
| 10. 2 | 안양시민의 날 식전공연 -대북의 합주와 소고춤 | 안양종합운동장 |
| 10. 9 | 제4회 재안양 도민회 민속놀이 | 안양평촌 중앙공원 |
| 10. 10 | 전통 혼례식 식전공연 | 평촌중앙공원 |
| 10. 16 | LG 전선안양공장 체육대회 | |
| 10. 25 | 경기사물놀이패 주최 '제2회 사물놀이 한마당' 특별공연 | 경기도 문화예술 회관 |
| 12. 31 | 새천년맞이 기념행사 축하공연 -대북합주 | 안양문예회관 대강당 |



제14회 만안문화제 개막식 대북의 합주 <죽하공연>(1999.10.1)



문화가족 풍물발표회 오복춤(97.10.23)

2000년

- 5. 3 안양여성서예가협회 정기발표회 식전공연
- 6. 8 여성지도자 1일 연수교육
- 6. 10 단오제행사 식전공연
- 7. 1 충청도민회 행사 식전공연
- 7. 2 의왕시민을 위한 국악마당 특별출연 -대북의 합주
- 10. 1 전국합기도대회 식전 공연
제15회 만안문화제 개막식 공연
- 10. 2 노인의 날 행사 식전공연 -사물놀이
- 10. 6 안양시민 축제 개막식
- 11. 12 경기 사물놀이패 3회 사물놀이 한마당
- 12. 10 천하장사 씨름대회 식전공연
- 12. 21 주부교실 독거노인 경노잔치 -사물놀이
여성신문사 개소식 및 아줌마동아리 대회 특별출연 -사물놀이

안양문예회관
곤지암 중부수련원
안양중앙공원
안양문예회관
의왕레포츠 공원
잠실체육관
평촌 중앙공원
안양시청 대강당
평촌 중앙공원
안양문예회관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안양결혼회관



제13회 만안문화제 개막식 축하공연



축구경기 LG:삼성 전 식전 공연을 마치고(1998.9.20)



'제3회 재안양 도민회 전통민속놀이'



새천년맞이 기념행사(1999.12.31)

2001년

1. 11	여성신문사 신년하례식 -대북합주	조선폭텔
2. 28	전국부동산협의회창립기념일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4. 8	전국국술협회기대회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잠실운동장
5. 1	용화사 석가탄신일 식전축하공연 -대북 및 사물놀이	
5. 3	가정의 달 기념행사 식전축하공연	안양 시청 대강당
5. 8	인덕원 성당 노인잔치 위문공연	
5. 26	새마을체육대회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6. 20	의왕시민을 위한 국악 축하 대북합주 공연	
7. 2	서대문경찰청 여경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대북연주	
8. 15	광복절 56주년 기념 축하공연	
8. 29	세계도자기 축제 공연	
9. 8	서울시립대 주최 월경축제(3회) -대북합주	을지로 5가훈련원 공원
9. 17	세계봉사의 해 물결운동 -사물놀이	시청광장
9. 23	수원대학교 화성시 체육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수원대학교 운동장
10. 7	궁중무술 전국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사물놀이	잠실체육관
10. 7~28	여성발전기금으로 안양시민을 위한 국악한마당 -대북합주, 설장고, 사물놀이, 농악, 선반 설장고	평촌일번가
10. 14	안양시 축제 축하공연 -대북합주	평촌중앙공원
11. 16	경기도 국악협회 국악의 향연 축하공연 -대북합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
11. 20	한마음체육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안양 실내 체육관
11. 23	여주교도소 모범수 교화공연 -농악, 사물놀이	
11. 29	경기도 여성신문사 북부여성지도자 축제 축하공연 -대북합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
12. 4	주부교실 독거노인 잔치 위안공연-사물놀이, 설장고	
12. 5	우리춤보존회 발표회 찬조 축하공연 -대북합주	문예회관 강당
12. 12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청 대강당 축하공연 -사물놀이	
12. 18	의왕시 계요병원 입원가족 송년의 밤 위안공연 -설장고, 사물놀이	



세계 도자기축제 공연



여성신문사 개소식 및 아줌마동아리 대회 특별출연 (2000.12.21)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국악마당(2001.10.7.~)

정기공연

- ▶ 제1회 정기공연 / 1998년 12월 6일
- ▶ 제2회 정기공연 및 수료식 / 1999년 12월 27일 안양문예회관에서
- ▶ 제3회 주부예술단 정기공연 / 2000년 12월 18일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수 상

- 1997년 10월 5일/전국 국악 경연대회 사물놀이(장려상 수상)
- 1998년 10월 8일/전국 국악 대제전 설장고(준우수상 수상)
- 2000년 11월 21일/전국아줌마축제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대북의 합주(우수상 수상)



전국 국악대제전에서의 설장고 합주(1998.10.10)



전국 아줌마축제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에서의 대북합주
(2000. 11.21)

3. 기 타 단 체

안양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 외에도 4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수집된 10개 단체의 현황만을 수록키로 한다.

화요문학동인회

「화요문학동인회」는 문예창작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함과 함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문인들의 동인활동체이다.

안양시청에서 1978년부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여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백일장의 입상자를 중심으로 1979년 「안양여성문우회」가 결성, 김대규시인에게 문학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중앙문단에 등단하는 동인들이 많아 지자 좀더 전문적인 문학수업을 위하여 1991년 〈화요문학동인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화요문학동인회〉는 여성들만의 문학서클이라는 점에서 특이하지만 안양의 어느 문학단체 보다 중앙문단에 신인을 많이 배출시킨 저력을 보여 문예도시 안양을 더욱 빛내고 있다.

현재는 이숙희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특색사업

문학 동인지 발간(1978년~2001년까지)총 17집 발간

추진내용

1. 단체 창작활동

- 1981년: 「누가 우리를 작가라 부르라마는」
- 1982년: 「마음을 열면 날아드는 한 마리 추억의 새」
- 1983년: 「아낙1」
- 1984년: 「아낙2」
- 1986년: 「그리고 우리는 멀리 떠난다」
- 1988년: 「하늘에서 한 뼘 아래」 등의 문집을 발간
〈안양여성문우회에 뿌리를 둔 새로운 화요문학 동인지〉
- 1991년 1집: 「우리의 눈물이 풀잎 하나 적시지 못 할지라도」
- 1992년 2집: 「세월 半 아픔 半」
- 1993년 3집: 「우리는 목수처럼 안락을 깎아 내린다」
- 1994년 4집: 「꽃씨 여물어 비운 자리에…」
- 1995년 5집: 「근황을 묻습니다」
- 1996년 6집: 「외로움의 상속」
- 1997년 7집: 「희망은 500g에서 시작된다」
- 1998년 8집: 「화요문학 · 8」
- 1999년 9집: 「화요문학 · 9」
- 2000년 10집: 「화요문학 · 10」
- 2001년 11집: 「화요문학 · 11」

2. 회원들의 창작활동

김영희:1982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동화당선.

장순금:1985년 「심상」으로 등단.

조한순:1987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화당선. 「똥똥이 안경」 TV드라마 「전원일기」

이숙희:1989년 우리문학에 「돌미나리를 뜯으며」와 9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 • 시집:「르 르 르」

이종희:1988년 경인일보 신춘문에 시 「꽃밭에서」가 당선

1989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 시집:「물방울 하나가 너에게 가고 있다」

이기에:1990년 「심상」으로 등단

백종선:1990년 경인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샘터의 달빛」이 당선. • 소설집:「그 남자의 뱃속에는 개구리 알이 들어있다」

정선모:1991년 한국시에 수필이 당선되어 등단. • 수필집:「빛으로 여는 길」, 「지휘자의 왼손」

최영희:1989년 마로니에백일장에서 시 장원, 1992년 한국시로 등단. • 시집:「정오와 날개」, 「푸른 스케치북」

신장련:1992년 한국시에 「봄눈」 외 4편의 시로 등단.

김성금:1993년 문화일보에 단편소설 「그물에 걸린 포충망」이 당선. • 소설집:「민달팽이」, • 장편소설:「티눈」

홍경임:1994년 한국시로 등단. • 시집:「하얀 목련의 계절」, 「하얀 비둘기」, 「그대 곁에」

홍미숙:1995년 창작수필에 수필 「어머니의 손」으로 등단. • 수필집:「그린벨트 안의 여자」

조동례:1995년 앞선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권오숙:1996년 순수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 시집:「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다」

양운덕:1996년 한맥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유철남:1998년 「수필문학」으로 등단.

홍성숙:1998년 「수필문학」으로 등단.

김미자:1999년 현대수필에 수필 「남가일몽」으로 등단. • 수필집:「마흔에 만난 애인」

김영자:2000년 마로니에 백일장 산문 장원

박난영:2001년 마로니에 백일장 산문 장원

박정임:2001년 한국시에 「불면」 외 2편의 시로 등단

강현자:2002년 전북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김성금동인 창작집 「민달팽이」 출판기념회



김대규시인 회갑기념시선집 「가을소작인」 출판기념회

보림장학회

「보림장학회」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자기 개발을 통해 실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봉사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호계동 일대의 뜻 있는 주민 45명을 주축으로 1988년 7월 7일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데도 생활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장학사업 외에도 해마다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해마다 회원을 대상으로 장갑 1천 켤레를 판매하여 고아원을 방문하는 등 정기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정기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 때문에 곤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거나 딱한 사정의 체육장학생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이원 회장을 주축으로 3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주요특색사업

불우이웃장학사업, 경로위안잔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애인 돕기, 백혈병 어린이 돕기

주요추진내용

- ① 불우이웃 장학사업 /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중·고등 학생 2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 ② 경로위안잔치 / 14년동안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독거노인과 1000여명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음식과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
- ③ 소년소녀 가장돕기 / 관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활 보조로 매년 30만원씩 10여명에게 주었음.
- ④ 장애인 돕기 / 장애인 공동체 삼덕원을 10년 동안 연료비와 후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부곡에 있는 양지의 집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겨자씨 마을 공동체에 매주 목요일마다 야채 배달을 하였음.
- ⑤ 백혈병 어린이 돕기 / 김윤진 어린이 돕기 보리밥 바자회에서 찬조금 일천이백일만육천원을 지급하였음.



매년 강원도 홍천 「삼덕원」을 방문, 성금과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가서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동안구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고 회원들과 함께 서울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1992.5.30)

안양우리춤보존회

1988년 「안양시 주부대학」에 한국고전무용교실이 개설되고 취미로 고전무용을 학습, 수료한 주부들을 주축으로 1995 무용강사 김영애 주도하에 비상설, 비영리 무용단체인 麗舞會를 결성, 각종행사에 출연, 성공리에 발전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안양 우리춤보존회」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양지역의 주부들이 모여 무용능력 창달을 도모하고, 경로 위안, 군부대, 교도소 위문 등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활동으로 안양지역의 여성지위 발전에 기여함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혁

1995. 여무회 결성, 회장 김영애 선출 / 1997. 12. 제1회 여무회 우리춤 발표회 / 1999. 우리춤보존회로 개칭
1999. 제2회 우리춤 발표회 / 2000. 11 제3회 우리춤 발표회

활동현황

1990. 5. 23	경기도 예능대회 출연, 인기상 수상(수원)
1990. 5. 30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출연
1991. 5. 28	경기도 여성체육대회 출연(성남 공설운동장)
1991. 6. 8	제12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1991. 10.	안양시 시민의 날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이후 해마다 출연함
1992. 6. 8	제13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1992. 10.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출연(수원 공설운동장)
1993. 6.	제14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1994. 5. 15	경기도 국악협회 행사 출연(수원 문예회관)
1994. 5. 27	제3회 안양예술제 국악 한마당 출연(안양 문예회관)



1994. 8. 29	전국 시조경창대회 출연(서울 중구 구민회관)
1995. 5.	제4회 안양예술제 국악 한마당 출연(안양 문예회관) 이후 매년 출연
1995. 5. 27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안양 문예회관), 안양시장 취임 축하공연 출연(안양 문예회관)
1995. 9. 20	제3회 목련마을 불우이웃돕기 음악회 찬조출연(범계중학교)
1995. 11. 18	안산시 호남 향우회 경노위안잔치 찬조출연
1996. 2. 21	경기도 문인협회 행사 찬조출연(안양시 문예회관 국제회의실)
1996. 5. 28	안양시 여성체육대회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1996. 6. 8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안양 공설운동장)
1996. 9.	남양주 제60공병단 위문 공연
1997. 5. 4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1997. 6. 20~24	호주 시드니를 방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립 45주년기념 및 호주지회 창립 14주년기념행사 출연 한인노인정 위문공연
1997. 8. 20	일본 도꼬로자와시(所澤市) 친선방문단 환영회 2회 출연(안양시청)
1997. 8. 24	멕시코국 나우칼반시 친선 방문단 환영회 출연(안양시청)
1997. 10. 9~16	미국 자매시 가든 그로브시 초청, 방문 공연
1997. 11. 4	브라질 친선방문단 환영회 출연(안양시청)
1997. 11. 20	러시아 브리아티야공화국 친선방문단 환영회 출연(안양시청)
1998. 6. 5	금요무대 출연(이후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실시)
1998. 6. 19	안양예술제 공연
1998. 10. 18	걸스카웃 경기도연맹지부행사에 10여명 출연
1998. 12. 7	주부교실 노인잔치 출연
1998. 12. 12	삼원 프라자 공연
1999. 5. 27	하와이 교민 장수대학 초청으로 하와이 맥킨리 고교 대강당에서 공연.
1999. 7.	안양2동 낙원마을 화심천 우물제 출연(살풀이춤 10명)
1999. 11. 1~5	일본 동경, 한·일 농협주최 99동경농협제에 출연(메이지신궁)
1999. 12. 31	새천년맞이 공연(안양문예회관 대강당)
2000. 5. 24	노인 경로잔치 출연(부흥고등학교 강당)
2000. 8. 8	노인자원봉사대 공연(동안여성회관 강당)
2000. 9. 8	경기민용보존회 공연에 찬조출연(문예회관 옥외무대)
2000. 9. 27	평양검무 보존회 정기공연에 찬조출연
2000. 10. 2	노인의 날 기념행사 부채춤 출연
2000. 10. 16~20	미국의 자매도시 버지니아주 햄튼시 문예극장에서 공연
2000. 12. 18	노인잔치 출연(결혼회관 지층)
2000. 24~28	일본 아오모리현 한·일 청소년교류축제에 출연
2001. 5. 4	부흥동 노인경로잔치
2001. 5.	안양1동 노인경로잔치, 비산1동 노인경로잔치(비산동 성당)
2001. 5. 19	안양제1교회 행사에 출연(안양체육관)
2001. 6. 16	수원 해뜨는 마을 양노원 위문공연(봉담성당)
2001. 6. 29	제6회 세계한민족 우리말 웅변대회(대통령상)에 출연
2001. 7. 6	수원 양노원 위문공연(율전성당, 아그네스 집)

이 문 회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강좌 및 모든 지식을 배워 자아 실현과 봉사에 그 목적을 두고 「안양시 주부대학」 서예반 수료자들이 모여 1991년 1월 22일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에 정금우를 선출하고 회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인근학교 및 복지관 등에서 후배들을 위한 서예지도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이목희 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년 1회 회원전을 개최하며 서예의 저변확대 보급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서예활동을 하며 틈틈이 지역사회 봉사 및 이웃돕기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매년 〈이문 서예전〉을 열어 지역문화 발전과 서예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주요추진내용

1991. 10. 16~17	제1회 회원전 및 수료식 작품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2. 10. 13~15	제2회 회원전 및 수료식 작품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2. 11. 27~28	예술의 전당 서예관 수호 성명운동 및 성금전달
1994. 10. 4~	제3회 회원전 및 동문회 전시회(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5. 3. 16~19	제4회 이문회 전시회(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7. 1. 10~13	제5회 이문서예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8. 10. 16~18	제6회 이문서예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1999. 12. 27~29	제7회 이문서예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2000. 11. 3	도자기 현장학습(여주)



전시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이문서예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안양시 재향군인 여성회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선봉,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1991년 창립되며 초대회장으로 김정자회장을 선출하고 환경보호운동과 기초질서 확립, 그리고 사회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년 2회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워 줌은 물론 안보현장 견학과 안보강연회 등을 통하여 남북화해 협력시대 국가안보와 향군의 역할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 1991. 7. 4 향군부인회 창립총회 • 1991. 7. 29 향군부인 제2호 향군부인회 조직활동, 지침시 달 공문접수 • 1991. 8. 26 안양시 향군부인회 창립총회 • 1992. 3. 10 김정자 초대회장 선출 • 1996. 3. 27 제4차 정기총회 이민자 회장 선출 • 1999. 3. 24 제7차 정기총회 정옥선 회장 선출

주요특색사업과 추진 내용

- 환경보호: 지역환경활동으로 깨끗한 안양시 건설에 일익 담당
 - 학의천, 안양천, 관악산, 수리산 등 오물수거 작업, 관악산, 수리산 계곡 및 등산로 주변 오물수거 및 산림보호운동
- 기초질서확립: 거리질서 캠페인 및 학교폭력 추방운동
 - 문화시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운동 - 캠페인활동 전개(전단배부)
- 사회봉사활동: 전진상(근로자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 자원봉사
 - 자원봉사: 안양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봉사활동, 근로자복지회관(전진상) 무료급식봉사활동
 - 수해지역 봉사활동: 관내/안양2동 수해지역, 타지/동두천지역
- 국민통합: 영·호남 출신자 향군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단합된 안양시민상 구현하고 지역갈등해소, 공동체의식 함양
- 군부대 위문활동: 167연대 장병위문 년 2회
- 전후방 전적지 견학: 참전자들의 격전현장소감 청취, 안보태세확립
- 안보현장 견학: 국립현충원, 현충탑참배 및 정화활동 전개, 관문점, 통일전망대, 땅굴견학을 통하여 안보태세 재무장다짐
- 안보강연회 참여: 남·북화해 협력시대 국가안보현실과 향군의 역할 관련



현충원 참배



자연보호 활동

평촌부녀연합회

1993년 3월, 평촌신도시 탄생과 더불어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 총회장단 모임으로,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보건 향상 및 주민 복지, 불우이웃 돕기 및 단지별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평촌부녀연합회는 <일일찻집> 수익금과 <농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어린이(초등1~중1)들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 수련회를 8년째 개최하고 있고, 독거노인·장애인 비인가 시설에 기금 전달,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복지관 노인 점심봉사와 벼룩시장 개최 등의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아파트부녀회총회장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난 전임 회장도 계속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어 현재 57명의 회원이 서로 돕고 위로하는 친자매와 같은 친목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안양시의 <우수모범단체>로 선정이 되어 표창장을 받았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여성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모·부자가정 어린이 하계수련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주요특색사업

-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자녀 하계 수련회, 인보사업 • APT단지 내의 정보교환 및 친교사업
- 농산물 직거래 판매

주요추진내용

- ① 청소년보호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를 위한 하계수련회로 여름방학을 이용 1박 2일간의 캠프를 열고 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재정을 부담해 왔으나 2000년부터는 안양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 ② 불우노인 및 모자가정돕기 사업: 1996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방문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일일찻집과 바자회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③ 불우이웃돕기 기금전달사업: 무의탁노인, 정신지체자, 장애인 등의 수용시설에 쌀, 전자제품, 생필품, 기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 하계수련캠프(2001.7.26~28, 용인에버랜드)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

안양시 종합민원실의 민원안내 등을 봉사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30일 60명이 안양시 명예시민과장으로 위촉된 후 현재 42명의 명예시민과장이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의」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정근례 회장을 선출한 이래 현재까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안내, 민원대서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1일 2명씩조를 편성하여 민원안내 도우미활동을 함은 물론 불우이웃돕기와 자연보호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특색사업

민원안내 및 민원대서(1일 2명씩 근무), 불우이웃돕기 및 자연보호 활동

주요추진내용(연간)

- 민원안내: 4,738건
- 민원대서: 1,022건
- 불우이웃돕기: 10가정(가정당 백미 20kg)
- 자연보호운동전개: 2회(안양유원지, 병목안)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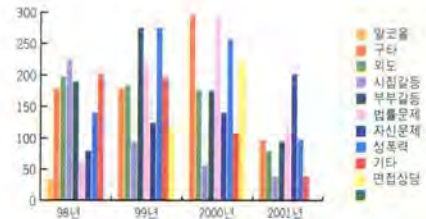
자연보호 활동

(사) 안양여성의 전화

「안양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안양지역에서 1996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상담사업과 여성인권지원사업, 여성교육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 특히 2000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여성폭력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http://awhl.w21.net>).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연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

가정 폭력과 성폭력으로 치명될 수 있는 여성폭력에 대하여 「안양 여성의 전화」는 2001년 5월 현재 5,500건의 상담을 받아 인권지원을 하여왔으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안양 여성의 전화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전화 운동은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의 문제, 특히 우리 사회의 아내 구타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우리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여성의 전화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지부로서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그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가 인정을 받을 때까지 준비 모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다시 1년간 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걸맞고 여성의 전화운동에 걸맞아야 창립을 허가 받는 것이다.

「안양 여성의 전화」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의 지부로서 1998년 1월 8일에 창립, 5월 20일 개소식과 함께 상담전화가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안양 여성의 전화가 해 온 일들...

「안양 여성의 전화」의 주요활동은 크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인권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사업 및 조직사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일은 상담사업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그리고 밀도있게 이어지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인권후속조치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활성화된 사이버상담으로 그 영역이 훨씬 다양해졌다.

또한 상담사업에서 본회는 찾아오는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개인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 후속지원 하는 일 등을 한다.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은 본 회가 1998년 10월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으로 여성가장의 정서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결연 가정 연계사업 등을 통해 2001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99년도에 설립되어 2000년 상반기까지 활동한 IMF위기여성지원센터(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안양여성문학회

「안양여성문학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잠재된 특성 개발의 일환으로 안양지역에서 활동중인 동아리(시나래 동인회, 시월에 동인회, 동안여성회관 문예창작반 출신 등)들을 규합하여 지역 문학 발전,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예 창작 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문학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0년 2월 창립되었다.

초대 임원으로는 회장에 수필가 최예옥, 총무 유태재가 선출되었고, 이에 이어 2001년에는 2대 회장으로 유태재, 총무 은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특색사업

- ① 여성 전문 문예지 「문학산책」 발간 봄, 가을(연 2회)
- ② 정기 문학 기행(연 2회) ③ 작가와의 대화(연 4회)
- ④ 문예 창작 활동 및 수업(매주 1회)

주요추진내용

- ① 「문학산책」 발간

1996년 가을, 한국 최초로 여성 전문 문예지 창간호 발간(국판, 200p 내외, 값 4,000원) 2001년 가을호 11집 발간.

- ② 문학기행

1995년부터 시작된 문학기행은 안양여성문학회 주도로 1997년 가을부터 소설가 이효석 문학비 및 생가 답사를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에 걸쳐 갖고 있음.

- 「따오리」의 아동문학가 한정동 시비 답사(시흥시 물왕동)
-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가 이효석 문학비 및 생가 답사(강원도 평창)
- 「향수」의 시인 정지용 시비 및 생가 답사(충북 옥천)
- 「봄봄」의 소설가 김유정 문학비 및 생가 터 답사(강원도 춘천)
- 「껍데기는 가라」의 시인 신동엽 시비 및 생가 답사(충남 부여)
-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시인 홍사용 시비 답사(경기 화성군)
- 「상록수」의 소설가·시인 심훈 시비 및 필경사 답사(충남 당진군)
- 「알 수 없어요」의 시인 한용운 시비 및 생가 답사(충남 홍성)
-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시인 남궁억 시비 답사(강원도 홍천)
- 「강호사시가」의 시인 맹사성 시조비 및 생가 답사(충남 온양)
- 「별」의 시인 이병기 시조비 및 생가 답사(전북 익산)

- ③ 작가와의 대화

안양시 여성 발전 기금으로 저명 문인 초청 강의 및 대화를 평촌 도서관 강당에서 갖고 있음.

- 2000. 4. 19 수필가 윤재천(계간 현대 수필 주간)

- 2000. 7. 19 시인 문덕수(예수원 회원)
- 2000. 11. 24 시인 임영조(중앙대 예술대학원 강사)
- 2001. 4. 27 시인 김종철(도서출판 문학수첩 대표)
- 2001. 7. 20 시인 조창환(이주대 국문과 교수)

④ 문예창작 수업

동안 여성 회관 등에서 배준석 시인(문학산책 주간·예충안양지부 사무국장)으로부터 매주 1회 문예창작 강의 및 지도를 받고 있음.

기 타

① 등단 문인 : 문단에 등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

- 최예옥:1998년 가을 계간 「현대수필」에 「아름다운 벽」으로 등단.
- 정명순:1998년 월간 「아동문예」에 「가을들판」외 2편으로 등단
- 정용화:2001년 4월 월간 「시문학」에 「흐린 날의 드라이브」외 3편으로 등단
- 박연숙:2001년 4월 월간 「문학산책」에 「구두」로 등단

※ 이외 전국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시부분 장원, 수주문학상 우수, 새얼 전국 백일장 시 장원 등 각종 백일장 입상 다수

② 개인 작품집 발간 :

- 최예옥:2000. 9. 25 수필집「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문학관 발간



문학을 사랑하는 안양지역 여성들의 연합체인 안양여성문학회 창립 모임에 참석한 각 문학모임 대표들 (좌로부터 정용화, 김영미, 최예옥, 은춘원, 김혜경)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서 남궁억 선생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시비 앞에서 기념 촬영(2000년 여름)

여성지방정책연구회

목 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여성지도자로서, 국회 지방의회 및 기타 관공서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사회의식 고양과 여성 인력 양성에 이바지한다.

연 혁

- | | |
|-------------------|---|
| 1997. 3. 6~6. 9 | 제1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
| 1997. 5. 20 | MT 중미산 work shop |
| 1998. 3. 3~6. 9 | 제2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
| 1999. 1. 26 | 안양시 지방정책연구회창립총회 제1대회장 이정씨 취임 |
| 1999. 4. 5~7. 22 | 제3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
| 1999. 5. 15 | MT 남이섬 work shop |
| 1999. 8. 26 | 서울구치소 재소자 생일잔치 자원봉사(회장 외 3명) |
| 1999. 10. 13 | 납골당 견학 |
| 1999. 10. 30 | 여성발전기금 지원금 결정 |
| | ① 지방자치정책과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 확대에 따른 설문조사(3,455,000원) |
| | ② 제1회 21C 여성 아카데미(2,305,000원) |
| 2000. 4. 22~7. 27 | 제4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
| 2000. 5. 2 | 제4기 MT 밤섬 유원지 work shop |
| 2000. 4. 30 | 제2대 윤순영 회장 취임 |
| 2000. 5. 20 | 경기도 여성정책 국장(이영성) 초청강연(140명 참석) |
| | “지금은 여성이 일어서야 할 때이다” |
| 2001. 3. 20~7. 12 | 제5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과정 입학, 수료(60명) |
| 2001. 5. 15 | 안양시 나무심기 운동참가(동안고 옆 식수) |
| 2001. 5. 23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1강(230명 참석) |
| 2001. 6. 27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2강(120명 참석) |
| 2001. 7. 11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3강(100명) |
| 2001. 9. 20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4강(65명 참석) |
| 2001. 10. 30 | 여성발전기금 지원금 결정 |
| | ① 제3회 21C 여성 아카데미(2,205,000원) |
| | ②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부모교실운영(2,290,000원) |

주요특색사업

- ① 제1회 21C 여성 아카데미
- 기간 : 2000. 9. 12~10. 12(매주 목요일 10:00~13:00)
 - 장소: 동안여성회관
 - 참석대상: 안양시 거주 여성

• 강사 및 강의내용:도표 참조

강 의	강 사 명	강 의 내 용	비 고
1	김상원(경기대교육대학원장)	청소년의 성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110명
2	김상원(경기대교육대학원장)	청소년의 성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110명
3	유인경(경향신문기자)	여성으로의 삶, 주부로서의 삶	80명
4	임혜진(마이클럽커뮤니티 리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75명
5	최윤희(신주부운동회장)	나도 벤처 주부가 될 수 있다	65명
6.	이계명(여성신문 사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여성	65명
7.	장인성(경기대교수)	벤처기업과 벤처주부	60명
8	이해주(방통대교수)	시민교육 왜 필요한가?	60명

② 지방자치 정책과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 확대에 따른 설문조사

- 기간:2000. 9. 12~11. 30
- 참여인원:총 901명
- 보고회 개최:2000. 11. 30 오후 2시(안양시청 제2회의실)
- 자료집 발간:별첨

③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 기간:2001. 5. 23~9. 20
- 장소:안양시청 제2회의실
- 참석대상:안양시 거주 학부모
- 강사 및 강의내용

강 의	날 짜	강 사 명	강 의 내 용	비 고
1	2001.5.23(수)	김만곤 (교육인적자원부장학사)	엄마들이 알아야 할 7차 교육과정	230명
2	2001.6.27(수)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사무관)	2001년 대입제도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나?	100명
3	2001.7.11(수)	이승표 (교육인적자원부연구사)	교육평가와 학부모의 역할	110명
4	2001.9.20(목)	정 민 (한양대 교수)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60명

④ 최윤재씨 돕기 일일차집

- 일시:2001. 3. 14 (수)
- 장소:평촌 뉴코아 백화점
- 성금:200만원 전달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 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9호
개 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3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9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2001. 4. 21 대통령령 제1720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리증진에 관한 정책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 3 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2 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 4 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5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 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6 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내지 제16조 삭제〈1998. 2. 28〉

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2001. 1. 29〉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 3 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1. 4. 21>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01. 4. 21>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1999. 6. 30, 2001. 1. 29>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표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5 장 여성단체 지원 등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의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 4. 21]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③ 삭제 <1998. 2. 28>

제 6 장 보 칙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전문개정 1998. 2. 28]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 4. 21]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1998. 2. 28 대령 제15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6. 30 대령 제1642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1. 4. 21 대령 제172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편 환경복지 제2장 여성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7.3.26 조례 제1537호]
개정 1999. 1. 1 조례 제1610호
1999. 6. 1 조례 제1622호
1999. 9. 1 조례 제16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기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 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 교류증진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양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시의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업무담당주사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회계관리 규정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97. 3. 26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1997. 3.26 규칙 제9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때
2.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 하고자 할 때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증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

업자에 대한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익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정기회】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회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여성발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안양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26.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여성단체사」 편찬위원

- 이 상 윤 (안양문화원장)
- 변 원 신 (전, 안양시 새마을지회장)
- 김 대 규 (안양문인협회 지부장)
- 김 종 수 (전, 안양시지 편집장)
- 이 승 언 (시흥시향토사료실)
- 정 어 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
- 황 영 희 (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장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김 경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박 복 자 (전 조산사회 안양지회장)
- 김 영 자 (안양읍 새마을부녀회장)
- 김 인 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이 인 자 (여성상담교육 수료자회 회장)
- 이 정 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김 영 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윤 옥 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감사)
- 이 춘 자 (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계 성 숙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선임부회장)
- 박 정 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이 재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유 칠 남 (YWCA 회장)
- 구 명 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홍 랑 식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이 순 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안양여성단체사」 편찬 추진 경과

- 1999. 8 8월 월례회의시 “안양여성단체사” 제작 사업을 추진키로 함
- 1999. 9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 1999. 11 기금 지원 사업 승인(사업명/안양여성단체사 제작)
- 1999. 12 준비위원회 개최,
- 2000. 2. 10 제1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 구성
- 2000. 5. 2 제2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 개최 논의
- 2000. 5. 23 제3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의 진행 준비
- 2000. 5. 30 “안양여성사” 편찬위원회 개최
-책자명칭/안양여성사, 사료기간, 전문위원 위촉 논의
- 2000. 8. 22 제4차 소위원회의 개최
-연석회의 개최, 사진자료 수집, 사진전시회 등을 논의
- 2000. 9. 4 제5차 소위원회의 개최
-수집사진 검토, 수집보완 방법, 단체 회의시 홍보 논의
- 2000. 9. 19 “안양여성사” 제작에 따른 편찬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연도별 분담결정(팀 구성), 자료수집 방안 논의
-각 단체장 별도 모임 개최



「안양여성단체사」 발간 준비 소위원회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을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하고 있다.

2000. 11. 14	제6차 소위원회의 개최 -단체별 자료수집 담당자 선정 -단체별 대표자 회의 일정 선정 -사진전시회 및 각 단체임원 간담회 개최 논의
2000. 11. 22	안양 여성단체사 단체별 대표자 회의 --사진분류 작업, 사진판넬 제작
2000. 12. 13	안양여성단체사 7차 소위원회의 개최 -목차, 부수, 기획 등 제반사항 논의
2000. 12. 22	안양여성단체사 사진전시회 및 송년회 -단체별 사진자료 전시, 참석인원/120명
2001. 2. 5	제8차 소위원회의 개최 -사진을 곁한 발전사 제작건
2001. 3. 29	여성단체사 사료증거위원과 실무위원 연석회의 개최
2001. 5. 15	안양여성단체사 제9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집 방향, 시기 등을 논의
2001. 5. 22	안양여성단체사 제10차 소위원회의 개최 -단체별 자료수집 현황 점검
2001. 6. 13	여성발전사 제11차 소위원회의 개최 -협의회 년도별 주요추진사업 정리 -단체별 자료수집 보완
2001. 7. 20	안양여성단체사 편찬을 위한 역대 관계자 회의 -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 보완 대책 -향후 편집 방향
2001. 7. 31	인쇄출판사 선정 논의, 경희기획으로 선정
2001. 9. 10	1차 원고 정리회의/기획사, 편집위원 참석
2001. 10. 5	안양여성단체사 원고 편집회의
2001. 10. 16	안양여성단체사 자료 보완을 위한 각 단체장 회의 -단체별 미진한 자료수집 보완안
2001. 11. 2~30	단체별 원고 수정, 교정
2001. 11. 9	2차 발전사 원고 교정
2001. 12. 26	편집 검토 및 교정
2001. 12. 27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에 따른 중간 회의 -미진한 자료 보완 -원고 교정 완료

安養女性團體史

발 행 일 2001년 12월 31일
발 행 처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발 행 인 황 영 희
편 집 경희기획(031)384-9552
제 작 도서출판 우인스
표지집자 안양여성서예가협회

〈비매품〉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번지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내
전화 (031) 386-6151